

수원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김도영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정혜진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최서영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제 출 문

수원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수원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
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연구기관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수행기간 : 2018.11.21. ~ 2018.12.20.

수원시정연구원장 이 재 은

차례

제1장 주민의식조사 개요	3
제1절 인식조사의 목적	3
제2절 인식조사의 구성 및 방법	3
제2장 응답자 일반사항	7
제1절 응답자 일반사항	7
제3장 인식조사 결과 분석	11
제1절 주민자치위원회 인지성	11
1.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지성	11
2.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성	14
3.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역할	18
제2절 주민자치회 인지성	23
1.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지성	23
2. 주민자치회의 활동 역할	26
제3절 주민자치회 추진방향	31
1. 주민자치회 구성인원의 적합성	31
2.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의 적합성	36
3.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규정	41
4.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개선 분야	46
5.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인식	50
6.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	54
7. 동 행정 평가방식의 적합성	59
8. 주민자치회 전환 시 참여 여부	64
제4장 정책제언	71
제1절 주민자치회 이해확산 정책 추진	71
제2절 주민자치회 관련 다양한 학습체계 및 사업 지원	72
제3절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화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실시	73
부록	81

표 차례

〈표 1-1〉 인식조사 설문지 구성	3
〈표 3-1〉 주민자치위원회 인지성에 대한 지역별 현황	12
〈표 3-2〉 주민자치위원회 인지성에 대한 참여자 현황	14
〈표 3-3〉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에 대한 지역별 현황	15
〈표 3-4〉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에 대한 참여주체별 현황	17
〈표 3-5〉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역별 결과	20
〈표 3-6〉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여주체별 현황	23
〈표 3-7〉 주민자치회 인지성에 대한 지역별 현황	24
〈표 3-8〉 주민자치회 인지성에 대한 참여자 현황	26
〈표 3-9〉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지역별 결과	28
〈표 3-10〉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참여주체별 현황	31
〈표 3-11〉 주민자치회에 적합한 구성인원에 대한 지역별 현황	33
〈표 3-12〉 주민자치회에 적합한 구성인원에 대한 지역별 현황	36
〈표 3-13〉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한 지역별 현황	38
〈표 3-14〉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한 참여주체별 현황	41
〈표 3-15〉 주민자치회에 적합한 연임규정에 대한 지역별 현황	43
〈표 3-16〉 주민자치회에 적합한 연임규정에 대한 참여주체별 현황	45
〈표 3-17〉 주민자치회 개선 분야에 대한 지역별 현황	48
〈표 3-18〉 주민자치회 개선 분야에 대한 참여주체별 현황	50
〈표 3-19〉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지역별 현황	51
〈표 3-20〉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관계에 대한 참여주체별 현황	53
〈표 3-21〉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 지역별 결과	56
〈표 3-22〉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 참여주체별 현황	59
〈표 3-23〉 주민자치회의 동 행정 평가 방식에 대한 지역별 현황	61
〈표 3-24〉 주민자치회의 동 행정 평가 방식에 대한 참여주체별 현황	64
〈표 3-25〉 주민자치회에 전환시 참여 여부에 대한 지역별 현황	65
〈표 3-26〉 주민자치회 전환 시 참여 여부에 대한 참여주체별 현황	67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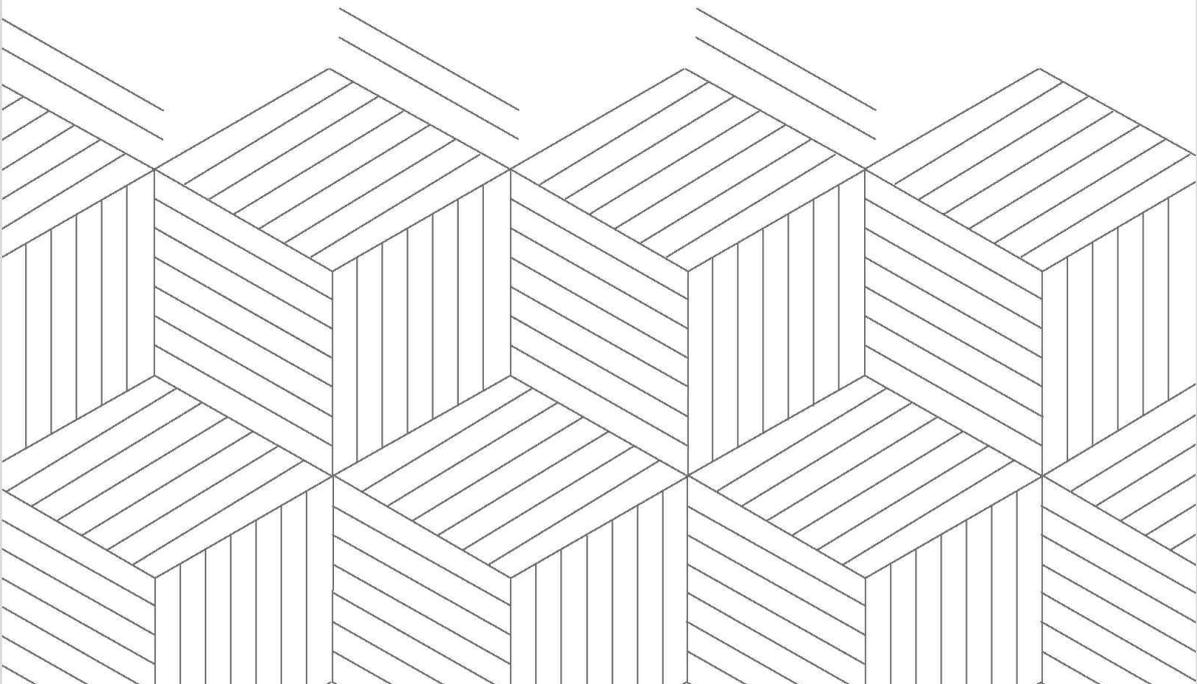
〈그림 2-1〉 응답자 현황	7
〈그림 2-2〉 행정구역별 응답자 현황	7
〈그림 2-3〉 참여주체별 응답자 현황	7
〈그림 3-1〉 주민자치위원회 인지성에 대한 지역별 평균	12
〈그림 3-2〉 주민자치위원회 인진성에 대한 참여주체별 평균	14
〈그림 3-3〉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에 대한 지역별 평균	16
〈그림 3-4〉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에 대한 참여주체별 평균	17
〈그림 3-5〉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역할에 대한 장안구 결과	18
〈그림 3-6〉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역할에 대한 권선구 결과	18
〈그림 3-7〉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역할에 대한 팔달구 결과	19
〈그림 3-8〉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역할에 대한 영통구 결과	19
〈그림 3-9〉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역할에 대한 수원시 결과	20
〈그림 3-10〉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역할에 대한 현재 주민자치위원 결과	20
〈그림 3-11〉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역할에 대한 주민자치회 결과	21
〈그림 3-12〉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역할에 대한 과거 주민자치위원 결과	21
〈그림 3-13〉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역할에 대한 동 단체원 결과	22
〈그림 3-14〉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역할에 대한 일반주민 결과	22
〈그림 3-15〉 주민자치회 인지성에 대한 지역별 평균	24
〈그림 3-16〉 주민자치회 인지성에 대한 참여주체별 평균	26
〈그림 3-17〉 주민자치회의 활동 역할에 대한 장안구 결과	27
〈그림 3-18〉 주민자치회의 활동 역할에 대한 권선구 결과	27
〈그림 3-19〉 주민자치회의 활동 역할에 대한 팔달구 결과	27
〈그림 3-20〉 주민자치회의 활동 역할에 대한 영통구 결과	28
〈그림 3-21〉 주민자치회의 활동 역할에 대한 수원시 결과	28
〈그림 3-22〉 주민자치회의 활동 역할에 대한 현재 주민자치위원 결과	29
〈그림 3-23〉 주민자치회의 활동 역할에 대한 주민자치회 결과	29
〈그림 3-24〉 주민자치회의 활동 역할에 대한 과거 주민자치위원 결과	30
〈그림 3-25〉 주민자치회의 활동 역할에 대한 동 단체원 결과	30
〈그림 3-26〉 주민자치회의 활동 역할에 대한 일반주민 결과	30
〈그림 3-27〉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의 적합성에 대한 장안구 결과	32
〈그림 3-28〉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의 적합성에 대한 권선구 결과	32
〈그림 3-29〉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의 적합성에 대한 팔달구 결과	32

〈그림 3-30〉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의 적합성에 대한 영통구 결과	33
〈그림 3-31〉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의 적합성에 대한 수원시 결과	33
〈그림 3-32〉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의 적합성에 대한 현재 주민자치위원 결과	34
〈그림 3-33〉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의 적합성에 대한 주민자치회 결과	34
〈그림 3-34〉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의 적합성에 대한 과거 주민자치위원 결과	35
〈그림 3-35〉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의 적합성에 대한 동 단체원 결과	35
〈그림 3-36〉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의 적합성에 대한 일반주민 결과	35
〈그림 3-37〉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한 장안구 결과	36
〈그림 3-38〉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한 권선구 결과	37
〈그림 3-39〉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한 팔달구 결과	37
〈그림 3-40〉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한 영통구 결과	38
〈그림 3-41〉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한 수원시 결과	39
〈그림 3-42〉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한 현재 주민자치위원 결과	39
〈그림 3-43〉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한 주민자치회 결과	39
〈그림 3-44〉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한 과거 주민자치위원 결과	40
〈그림 3-45〉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한 동 단체원 결과	40
〈그림 3-46〉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한 일반주민 결과	41
〈그림 3-47〉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한 장안구 결과	42
〈그림 3-48〉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한 권선구 결과	42
〈그림 3-49〉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한 팔달구 결과	42
〈그림 3-50〉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한 영통구 결과	43
〈그림 3-51〉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한 수원시 결과	43
〈그림 3-52〉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한 현재 주민자치위원 결과	44
〈그림 3-53〉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한 주민자치회 결과	44
〈그림 3-54〉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한 과거 주민자치위원 결과	44
〈그림 3-55〉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한 동 단체원 결과	45
〈그림 3-56〉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한 일반주민 결과	45
〈그림 3-57〉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개선 분야에 대한 장안구 현황	46
〈그림 3-58〉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개선 분야에 대한 권선구 현황	46
〈그림 3-59〉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개선 분야에 대한 팔달구 현황	47
〈그림 3-60〉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개선 분야에 대한 영통구 현황	47
〈그림 3-61〉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개선 분야에 대한 수원시 현황	48
〈그림 3-62〉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개선 분야에 대한 현재 주민자치위원 현황	48
〈그림 3-63〉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개선 분야에 대한 주민자치회 현황	49
〈그림 3-64〉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개선 분야에 대한 과거 주민자치위원 현황	49
〈그림 3-65〉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개선 분야에 대한 동 단체원 현황	49

〈그림 3-66〉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개선 분야에 대한 일반주민 현황	50
〈그림 3-67〉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수원시 결과	52
〈그림 3-68〉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참여주체별 결과	54
〈그림 3-69〉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장안구 결과	54
〈그림 3-70〉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권선구 결과	55
〈그림 3-71〉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팔달구 결과	55
〈그림 3-72〉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영통구 결과	56
〈그림 3-73〉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수원시 결과	56
〈그림 3-74〉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현재 주민자치위원 결과	57
〈그림 3-75〉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주민자치회 결과	57
〈그림 3-76〉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과거 주민자치위원 결과	58
〈그림 3-77〉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동 단체원 결과	58
〈그림 3-78〉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일반주민 결과	58
〈그림 3-79〉 동 행정 평가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장안구 결과	60
〈그림 3-80〉 동 행정 평가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권선구 결과	60
〈그림 3-81〉 동 행정 평가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팔달구 결과	60
〈그림 3-82〉 동 행정 평가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영통구 결과	61
〈그림 3-83〉 동 행정 평가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수원시 결과	61
〈그림 3-84〉 동 행정 평가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현재 주민자치위원 결과	62
〈그림 3-85〉 동 행정 평가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주민자치회 결과	62
〈그림 3-86〉 동 행정 평가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과거 주민자치위원 결과	63
〈그림 3-87〉 동 행정 평가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동 단체원 결과	63
〈그림 3-88〉 동 행정 평가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일반주민 결과	63
〈그림 3-89〉 주민자치회 전환시 참여여부에 대한 수원시 결과	65
〈그림 3-90〉 주민자치회 전환시 참여여부에 대한 참여주체별 결과	67
〈그림 4-1〉 일반시민 대상 주민자치회 교육 추진 방향	73
〈그림 4-2〉 주민자치회 홍보활동 방안	73
〈그림 4-3〉 주민자치회 학습체계 구축	74
〈그림 4-4〉 공동의 해결과제 부여	75
〈그림 4-5〉 일반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 기획 유도	75
〈그림 4-6〉 문제해결 모델의 확산을 통한 홍보	76
〈그림 4-7〉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행정협의체 운영	77
〈그림 4-8〉 체계적인 수원형 주민자치회 모델 마련	78

제1장 수원시 주민자치회 인식 조사결과 분석

제1절 주민의식조사 개요
제2절 인식조사 결과 분석



제1장

주민의식조사 개요

제1절 인식조사의 목적

수원시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문조사는 현재와 과거에 활동했던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 동 단체원, 일반주민 등 주체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자치회에 대한 각 주체별 의식의 차이를 파악하고자한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활동 및 추진방향 등의 기초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며, 수원시 주민의 자치를 위한 다양한 과제와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인식조사의 구성 및 방법

본 설문조사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과거 활동하였던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회, 동 단체원,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일반주민 등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홈페이지(www.sooda.or.kr)를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설문내용의 답변을 통한 데이터를 구축한 후 통계 내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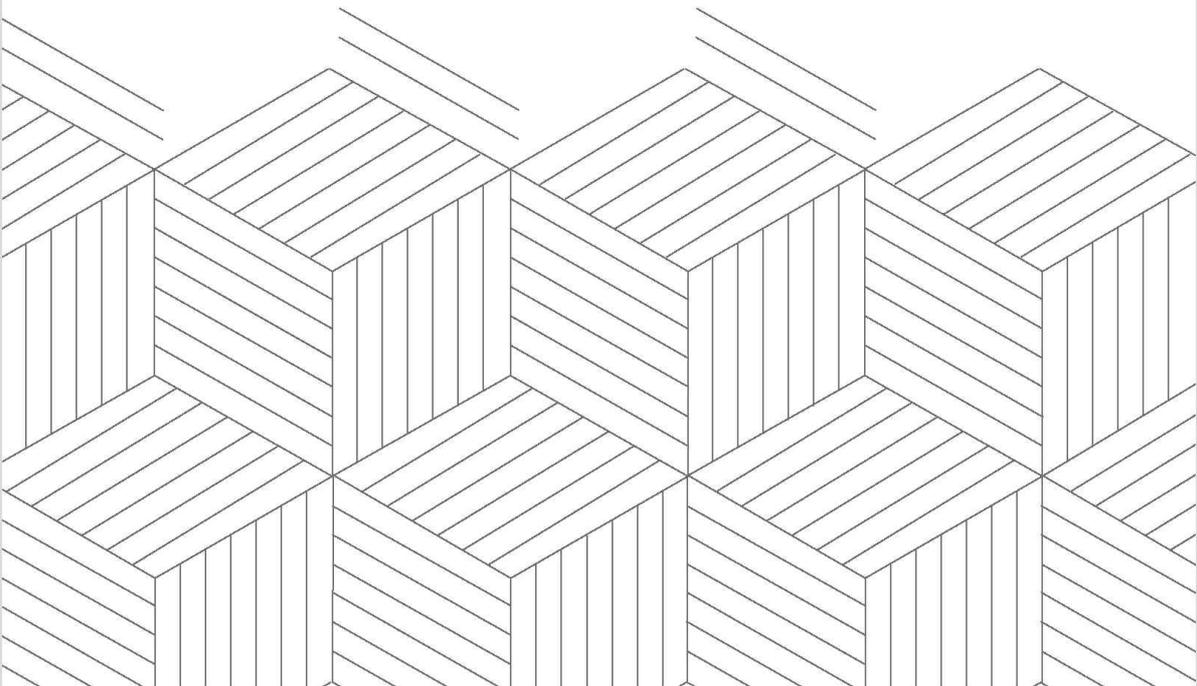
수원시 주민자치회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지의 구성은 1)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지성에 관한 질문, 2)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역할 및 구성에 대한 질문, 3)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개선 분야에 대한 질문, 4)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 참여여부에 대한 질문, 5) 응답자의 일반사항 등으로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1-1〉 인식조사 설문지 구성

구 분	문 항				
주민자치(위원)회 인지성	주민자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지 •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시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 • 동 행정과의 관계성 			
	주민자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지 • 주민자치회가 실시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 • 동 행정과의 관계성 			
주민자치회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선정 및 구성 방식에 대한 적합성 •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 •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시 생각하는 사항 • 동 행정 평가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 주민자치회 전환 시 참여 의사에 대한 여부 				
응답자 일반사항	• 성명	• 성별	• 휴대전화번호	• 거주지역(동)	• 참여특성

제2장 응답자 일반사항

제1절 응답자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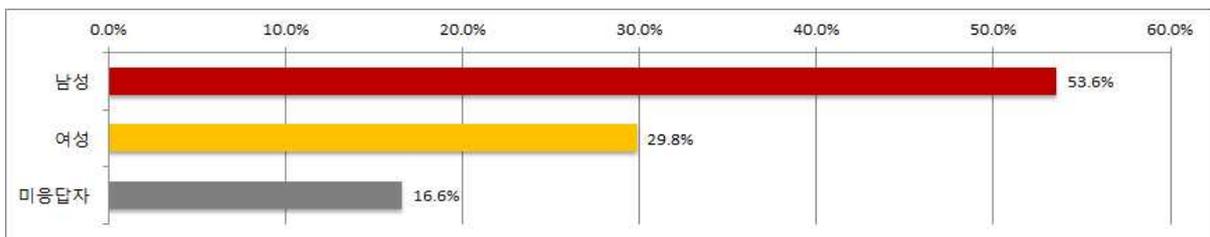
제2장

응답자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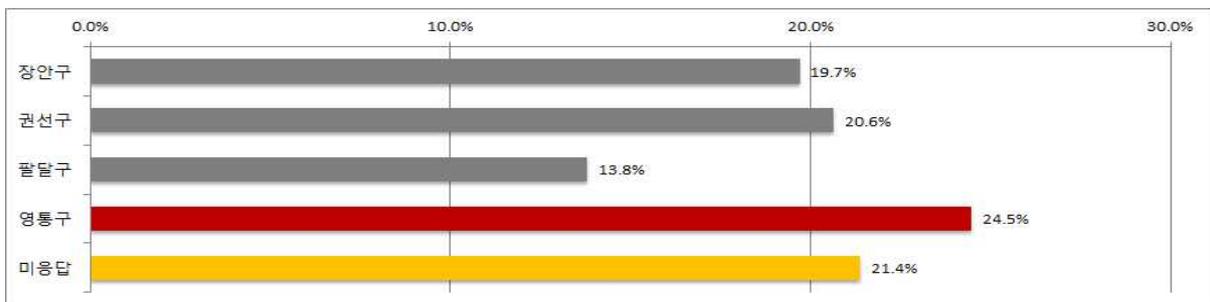
제1절 응답자 일반사항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수는 총 1,066명으로 응답자 중 '남성' 응답자가 53.6%, '여성' 응답자가 29.8%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16.6%는 미응답자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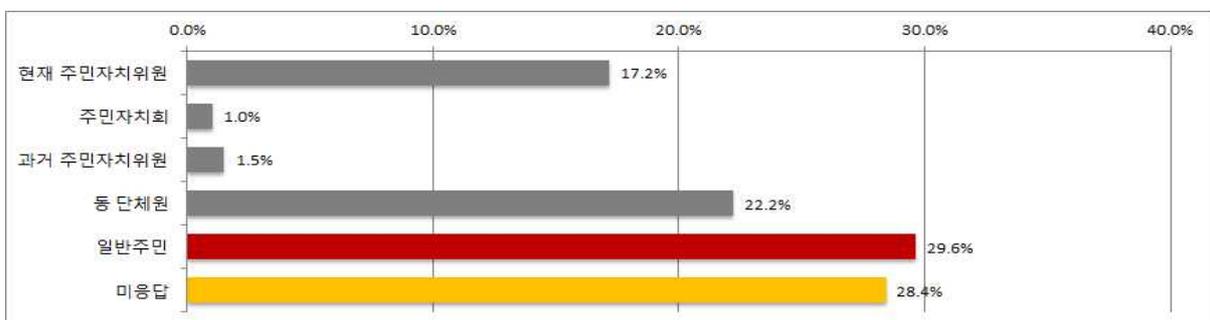
응답자가 거주하는 행정구역(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을 분석한 결과, '장안구'는 19.7%, '권선구' 20.6%, '팔달구' 13.8%, '영통구' 24.5%가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1.4%는 '행정구역 미응답'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주체별(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동 단체원, 일반주민) 응답자 결과, '일반주민'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주체 미응답'이 28.4%, '동 단체원'이 22.2%,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17.2%,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1.5%, '주민자치회' 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응답자 현황



〈그림 2-2〉 행정구역별 응답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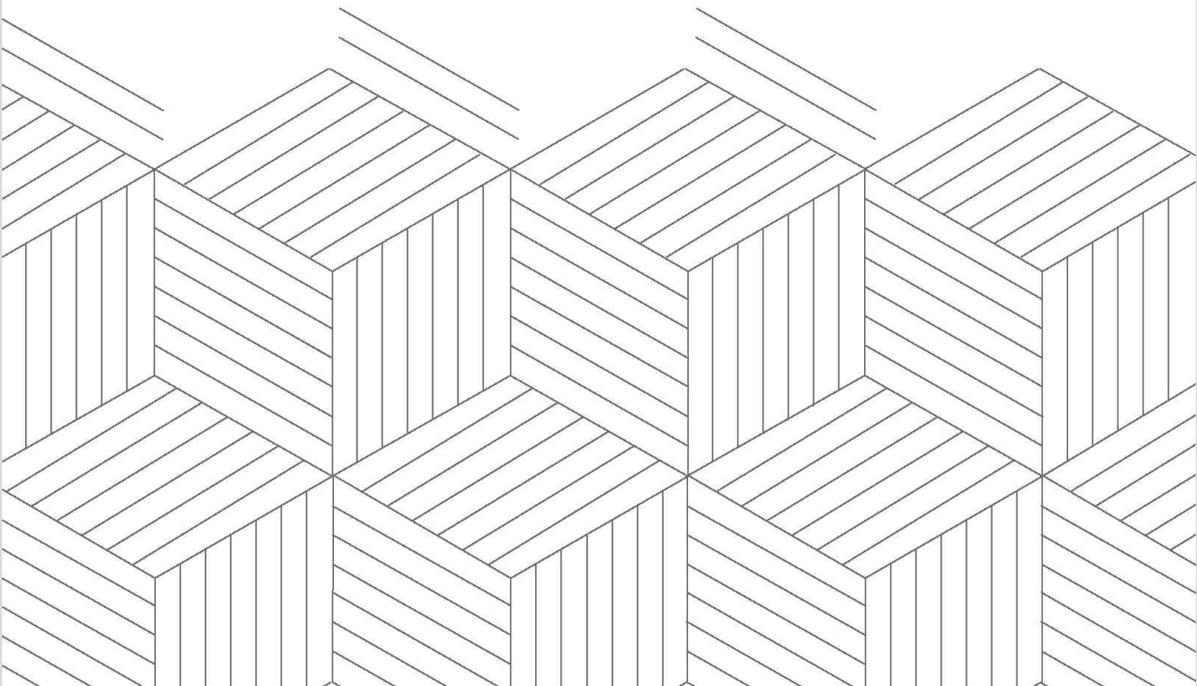
〈그림 2-3〉 참여주체별 응답자 현황

제3장 인식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주민자치위원회 인지성

제2절 주민자치회 인지성

제3절 주민자치회 추진방향



제3장 인식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주민자치위원회 인지성

1.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지성

1) 지역별 특성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수원시 전체 조사 결과, 응답자의 34.1%가 '그렇다'라고 하였으며,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2.5%, '그렇지 않다'는 14.4%, '매우 그렇다'는 13.7%, '전혀 그렇지 않다'는 5.3%,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설문자 0.1%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안구

장안구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 중 19.7%를 차지하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항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수가 39%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26.2%, '매우 그렇다'는 17.6%, '그렇지 않다'는 11.4%, '전혀 그렇지 않다'는 5.7% 순으로 나타났다.

■ 권선구

권선구는 전체 행정구역 중 20.6%가 응답하였으며, 37.3%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은 29.5%, '매우 그렇다'는 14.5%, '그렇지 않다'는 13.6%, '전혀 그렇지 않다'는 5% 순으로 나타났다.

■ 팔달구

팔달구는 전체 행정구역 중 13.8%를 차지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34.7%가 '보통'으로 알고 있었으며, 31.3%는 '그렇다', 17%는 '그렇지 않다', 14.3%는 '매우 그렇다', 2.7%는 '전혀 그렇지 않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 영통구

전체 행정구역 중 21.4%를 차지하고 있는 영통구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36%가 '보통'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다'라고 응답자는 33.8%, '매우 그렇다'는 14%, '그렇지 않다'는 11.4%, '전혀 그렇지 않다'는 4.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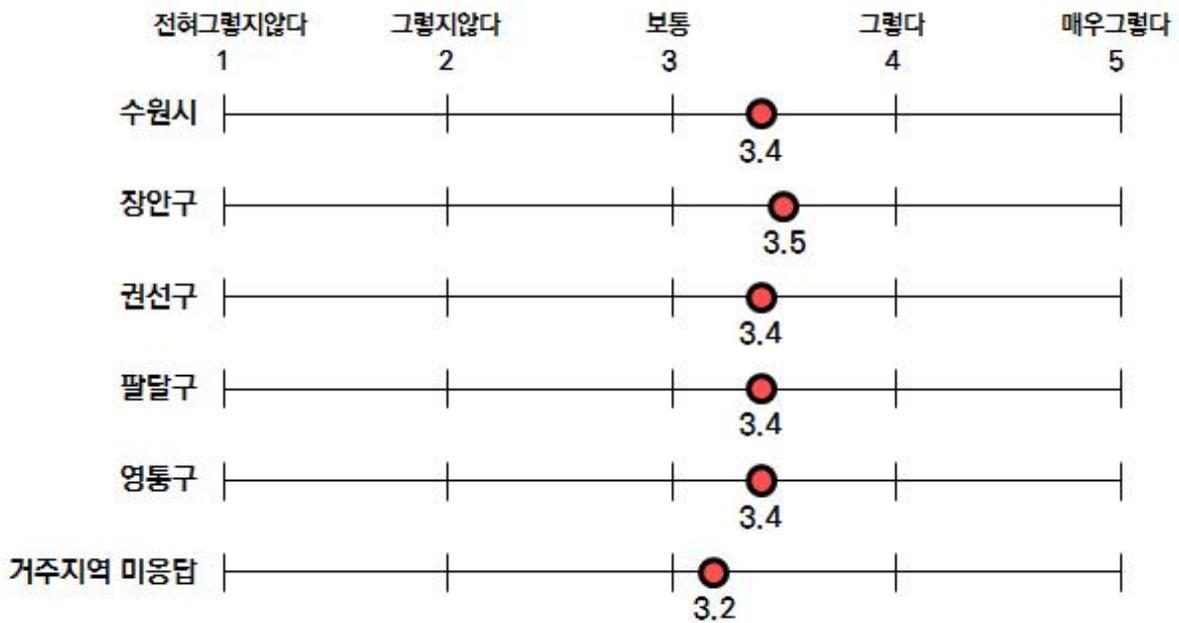
■ 행정구역 특성 분석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수원시 행정구역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4개의 행정구역(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난 구역은 장안구와 권선구이며, 팔달구와 영통구는 '보통'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구역별 평균은 권선구와 팔달구, 영통구는 3.4점으로 나타났으며, 장안구의 경우 다른 행정구역보다 0.1점 더 높은 3.5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설문자의 평균은 3.2점으로 수원시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봤을 때 총 3.4점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지는 '보통'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 주민자치위원회 인지에 대한 지역별 현황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미응답		총합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수원시	56	5.3%	154	14.4%	346	32.5%	363	34.1%	146	13.7%	1	0.1%	1066
장안구	12	5.7%	24	11.4%	55	26.2%	82	39.0%	37	17.6%	0	0.0%	210
권선구	11	5.0%	30	13.6%	65	29.5%	82	37.3%	32	14.5%	0	0.0%	220
팔달구	4	2.7%	25	17.0%	51	34.7%	46	31.3%	21	14.3%	0	0.0%	147
영통구	11	4.8%	26	11.4%	82	36.0%	77	33.8%	32	14.0%	0	0.0%	228
미응답	18	6.9%	49	18.8%	93	35.6%	76	29.1%	24	9.2%	1	0.4%	261



〈그림 3-1〉 주민자치위원회 인지에 대한 지역별 평균

2) 참여자 현황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한 사항을 보다 자세히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현재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회, 과거 주민자치위원, 동 단체원, 일반주민, 참여특성 미응답 등 총 6개의 참여주체별 응답자를 구분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파악하였다.

■ 현재 주민자치위원

응답자 중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의 수는 17.2%를 차지하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수는 50.3% 나타났으며, 24%는 ‘매우 그렇다’, ‘보통’은 19.1%, ‘그렇지 않다’는 6%, ‘전혀그렇지 않다’는 0.5% 순으로 파악되었다.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에 속한 그룹의 응답자 수는 1%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36. ‘그렇다’와 ‘보통’이라고 응답한 수는 각각 36.4%로 같은 값이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는 18.2%, ‘그렇지 않다’는 9.1% 순으로 나타났다.

■ 과거 주민자치위원

과거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했었던 응답자의 수는 전체 응답자 중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다’가 31.3%, ‘보통’이 18.8%, ‘그렇지 않다’가 12.5% 순으로 나타났다.

■ 동 단체원

동 단체원의 응답자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2.2%를 차지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 35.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3.3%가 ‘보통’, 14.3%가 ‘매우 그렇다’, 12.2%가 ‘그렇지 않다’, 4.6%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 일반주민

전체 참여주체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일반주민은 29.6%로 나타났으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질문에 37.7%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렇다’는 30.7%, ‘그렇지 않다’는 17.1%, ‘전혀 그렇지 않다’는 7.9%, ‘매우 그렇다’ 6.6% 순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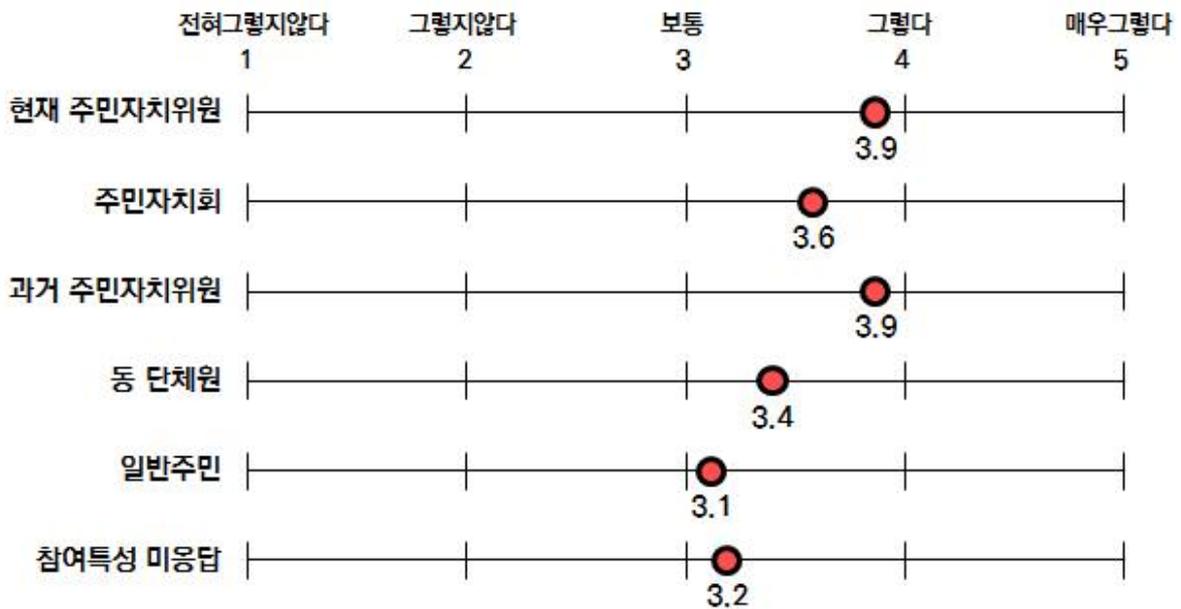
■ 참여주체 특성 분석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참여주체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참여특성 미응답자를 포함한 6개의 참여주체(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동 단체원, 일반주민) 중 현재와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경험한 응답자와 동 단체원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주민자치회는 ‘그렇다’와 ‘보통’의 결과가 동일하고 일반주민과 참여특성 미응답자가 ‘보통’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와 과거에 주민자치위원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평균은 3.9점으로 파악되었으며, 주민자치회는 3.6점, 동 단체원은 3.4점, 일반주민 3.1점, 참여특성 미응답자는 3.2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앞서 파악한 지역별 현황과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보통’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했던 응답자로 인해 ‘그렇다’에 가깝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 주민자치위원회 인진성에 대한 참여자 현황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미응답		총합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총합계	56	5.3%	154	14.4%	346	32.5%	363	34.1%	146	13.7%	1	0.1%	1066
현재 주민자치위원	1	0.5%	11	6.0%	35	19.1%	92	50.3%	44	24.0%	0	0.0%	183
주민자치회	0	0.0%	1	9.1%	4	36.4%	4	36.4%	2	18.2%	0	0.0%	11
과거 주민자치위원	0	0.0%	2	12.5%	3	18.8%	6	37.5%	5	31.3%	0	0.0%	16
동 단체원	11	4.6%	29	12.2%	79	33.3%	84	35.4%	34	14.3%	0	0.0%	237
일반주민	25	7.9%	54	17.1%	119	37.7%	97	30.7%	21	6.6%	0	0.0%	316
미응답	19	6.3%	57	18.8%	106	35.0%	80	26.4%	40	13.2%	1	0.3%	303



〈그림 3-2〉 주민자치위원회 인진성에 대한 참여주체별 평균

2.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성

1) 지역별 특성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수원시의 설문조사 결과, '1(주민자치위원우위) ~ 7(동장우위)' 중 '4번'의 응답자가 39.3%로 이는 주민자치위원과 동장과는 동등하다라고 볼 수 있으며 '5번'은 12.9%, '6번'은 '12.1%', '7번' 동장우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9.5%, '3번' 7.8%, '2번' 4.4%, '1번' 주민자치위원회 우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3.3%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안구

장안구의 경우, '4번'의 응답자가 40%로 나타났으며, '6번' 15.2%, '5번' 13.8%, '3번' 9%, '7번' 7.6%, '1번' 3.3%, '2번' 2.9% 순으로 나타났다. '1(주민자치위원우위) ~ 7(동장우위)' 중 '4번'의 응답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는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권선구

권선구의 38.6%가 '4번' 문항을 차지하였다. 이어 '5번' 15.0%, '6번' 10%, '3번' 9.5%, '7번' 8.6%, '1번' 6.4%, '2번' 4.5%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응답자는 7.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권선구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팔달구

팔달구의 경우, '4번'의 응답자가 41.5%, '6번' 17%, '5번' 14.3%, '3번' 7.5%, '2번'과 '7번'은 5.4%, '1번' 1.4%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응답자는 7.5%로 나타났다. 팔달구 또한 '4번'의 응답자 수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를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영통구

영통구는 41.7%의 응답자가 '4번'을 선택하였으며, '7번'은 16.2%, '5번' 12.3%, '6번' 9.6%, '3번' 6.1%, '2번' 5.3%, '1번' 1.3% 순으로 나타났다. 미응답자는 7.5%를 차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영통구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를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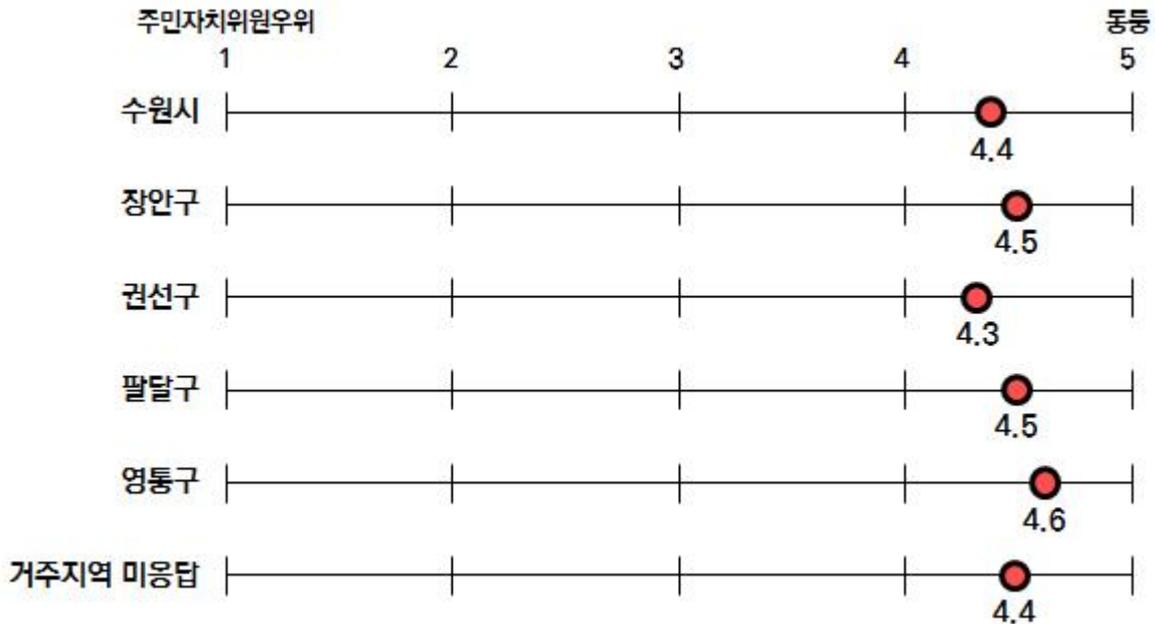
■ 행정구역 특성분석

수원시 행정구역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4개의 행정구역(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모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가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팔달구와 영통구는 '1번(주민자치위원회가 우위)' 문항에 약 1% 정도가 응답하였지만, 장안구와 권선구는 3% 이상이 '1번' 문항에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의 통계를 내본 결과, 영통구는 4.6점, 장안구와 팔달구는 4.5점, 권선구는 4.3점, 거주지역 미응답은 4.4점으로 수원시 전체 총 4.4점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는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에 대한 지역별 현황

구분	1		2		3		4		5		6		7		미응답		총합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수원시	32	3.0%	47	4.4%	83	7.8%	419	39.3%	138	12.9%	129	12.1%	101	9.5%	117	11.0%	1066
장안구	7	3.3%	6	2.9%	19	9.0%	84	40.0%	29	13.8%	32	15.2%	16	7.6%	17	8.1%	210
권선구	14	6.4%	10	4.5%	21	9.5%	85	38.6%	33	15.0%	22	10.0%	19	8.6%	16	7.3%	220
팔달구	2	1.4%	8	5.4%	11	7.5%	61	41.5%	21	14.3%	25	17.0%	8	5.4%	11	7.5%	147
영통구	3	1.3%	12	5.3%	14	6.1%	95	41.7%	28	12.3%	22	9.6%	37	16.2%	17	7.5%	228
미응답	6	2.3%	11	4.2%	18	6.9%	94	36.0%	27	10.3%	28	10.7%	21	8.0%	56	21.5%	261



〈그림 3-3〉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에 대한 지역별 평균

2) 참여자 현황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를 현재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회, 과거 주민자치위원, 동 단체원, 일반주민, 참여특성 미응답 등 총 6개의 참여주체별 응답자를 구분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파악하였다.

■ 현재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현재 주민자치위원의 응답 결과는 44.3%가 '4번'에 응답한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5번' 18.6%, '6번' 16.9%, '7번' 7.1%, '2번' 4.4%, '3번' 3.8% '1번' 0.5% 순으로 차지하였다. 미응답자 수는 4.4%로 나타났다.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의 경우, '7번' 동장우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번' 18.2%, '3번'과 '6번'은 9.1%, 1, 2, 5번은 0%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응답자는 36.4%가 차지하였다.

■ 과거 주민자치위원

과거 활동하였던 주민자치위원의 결과, '4번' 31.3%로 가장 높았으며, '5번' 25%, '7번' 18.8%, '2번' 12.5%, '3번'과 '6번'은 6.3%, '1번'은 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과거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는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동 단체원

동 단체원의 경우, 34.2%가 '4번'을 선택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는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5번'과 '6번'은 13.9%, '7번' 12.7%, '2번' 4.6%, '1번' 4.2%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응답은 9.3%로 파악되었다.

■ 일반주민

일반주민의 경우, '4번'이 43.4%로 가장 높게 차지하였으며, '5번'이 14.6%, '6번' 10.1%, '3번' 9.5%, '7번' 8.2%, '2번' 4.1%, '1번' 3.8% 순으로 나타났다. 미응답자는 6.3%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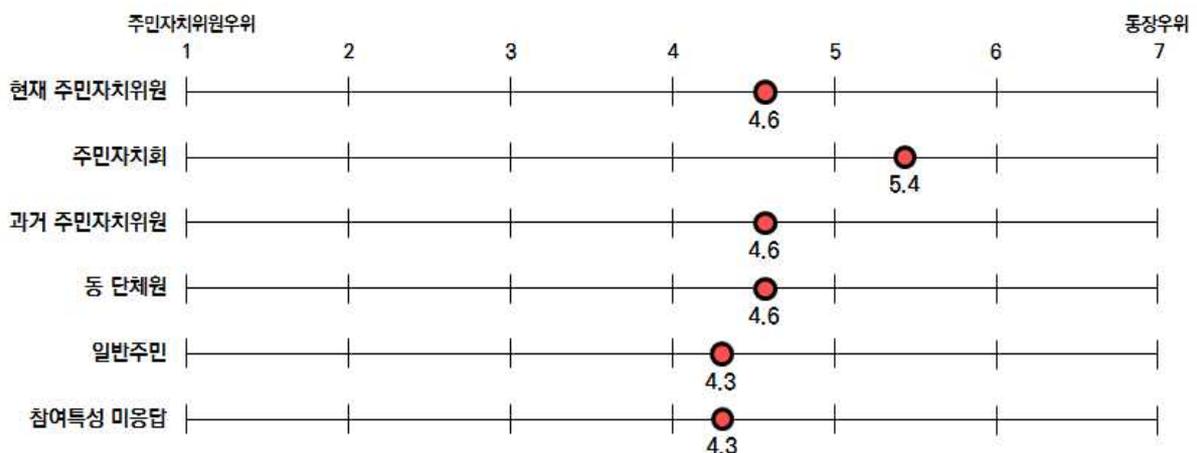
■ 참여주체 특성 분석

참여주체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참여특성 미응답자를 포함한 6개의 참여주체(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동 단체원, 일반주민) 중 주민자치회를 제외한 모든 주체에서 '4번' 동등하다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으며, 주민자치회는 '7번' 동장이 우위라고 생각하는 답변이 가장 높게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결과를 통계낸 결과, 주민자치회는 5.4점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와 과거에 주민자치위원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동 단체원은 4.6점, 일반주민과 참여특성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자는 4.3점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앞서 파악한 지역별 특성보다 동등하다~동장우위 사이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점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에 대한 참여주체별 현황

구분	1		2		3		4		5		6		7		미응답		총합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총합계	32	3.0%	47	4.4%	83	7.8%	419	39.3%	138	12.9%	129	12.1%	101	9.5%	117	11.0%	1066
현재 주민자치위원	1	0.5%	8	4.4%	7	3.8%	81	44.3%	34	18.6%	31	16.9%	13	7.1%	8	4.4%	183
주민자치회	0	0.0%	0	0.0%	1	9.1%	2	18.2%	0	0.0%	1	9.1%	3	27.3%	4	36.4%	11
과거 주민자치위원	0	0.0%	2	12.5%	1	6.3%	5	31.3%	4	25.0%	1	6.3%	3	18.8%	0	0.0%	16
동 단체원	10	4.2%	11	4.6%	17	7.2%	81	34.2%	33	13.9%	33	13.9%	30	12.7%	22	9.3%	237
일반주민	12	3.8%	13	4.1%	30	9.5%	137	43.4%	46	14.6%	32	10.1%	26	8.2%	20	6.3%	316
미응답	9	3.0%	13	4.3%	27	8.9%	113	37.3%	21	6.9%	31	10.2%	26	8.6%	63	20.8%	303



〈그림 3-4〉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에 대한 참여주체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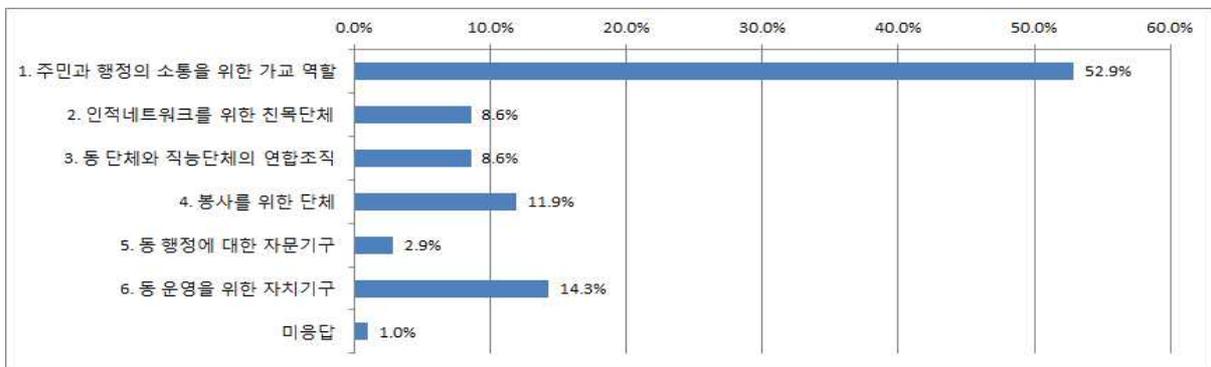
3.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역할

1) 지역별 특성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기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수원시 전체 조사 결과,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9.6%로 가장 높았으며,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6%, ‘봉사를 위한 단체’는 10.5%,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친목단체’는 8.3%, ‘동 단체와 직능단체의 연합조직’은 7.7%, ‘동 행정에 대한 자문기구’는 5.2%, 미응답자는 1%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 장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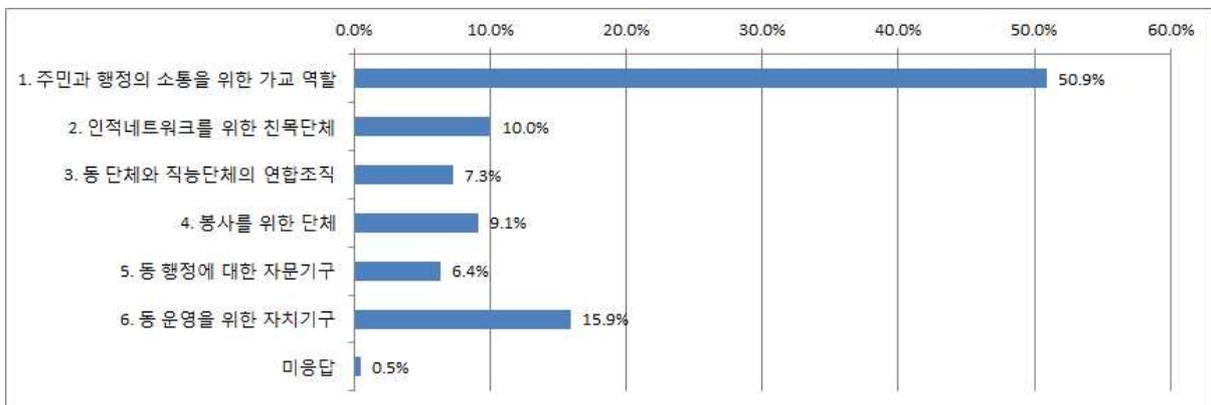
장안구 설문조사 결과,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이라는 문항에 52.9%가 응답하였으며,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는 14.3%, ‘봉사를 위한 단체’는 11.9%,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친목단체’와 ‘동 단체와 직능단체의 연합조직’에서 각각 8.6%, ‘동 행정에 대한 자문기구’는 2.9%, 미응답 0.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역할에 대한 장안구 결과

■ 권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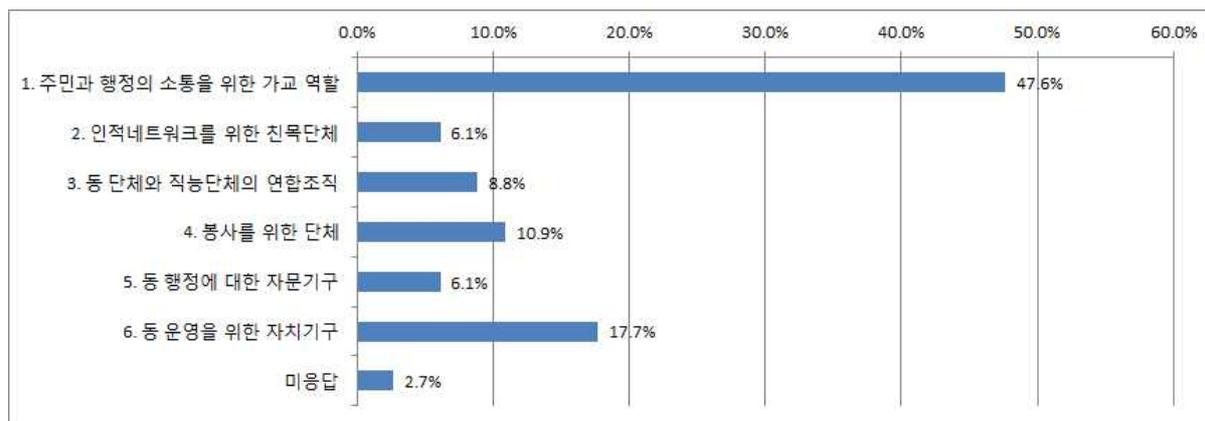
권선구의 경우, 50.9%가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에 응답하였으며,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는 15.9%,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친목단체’ 10%, ‘봉사를 위한 단체’ 9.1%, ‘동 단체와 직능단체의 연합조직’ 7.3%, ‘동 행정에 대한 자문기구’는 6.4%, 미응답은 2.7% 순으로 차지하였다.



〈그림 3-6〉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역할에 대한 권선구 결과

■ 팔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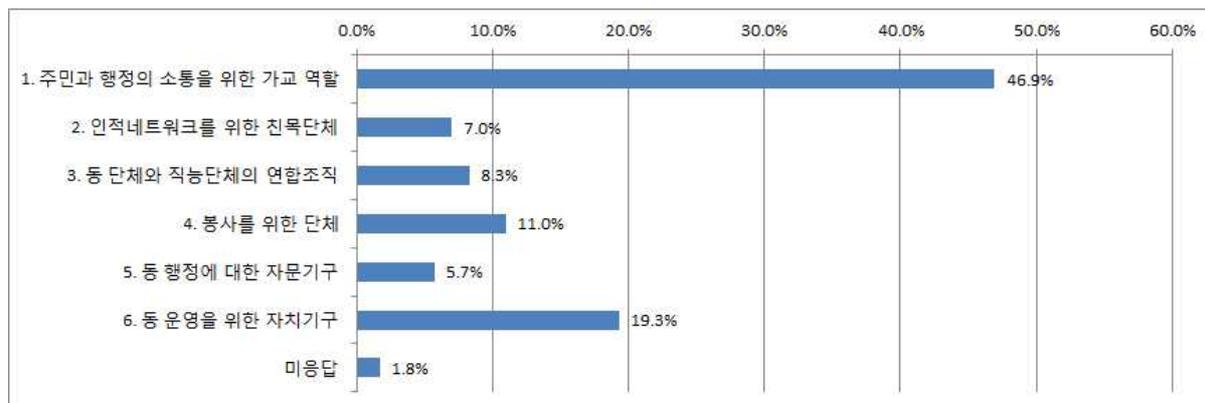
팔달구 또한 47.6%가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에 응답하였으며,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는 17.7%, ‘봉사를 위한 단체’는 10.9%, ‘동 단체와 직능단체의 연합조직’은 8.8%,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친목단체’와 ‘동 행정에 대한 자문기구’는 각각 6.1%, 미응답 1.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역할에 대한 팔달구 결과

■ 영통구

영통구의 경우,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에 46.9%를 차지하였으며,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 19.3%, ‘봉사를 위한 단체’는 11%, ‘동 단체와 직능단체의 연합조직’은 8.3%,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친목단체’는 7%, ‘동 행정에 대한 자문기구’ 5.7%, 미응답 6.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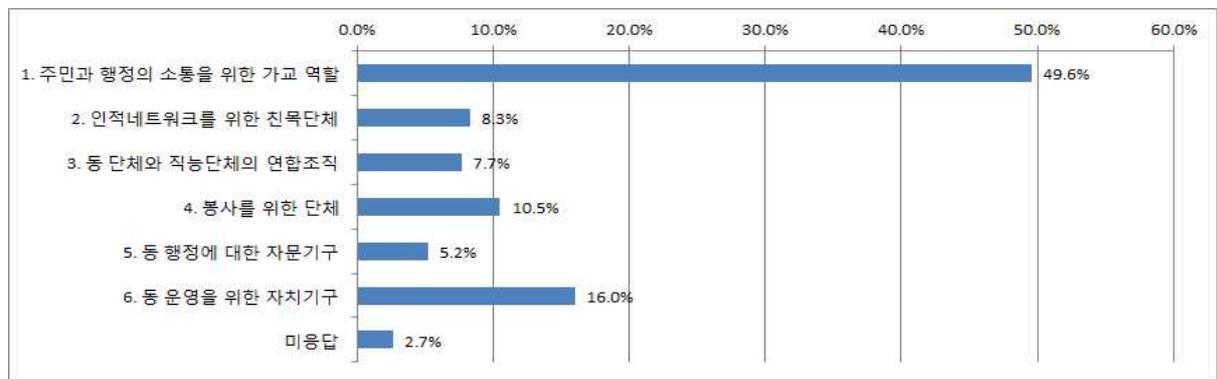
〈그림 3-8〉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역할에 대한 영통구 결과

■ 행정구역 특성 분석

이와 같은 설문결과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단체(기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행정구역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4개의 행정구역(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과 거주지역 미응답자 모두에서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이라는 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에서 ‘봉사를 위한 단체’라는 응답이 3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권선구의 경우,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친목단체’가 3번째로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 권선구를 제외한 장안구와 팔달구, 영통구 응답자의 답변 유형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5〉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역별 결과

구분	1		2		3		4		5		6		미응답		총합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수원시	529	49.6%	88	8.3%	82	7.7%	112	10.5%	55	5.2%	171	16.0%	2	1.0%	210
장안구	111	52.9%	18	8.6%	18	8.6%	25	11.9%	6	2.9%	30	14.3%	1	0.5%	220
권선구	112	50.9%	22	10.0%	16	7.3%	20	9.1%	14	6.4%	35	15.9%	4	2.7%	147
팔달구	70	47.6%	9	6.1%	13	8.8%	16	10.9%	9	6.1%	26	17.7%	4	1.8%	228
영통구	107	46.9%	16	7.0%	19	8.3%	25	11.0%	13	5.7%	44	19.3%	18	6.9%	261
미응답	129	49.4%	23	8.8%	16	6.1%	26	10.0%	13	5.0%	36	13.8%	29	2.7%	1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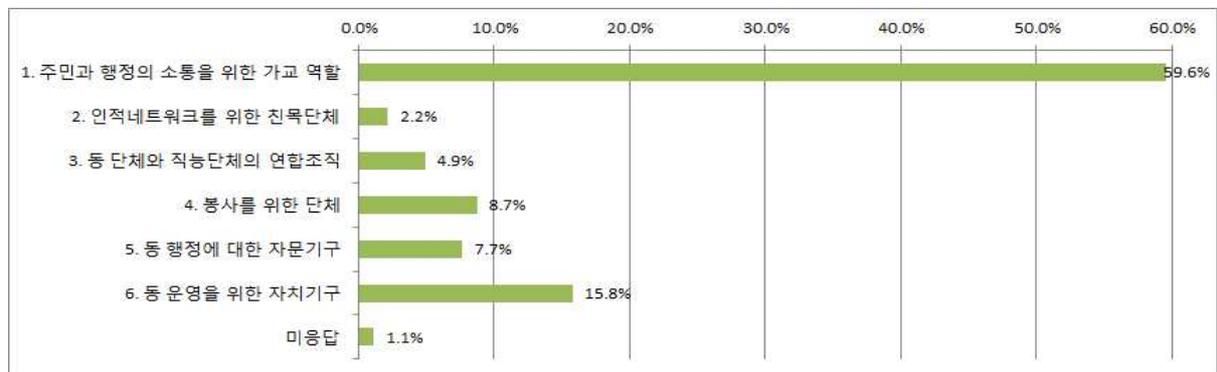
〈그림 3-9〉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역할에 대한 수원시 결과

2) 참여자 현황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단체(기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회, 과거 주민자치위원, 동 단체원, 일반주민, 참여특성 미응답 등 총 6개의 참여주체별 응답자를 구분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파악하였다.

■ 현재 주민자치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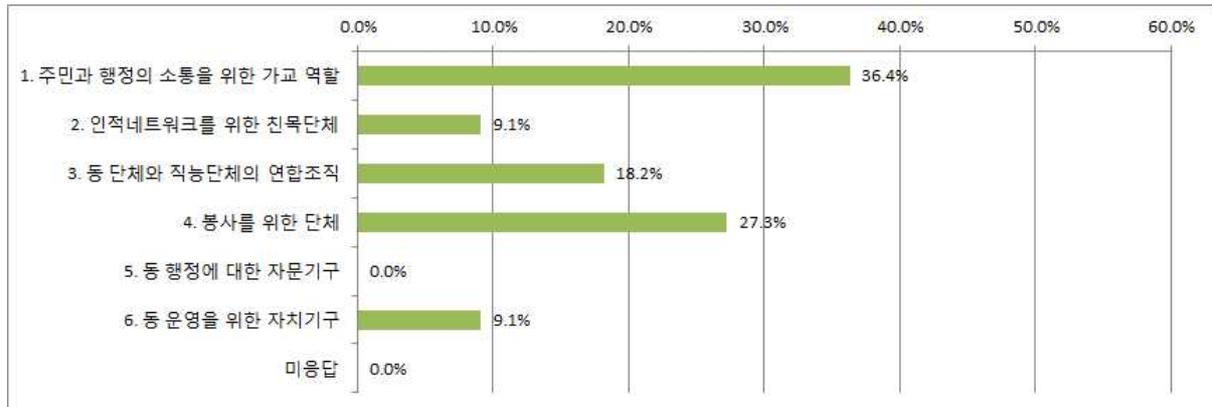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의 설문조사 결과,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는 15.8%, ‘봉사를 위한 단체’는 8.7%, ‘동 행정에 대한 자문기구’ 7.7%, ‘동 단체와 직능단체의 연합조직’ 4.9%,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친목단체’는 2.2%, 미응답 1.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역할에 대한 현재 주민자치위원 결과

■ 주민자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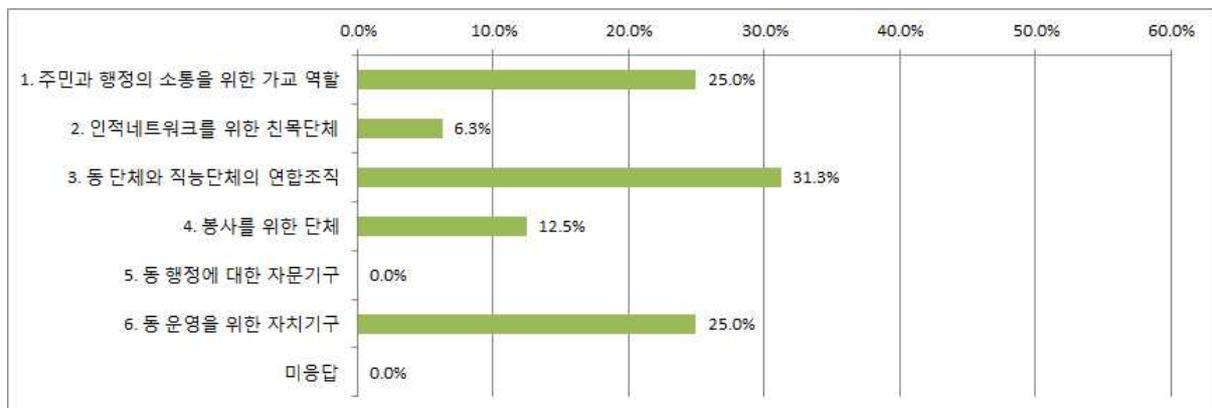
주민자치회의 경우, 36.4%를 차지한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이 가장 높았으며, 27.3%인 ‘봉사를 위한 단체’, 18.2% ‘동 단체와 직능단체의 연합조직’,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친목단체’와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는 각각 9.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역할에 대한 주민자치회 결과

■ 과거 주민자치위원

과거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응답자의 설문 결과,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단체와 직능단체의 연합조직’이라는 의견이 31.3%로 가장 높게 차지하였으며,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과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은 25%로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봉사를 위한 단체’ 12.5%,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친목단체’ 6.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역할에 대한 과거 주민자치위원 결과

■ 동 단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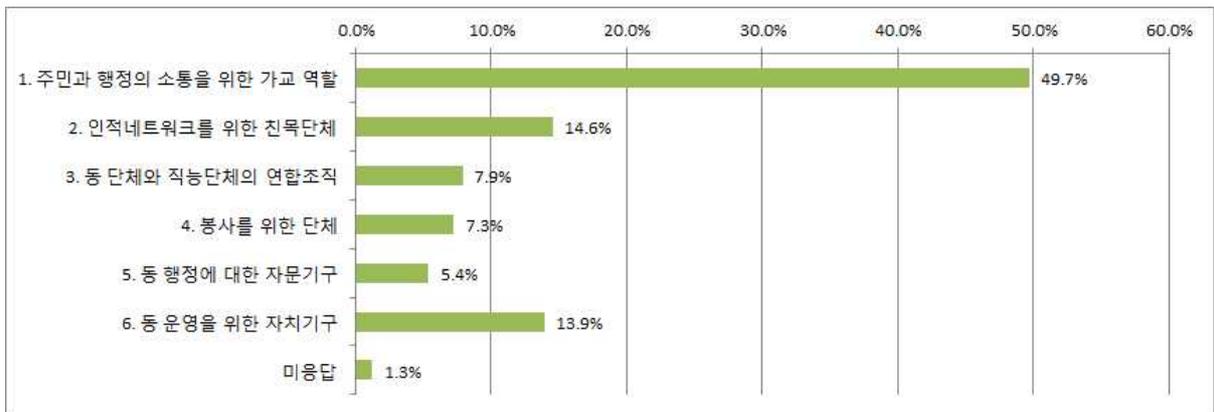
동 단체원의 경우,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의 응답 비율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가 24.9%, ‘봉사를 위한 단체’는 12.7%, ‘동 단체와 직능단체의 연합조직’ 10.5%,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친목단체’는 5.1%, 미응답 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역할에 대한 동 단체원 결과

■ 일반주민

일반주민의 설문조사 결과,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9.7%였으며,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친목단체’는 14.6%,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 13.9%, ‘동 단체와 직능단체의 연합조직’ 7.9%, ‘봉사를 위한 단체’ 7.3%, ‘동 행정에 대한 자문기구’ 5.4%, 미응답 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역할에 대한 일반주민 결과

■ 참여주체 특성 분석

참여주체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단체(기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참여 특성 미응답자를 포함한 6개의 참여주체(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동 단체원, 일반주민) 중 과거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주체를 제외한 모든 주체에서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이 우선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단체와 직능단체의 연합조직’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와 과거 활동하였던 응답자의 인식이 달라진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6〉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여주체별 현황

구분	1		2		3		4		5		6		미응답		총합
	계(명)	%	계(명)	%											
총합계	529	49.6%	88	8.3%	82	7.7%	112	10.5%	55	5.2%	171	16.0%	29	2.7%	1066
현재 주민자치위원	109	59.6%	4	2.2%	9	4.9%	16	8.7%	14	7.7%	29	15.8%	2	1.1%	183
주민자치회	4	36.4%	1	9.1%	2	18.2%	3	27.3%	0	0.0%	1	9.1%	0	0.0%	11
과거 주민자치위원	4	25.0%	1	6.3%	0	0.0%	5	31.3%	2	12.5%	4	25.0%	0	0.0%	16
동 단체원	101	42.6%	12	5.1%	25	10.5%	30	12.7%	7	3.0%	59	24.9%	3	1.3%	237
일반주민	157	49.7%	46	14.6%	25	7.9%	23	7.3%	17	5.4%	44	13.9%	4	1.3%	316
미응답	154	50.8%	24	7.9%	21	6.9%	35	11.6%	15	5.0%	34	11.2%	20	6.6%	303

제2절 주민자치회 인지도

1.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지도

주민자치회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수원시 전체 응답률은 주민자치회에 대해 ‘보통’으로 알고 있다가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 25%, ‘그렇지 않다’가 20%, ‘매우 그렇다’ 9.8%, ‘전혀 그렇지 않다’ 6.8%, 미응답 5.5% 순으로 나타났다.

1) 지역별 특성

■ 장안구

장안구의 경우,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보통’으로 알고 있다가 32.4%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그렇다’는 29.5%, ‘그렇지 않다’는 16.2%, ‘매우 그렇다’는 11.9%, ‘전혀 그렇지 않다’는 9%, 미응답 1% 순으로 나타났다.

■ 권선구

권선구는 주민자치회에 대해 ‘보통’으로 알고 있다가 33.2%로 나타났으며, 23.2%는 ‘그렇다’, 20%는 ‘그렇지 않다’, 9.5%는 ‘매우 그렇다’, 7.7%는 ‘전혀 그렇지 않다’, 6.4% 미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 팔달구

팔달구의 경우, 주민자치회에 대해 ‘보통’으로 33.3%가 알고 있으며, ‘그렇다’가 25.9%, ‘그렇지 않다’가 21.1%, ‘매우 그렇다’가 9.5%, ‘전혀 그렇지 않다’가 4.8%, 미응답 5.4% 순으로 나타났다.

■ 영통구

영통구의 경우, 영통구 또한 주민자치회에 대해 ‘보통’으로 알고 있다가 30.7%로 가장 높았으며, ‘그렇다’ 23.7%, ‘그렇지 않다’ 20.2%, ‘매우 그렇다’ 12.3%, ‘전혀 그렇지 않다’ 7%, 미응답 6.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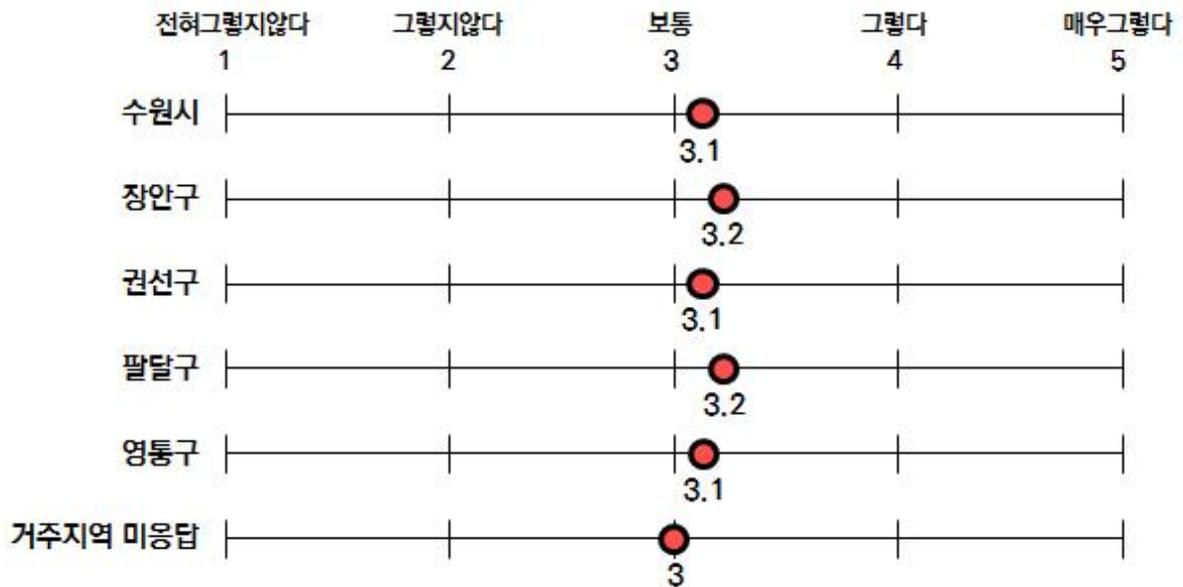
■ 행정구역 특성 분석

행정구역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회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4개의 행정구역(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모두 '보통'이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앞서 파악되었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렇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주민자치회는 이에 비해 낮은 인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낸 결과, 장안구와 팔달구는 3.2점으로 나타났으며, 권선구와 영통구는 3.1점, 거주지역에 대해 기재하지 않은 응답자는 3점으로 수원시 행정구역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였을 때, 총 3.1점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지성은 '보통'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지성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 더 낮은 점수를 나타낸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성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7〉 주민자치회 인지성에 대한 지역별 현황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미응답		총합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수원시	72	6.8%	213	20.0%	352	33.0%	266	25.0%	104	9.8%	59	5.5%	1066
장안구	19	9.0%	34	16.2%	68	32.4%	62	29.5%	25	11.9%	2	1.0%	210
권선구	17	7.7%	44	20.0%	73	33.2%	51	23.2%	21	9.5%	14	6.4%	220
팔달구	7	4.8%	31	21.1%	49	33.3%	38	25.9%	14	9.5%	8	5.4%	147
영통구	16	7.0%	46	20.2%	70	30.7%	54	23.7%	28	12.3%	14	6.1%	228
미응답	13	5.0%	58	22.2%	92	35.2%	61	23.4%	16	6.1%	21	8.0%	261



〈그림 3-15〉 주민자치회 인지성에 대한 지역별 평균

2) 참여자 현황

■ 현재 주민자치위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에게 주민자치회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35.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1.7%는 '보통', 15.8%가 '매우 그렇다', 11.5%는 '그렇지 않다', 미응답 4.4%, 1.1%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차지하였다.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의 경우, 주민자치회에 대해 잘 아는가에 대해 '보통'과 '그렇다'에서 각각 36.4%로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어 '매우 그렇다' 18.2%, '그렇지 않다' 9.1% 순으로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와 미응답자는 0%로 이는 현재 소속하고 있는 주체가 주민자치회라는 요인도 작용할 것이다.

■ 과거 주민자치위원

과거에 활동하였던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매우 그렇다'가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보통'과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18.8%로 같은 비율을 나타내고 '그렇지 않다'가 12.5%, 미응답이 6.3% 순으로 나타났다.

■ 동 단체원

동 단체원은 '보통'으로 알고 있다가 33.3%로 나타났으며, '그렇다'가 26.6%, '그렇지 않다'가 13.9%, '매우 그렇다' 11.8%, '전혀 그렇지 않다' 8.9%, 미응답이 5.5% 순으로 나타났다.

■ 일반주민

일반주민의 경우, 주민자치회를 '보통'으로 알고 있다가 35.1%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 26.6%, '그렇다'가 19.6%, '전혀 그렇지 않다' 9.2%, '매우 그렇다'와 미응답이 동일하게 4.7% 순으로 나타났다.

■ 참여주체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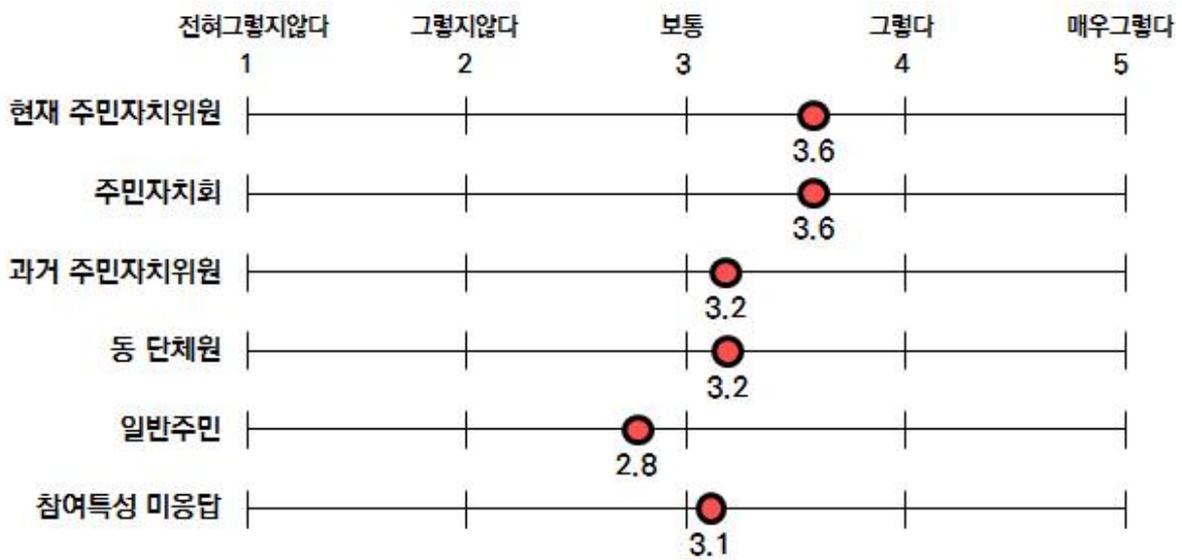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참여주체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회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참여특성 미응답자를 포함한 6개의 참여주체(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동 단체원, 일반주민) 중 과거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응답자는 '매우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은 '그렇다', 주민자치회는 '그렇다'와 '보통'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고, 동단체원과 일반주민, 참여특성 미응답자는 '보통'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와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경험한 응답자와 동 단체원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주민자치회는 '그렇다'와 '보통'의 결과가 동일하고 일반주민과 참여특성 미응답자가 '보통'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낸 결과, 현재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는 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거 주민자치위원과 동 단체원은 3.2점, 참여특성 미응답은 3.1점, 일반주민은 2.8점으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해 '보통'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앞서 파악된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낮은 인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구역별 현황과 같이 '보통'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3-8〉 주민자치회 인지성에 대한 참여자 현황

구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그렇다		미응답		총합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총합계	72	6.8%	213	20.0%	352	33.0%	266	25.0%	104	9.8%	59	5.5%	1066
현재 주민자치위원	2	1.1%	21	11.5%	58	31.7%	65	35.5%	29	15.8%	8	4.4%	183
주민자치회	0	0.0%	1	9.1%	4	36.4%	4	36.4%	2	18.2%	0	0.0%	11
과거 주민자치위원	3	18.8%	2	12.5%	3	18.8%	3	18.8%	4	25.0%	1	6.3%	16
동 단체원	21	8.9%	33	13.9%	79	33.3%	63	26.6%	28	11.8%	13	5.5%	237
일반주민	29	9.2%	84	26.6%	111	35.1%	62	19.6%	15	4.7%	15	4.7%	316
미응답	17	5.6%	72	23.8%	97	32.0%	69	22.8%	26	8.6%	22	7.3%	303



〈그림 3-16〉 주민자치회 인지성에 대한 참여주체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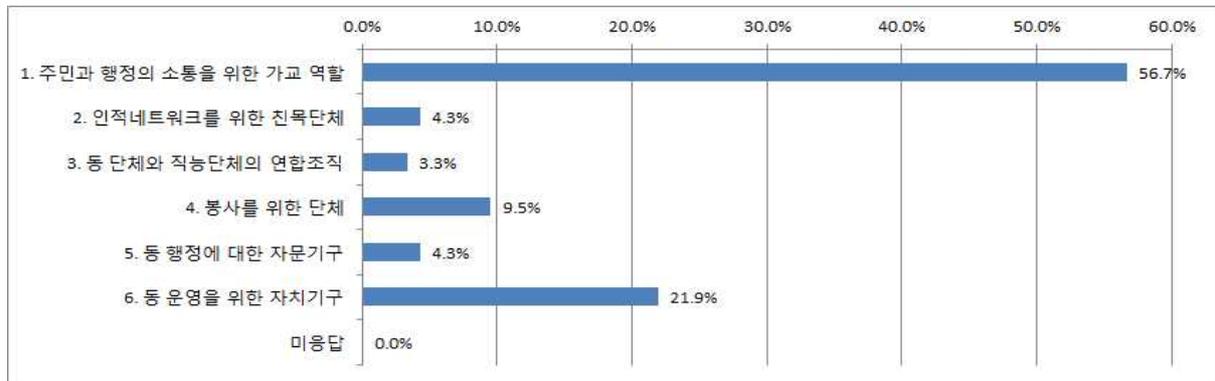
2. 주민자치회의 활동 역할

1) 지역별 현황

주민자치회가 어떤 단체(기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수원시 전체 설문조사 결과, 45.6%가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2.6%는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 9.1%는 ‘봉사를 위한 단체’, 7.9%는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친목단체’, 6.8%는 ‘동 단체와 직능단체의 연합조직’, 4.8% ‘동 행정에 대한 자문기구’, 3.3% 미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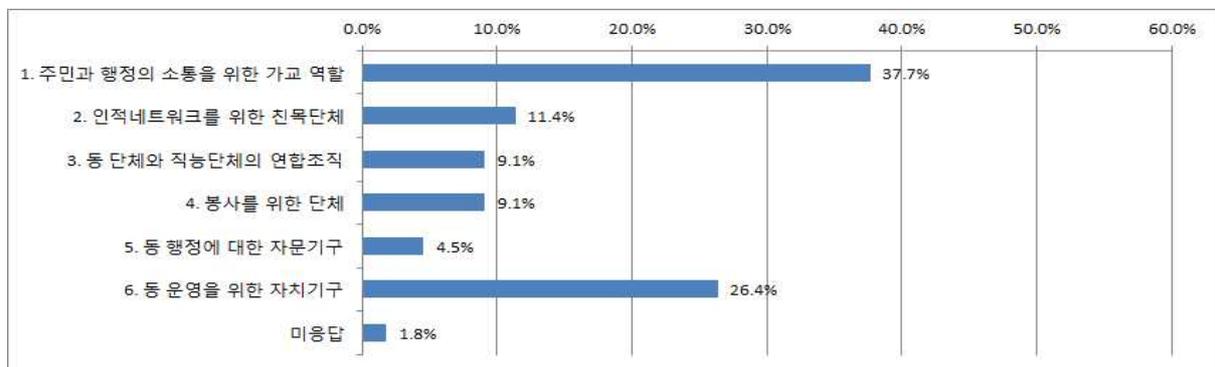
주민자치회가 어떤 단체(기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장안구의 결과, 56.7%가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1.9%는 ‘동 운영을 위한 자치조직’, 9.5%는 ‘봉사를 위한 단체’,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친목단체’와 ‘동 행정에 대한 자문기구’는 각각 4.3%이고, ‘동 단체와 직능단체의 연합조직’ 3.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 주민자치회의 활동 역할에 대한 장안구 결과

■ 권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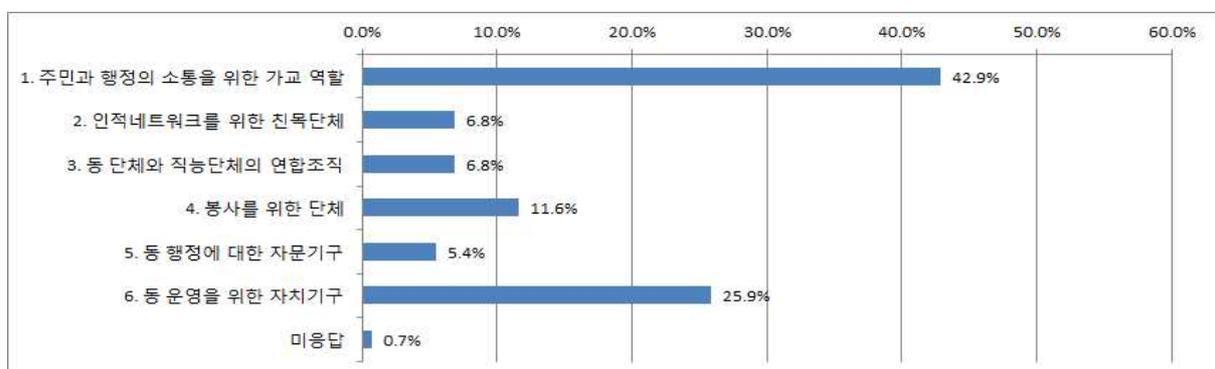
권선구의 경우,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37.7%로 나타났으며,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 26.4%,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친목단체’가 11.4%, ‘동 단체와 직능단체의 연합조직’과 ‘봉사를 위한 단체’는 각각 9.1% 동일한 비율을 나타내고, ‘동 행정에 대한 자문기구’ 4.5%, 미응답 1.8% 순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18〉 주민자치회의 활동 역할에 대한 권선구 결과

■ 팔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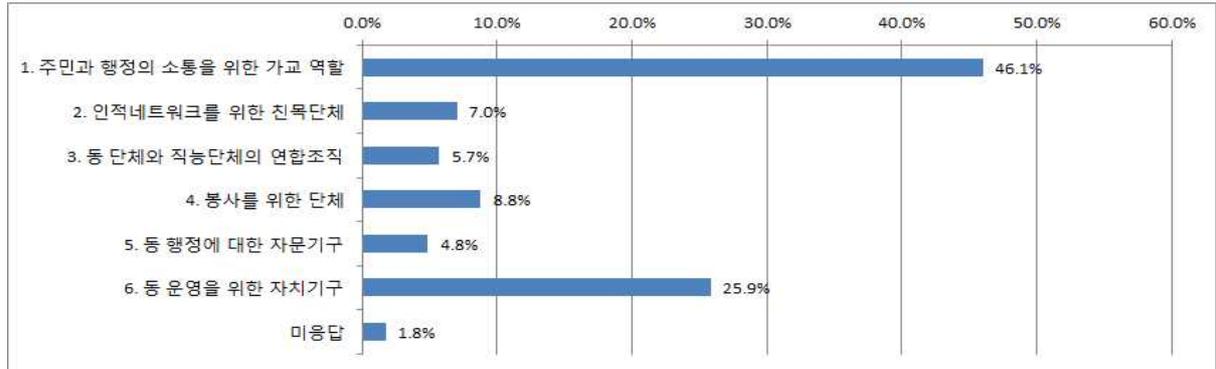
팔달구의 경우, 42.9%가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가 25.9%, ‘봉사를 위한 단체’가 11.6%,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친목단체’와 ‘동 단체와 직능단체의 연합조직’이 각각 6.8%, ‘동 행정에 대한 자문기구’ 5.4%, 미응답 0.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9〉 주민자치회의 활동 역할에 대한 팔달구 결과

■ 영통구

영통구의 경우,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이 46.1%가 차지하였으며,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가 25.9%, '봉사를 위한 단체'가 8.8%,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친목단체' 7%, '동 단체와 직능단체의 연합조직' 5.7%, '동 행정에 대한 자문기구' 4.8%, 미응답 1.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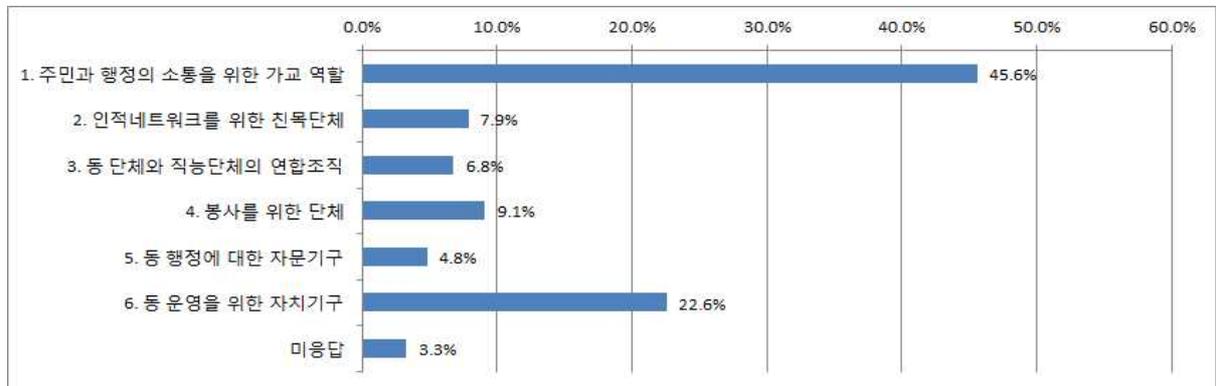
〈그림 3-20〉 주민자치회의 활동 역할에 대한 영통구 결과

■ 행정구역 특성 분석

전체 행정구역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회는 어떤 단체(기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4개의 행정구역(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과 거주지역 미응답자 모두에서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이라는 문항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 운영을 위한 자치조직'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파악하였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응답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3-9〉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지역별 결과

구분	1		2		3		4		5		6		미응답		총합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수원시	486	45.6%	84	7.9%	72	6.8%	97	9.1%	51	4.8%	241	22.6%	35	3.3%	1066
장안구	119	56.7%	9	4.3%	7	3.3%	20	9.5%	9	4.3%	46	21.9%	0	0.0%	210
권선구	83	37.7%	25	11.4%	20	9.1%	20	9.1%	10	4.5%	58	26.4%	4	1.8%	220
팔달구	63	42.9%	10	6.8%	10	6.8%	17	11.6%	8	5.4%	38	25.9%	1	0.7%	147
영통구	105	46.1%	16	7.0%	13	5.7%	20	8.8%	11	4.8%	59	25.9%	4	1.8%	228
미응답	116	44.4%	24	9.2%	22	8.4%	20	7.7%	13	5.0%	40	15.3%	26	10.0%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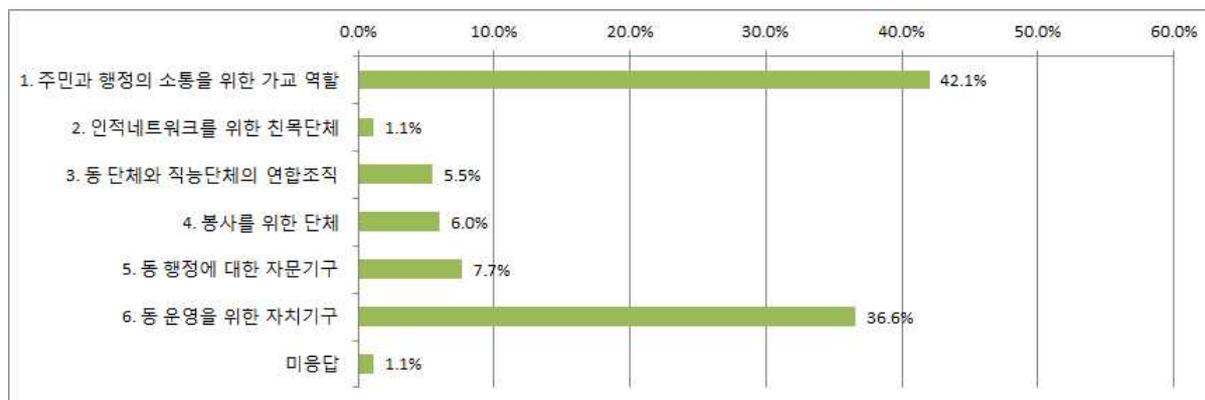


〈그림 3-21〉 주민자치회의 활동 역할에 대한 수원시 결과

2) 참여자 현황

■ 현재 주민자치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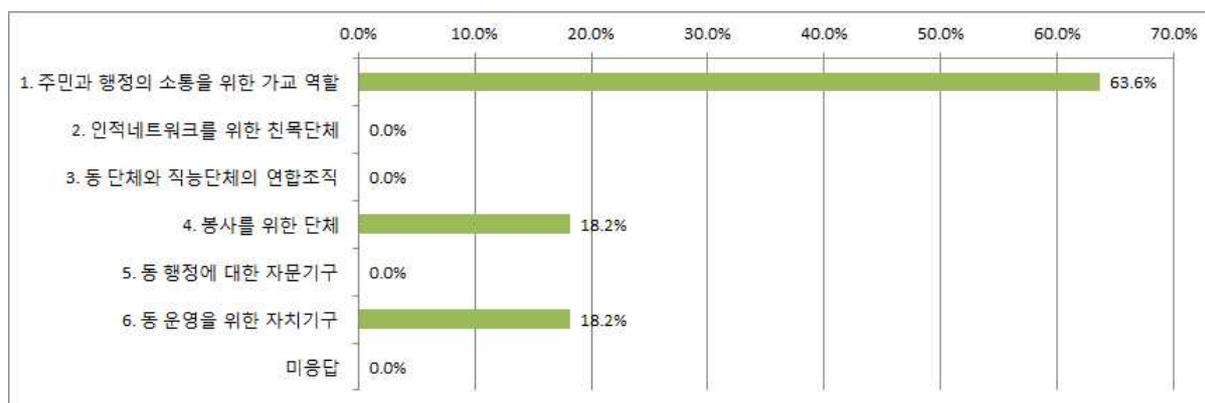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문한 결과, 42.1%가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가 36.6%, ‘동 행정에 대한 자문기구’ 7.7%, ‘봉사를 위한 단체’는 6%, ‘동 단체와 직능단체의 연합조직’ 5.5%,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친목단체’와 미응답은 각각 1.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2〉 주민자치회의의 활동 역할에 대한 현재 주민자치위원 결과

■ 주민자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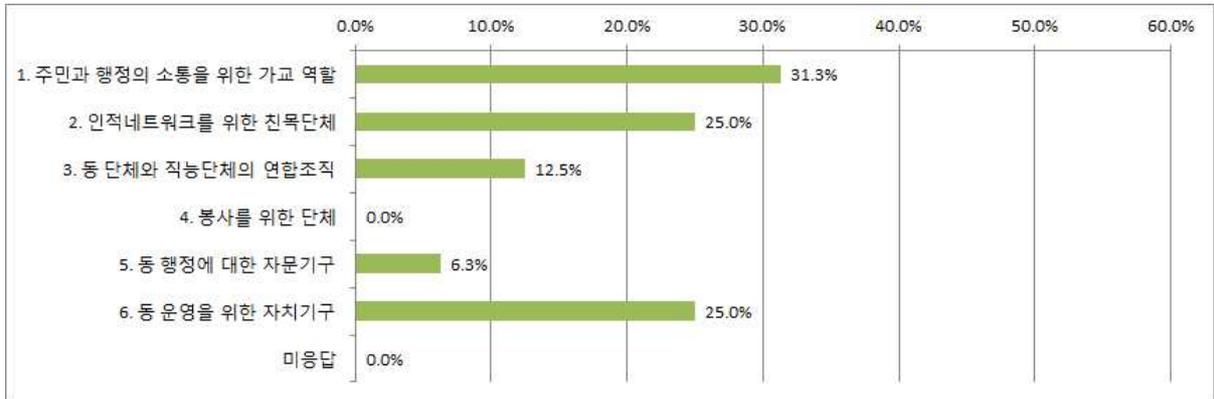
주민자치회의의 경우,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이 63.6%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봉사를 위한 단체’와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는 18.2%씩 같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미응답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23〉 주민자치회의의 활동 역할에 대한 주민자치회 결과

■ 과거 주민자치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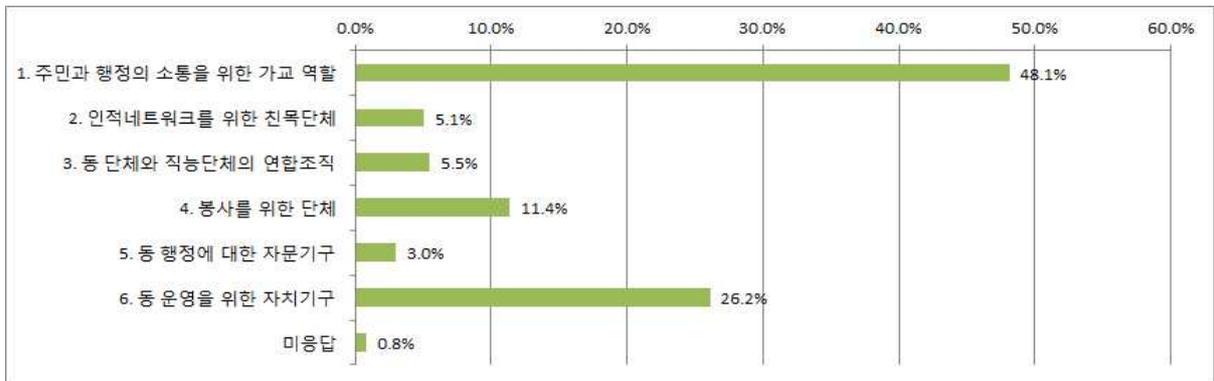
과거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했던 응답자의 경우, 31.3%가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친목단체’와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에 대해 25%로 동일한 비율을 나타내고 ‘동 단체와 직능단체의 연합조직’은 12.5%, ‘동 행정에 대한 자문기구’ 6.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4〉 주민자치회의 활동 역할에 대한 과거 주민자치위원 결과

■ 동 단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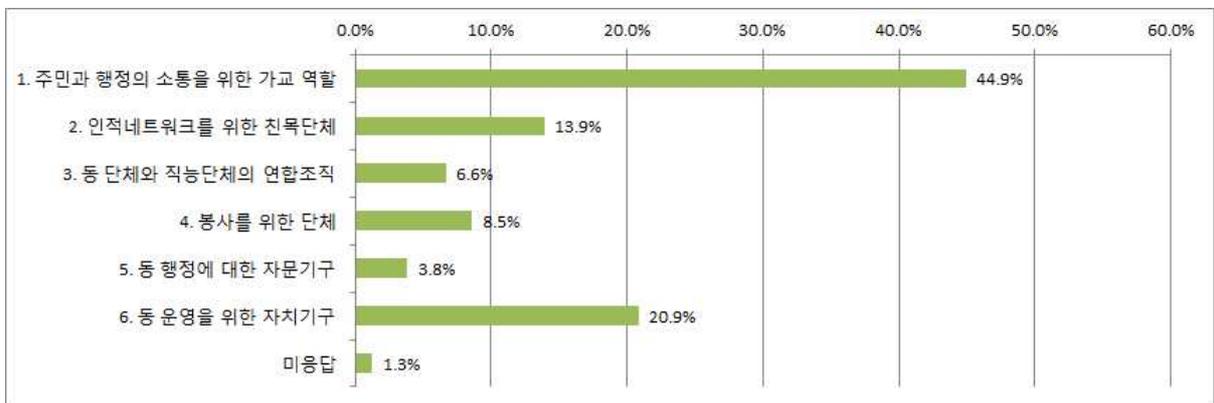
동 단체원의 경우,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대해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 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8.1%로 나타나고 있으며, 26.2%는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 11.4% ‘봉사를 위한 단체’, 5.5%는 ‘동 단체와 직능단체의 연합조직’, 5.1%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친목단체’, 미응답 0.8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5〉 주민자치회의 활동 역할에 대한 동 단체원 결과

■ 일반주민

일반주민 또한,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이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 20.9%,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친목단체’ 13.9%, ‘봉사를 위한 단체’ 8.5%, ‘동 단체와 직능단체의 연합조직’ 6.6%, ‘동 행정에 대한 자문기구’ 3.8%, 미응답 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6〉 주민자치회의 활동 역할에 대한 일반주민 결과

■ 참여주체 특성 분석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참여주체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회는 어떤 단체(기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참여특성 미응답자를 포함한 6개의 참여주체(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동 단체원, 일반주민) 모두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에 대한 응답률 약 45%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약 20%를 차지한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별 현황'에서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수원시 시민과 참여주체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동일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10〉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참여주체별 현황

구분	1		2		3		4		5		6		미응답		총합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총합계	486	45.6%	84	7.9%	72	6.8%	97	9.1%	51	4.8%	241	22.6%	35	3.3%	1066
현재 주민자치위원	77	42.1%	2	1.1%	10	5.5%	11	6.0%	14	7.7%	67	36.6%	2	1.1%	183
주민자치회	7	63.6%	0	0.0%	0	0.0%	2	18.2%	0	0.0%	2	18.2%	0	0.0%	11
과거 주민자치위원	5	31.3%	4	25.0%	2	12.5%	0	0.0%	1	6.3%	4	25.0%	0	0.0%	16
동 단체원	114	48.1%	12	5.1%	13	5.5%	27	11.4%	7	3.0%	62	26.2%	2	0.8%	237
일반주민	142	44.9%	44	13.9%	21	6.6%	27	8.5%	12	3.8%	66	20.9%	4	1.3%	316
미응답	141	46.5%	22	7.3%	26	8.6%	30	9.9%	17	5.6%	40	13.2%	27	8.9%	303

제3절 주민자치회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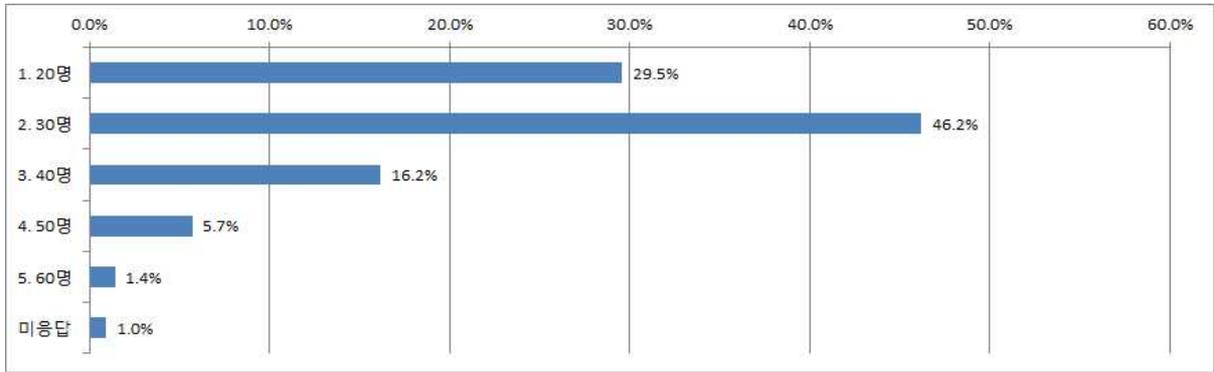
1. 주민자치회 구성인원의 적합성

1) 지역별 현황

주민자치회 구성인원의 수가 몇 명이 적합한가에 대한 수원시 설문조사 결과, '30명'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3.6%로 가장 높았으며, 35.7%는 '20명', 9.2% '40명', 6.1% '50명', 1.3% '60명', 4%의 미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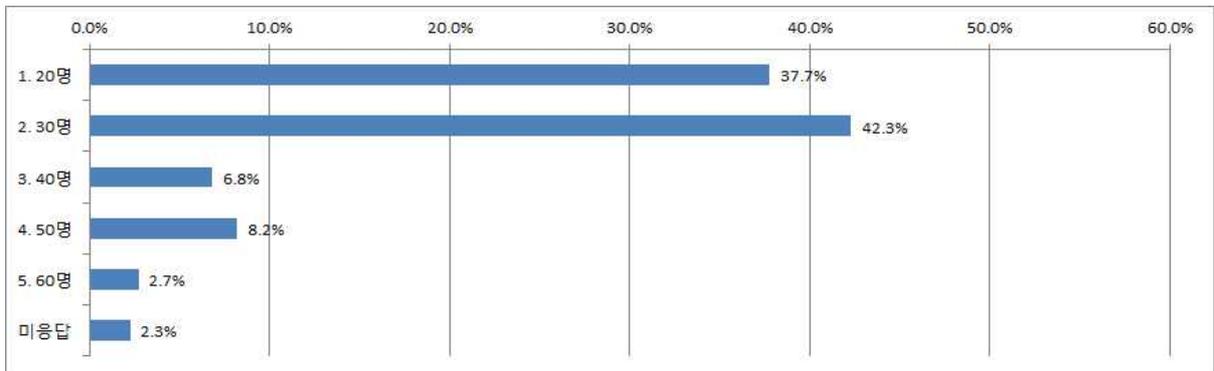
장안구의 경우, 주민자치회 구성인원은 '30명'이 46.2%가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0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5%, '40명' 16.2%, '50명' 5.7%, '60명' 1.4%, 미응답 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30명'은 46.2%로 수원시 전체 비율인 43.6% 보다 2.6%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문향과 2번째로 높은 응답률의 차이는 16.7%로 나타났다.



〈그림 3-27〉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의 적합성에 대한 장안구 결과

■ 권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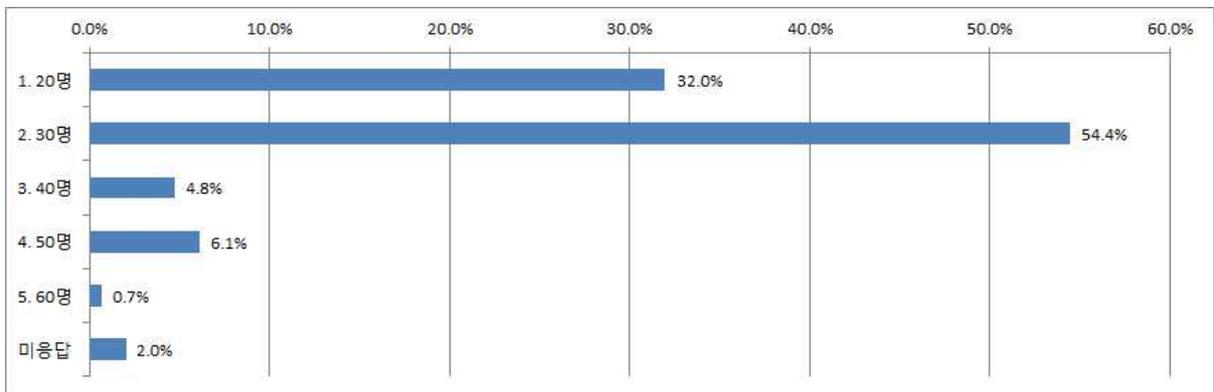
권선구 또한 ‘30명’이 4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37.7%가 ‘20명’, ‘50명’은 8.2%, ‘40명’ 6.8%, ‘60명’ 2.7%, 미응답 2.3% 순으로 나타났다. 제일 높은 응답률을 보인 ‘30명’과 2번째로 높은 ‘20명’의 차이가 4.6%로 장안구에 비해 차이가 적게 나타나며, 수원시 전체 비율인 43.6% 보다 1.3% 적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림 3-28〉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의 적합성에 대한 권선구 결과

■ 팔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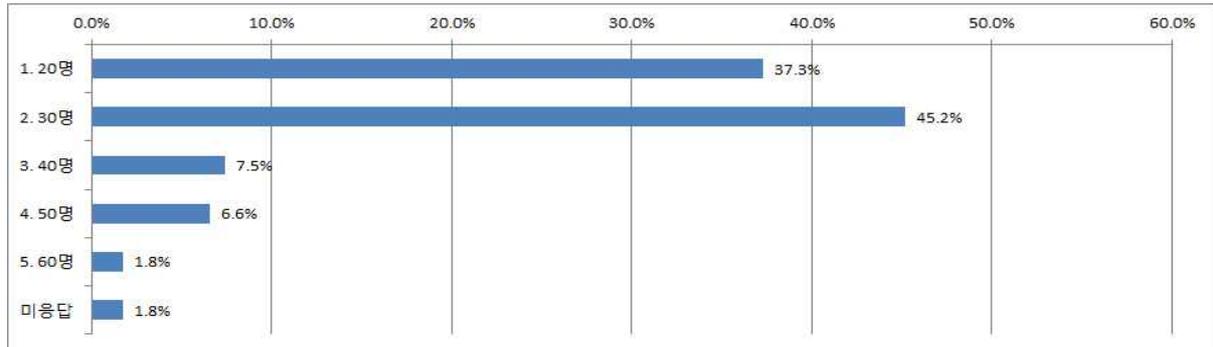
팔달구의 경우, 54.4%가 ‘30명’에 응답하였으며, 32%는 ‘20명’, 6.1% ‘50명’, 4.8% ‘40명’, 미응답 2%, ‘60명’ 0.7% 순으로 차지하였다. 제일 높은 응답률을 보인 ‘30명’과 2번째로 높은 ‘20명’과의 차이는 22.4%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수원시 전체 비율의 43.6% 보다 10.8%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 3-29〉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의 적합성에 대한 팔달구 결과

■ 영통구

영통구는 45.2%의 '30명'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20명'이 37.3%, '40명'이 7.5%, '50명'이 6.6%, '60명'과 미응답이 각각 1.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통구의 경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30명'과 2번째 응답률인 '20명'의 차이는 7.9%로 나타났으며, 수원시 전체 43.6% 보다 1.6% 정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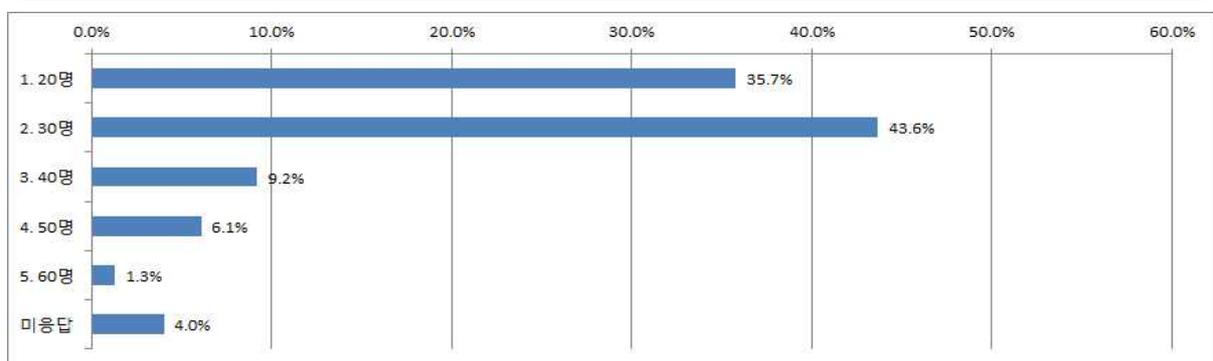
〈그림 3-30〉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의 적합성에 대한 영통구 결과

■ 행정구역 특성 분석

전체 행정구역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회의 구성인원은 몇 명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에 거주지역 미응답자를 제외한 4개의 행정구역(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에서 '30명'이 적합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명'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거주지역에 응답하지 않은 설문자는 '20명'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명'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비율을 파악했을 때 주민자치회의 구성인원은 '30명'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1〉 주민자치회에 적합한 구성인원에 대한 지역별 현황

구분	1		2		3		4		5		미응답		총합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수원시	381	35.7%	465	43.6%	98	9.2%	65	6.1%	14	1.3%	43	4.0%	1066
장안구	62	29.5%	97	46.2%	34	16.2%	12	5.7%	3	1.4%	2	1.0%	210
권선구	83	37.7%	93	42.3%	15	6.8%	18	8.2%	6	2.7%	5	2.3%	220
팔달구	47	32.0%	80	54.4%	7	4.8%	9	6.1%	1	0.7%	3	2.0%	147
영통구	85	37.3%	103	45.2%	17	7.5%	15	6.6%	4	1.8%	4	1.8%	228
미응답	104	39.8%	92	35.2%	25	9.6%	11	4.2%	0	0.0%	29	11.1%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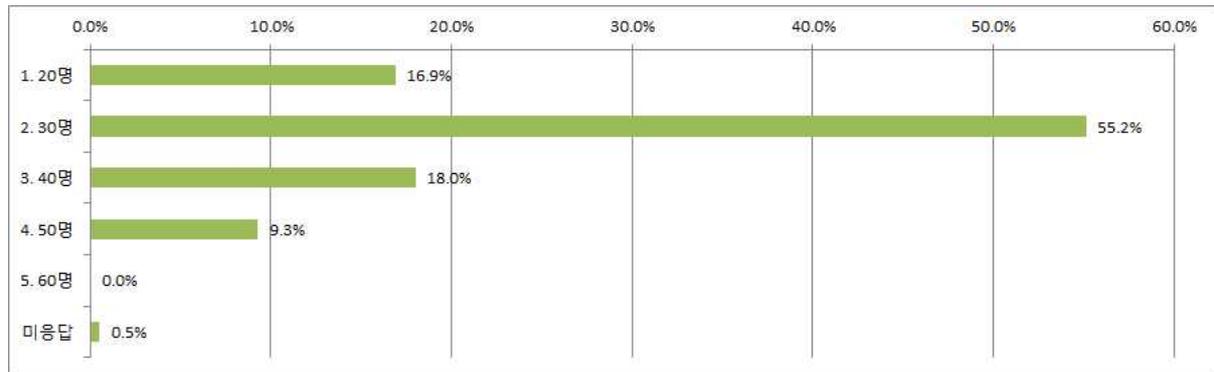


〈그림 3-31〉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의 적합성에 대한 수원시 결과

2) 참여자 현황

■ 현재 주민자치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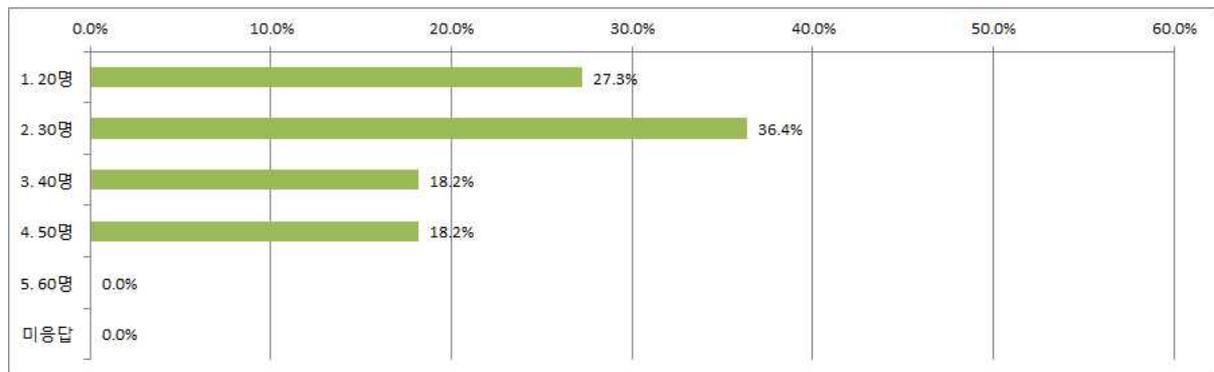
주민자치회 구성인원이 몇 명이 적정한가에 대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응답 결과는 55.2%가 '30명'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8%가 '40명', 16.9%가 '20명', 9.3%는 '50명', 미응답 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원시 전체 응답률 43.6% 보다 11.6%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며, 2번째로 높은 응답률과 37.2% 차이를 나타내며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3-32〉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의 적합성에 대한 현재 주민자치위원 결과

■ 주민자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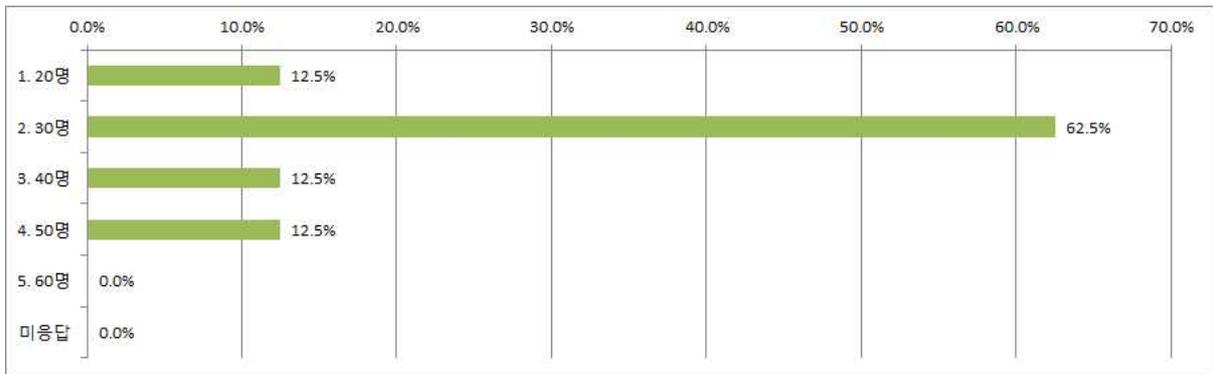
주민자치회의 경우, 36.4%가 '30명'이 적정하다고 하였으며, '20명'은 27.3%, '40명'과 '50명'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18.2%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36.4%를 차지한 '30명'과 27.3% '20명'과의 차이는 9.1%로 파악되었다.



〈그림 3-33〉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의 적합성에 대한 주민자치회 결과

■ 과거 주민자치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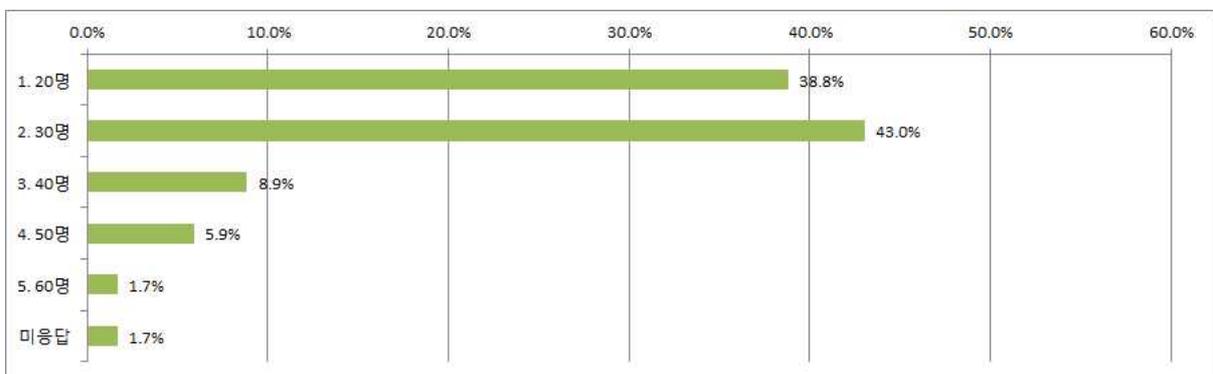
주민자치위원을 과거에 활동하였던 설문자들의 경우, 주민자치회의 구성인원은 '30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62.5%가 응답하였으며, '20명', '40명', '50명'은 각각 12.5%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30명' 62.5%와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 12.5%와의 차이는 50%로 다른 주체 보다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설문자들의 결과는 과거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였던 경험으로 인해 구성 인원이 '30명'으로 적정하다는 결과가 다른 주체보다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34〉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의 적합성에 대한 과거 주민자치위원 결과

■ 동 단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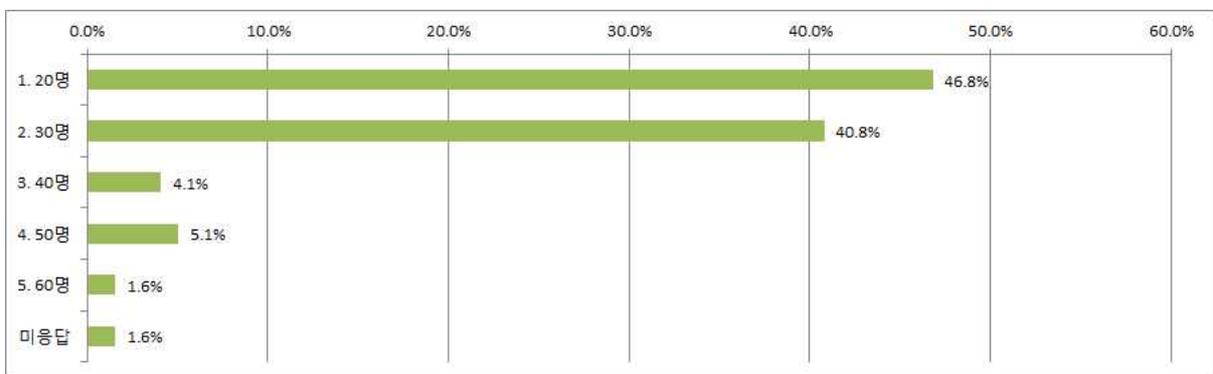
동 단체원의 경우, 43%가 '30명'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8.8%가 '20명', 8.9%가 '40명', 5.9% '50명', '60명'과 미응답이 1.7%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43%와 38.8%의 차이는 4.2%로 보다 적은 차이로 파악되어진다.



〈그림 3-35〉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의 적합성에 대한 동 단체원 결과

■ 일반주민

주민자치회의 적정 구성인원에 대한 일반주민의 설문 결과, 46.8%가 '20명'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0명'은 40.8%, '50명' 5.1%, '40명' 4.1%, '60명'과 미응답은 1.6% 순으로 차지하였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46.8%와 다음 응답률인 40.8%의 차이는 6%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주체들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으며, 다른 단체를 경험해 본 설문자와 일반주민의 인식의 차이라고 분석된다.



〈그림 3-36〉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의 적합성에 대한 일반주민 결과

■ 참여주체 특성 분석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참여주체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회 구성인원은 몇 명이 적정인가에 대한 참여특성 미응답자를 포함한 현재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회, 과거 주민자치위원, 동 단체원 등 총 5개의 참여주체에서 '30명'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중 과거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주체에서 평균 43.6% 보다 18.9%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주체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 일반주민에서는 '20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관련 활동에 대해 참여하였던 경험의 유무로 인해 생긴 인식과 경험의 차이라고 파악된다.

〈표 3-12〉 주민자치회에 적합한 구성인원에 대한 지역별 현황

구분	1		2		3		4		5		미응답		총합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총합계	381	35.7%	465	43.6%	98	9.2%	65	6.1%	14	1.3%	43	4.0%	1066
현재 주민자치위원	31	16.9%	101	55.2%	33	18.0%	17	9.3%	0	0.0%	1	0.5%	183
주민자치회	3	27.3%	4	36.4%	2	18.2%	2	18.2%	0	0.0%	0	0.0%	11
과거 주민자치위원	2	12.5%	10	62.5%	2	12.5%	2	12.5%	0	0.0%	0	0.0%	16
동 단체원	92	38.8%	102	43.0%	21	8.9%	14	5.9%	4	1.7%	4	1.7%	237
일반주민	148	46.8%	129	40.8%	13	4.1%	16	5.1%	5	1.6%	5	1.6%	316
미응답	105	34.7%	119	39.3%	27	8.9%	14	4.6%	5	1.7%	33	10.9%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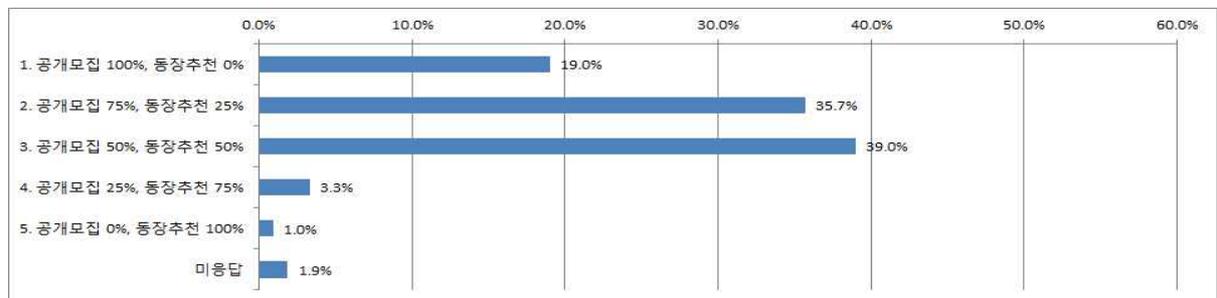
2.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의 적합성

1) 지역별 현황

바람직한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한 수원시 전체 설문조사 결과, '공개모집 50%, 동장추천 50%'가 35.7%로 가장 높게 차지하였으며, '공개모집 75, 동장추천 25%' 35.3%, '공개모집 100, 동장추천 0%' 18.6%, 미응답 5.4%, '공개모집 25, 동장추천 75%' 3.5%, '공개모집 0%, 동장추천 100%' 1.5%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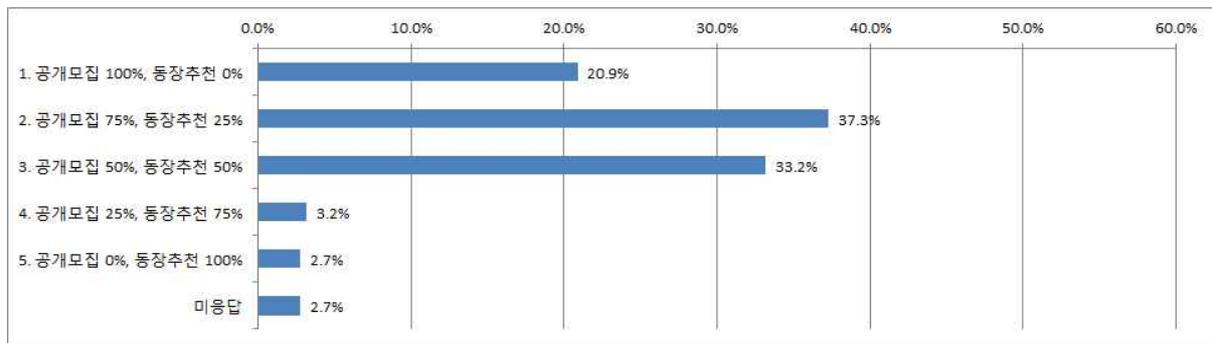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해 장안구는 '공개모집 50%, 동장추천 50%'가 39%로 가장 높게 차지하였으며, '공개모집 75, 동장추천 25%' 35.7%, '공개모집 100, 동장추천 0%' 19%, '공개모집 25, 동장추천 75%' 3.3%, 미응답 1.9%, '공개모집 0%, 동장추천 100%' 1% 순으로 차지하였다. 이는 가장 높은 응답률을 가진 문항이 수원시 전체 결과 보다 3.3% 높게 나타났으며, 2번째로 높은 문항과 3.3% 차이 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37〉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한 장안구 결과

■ 권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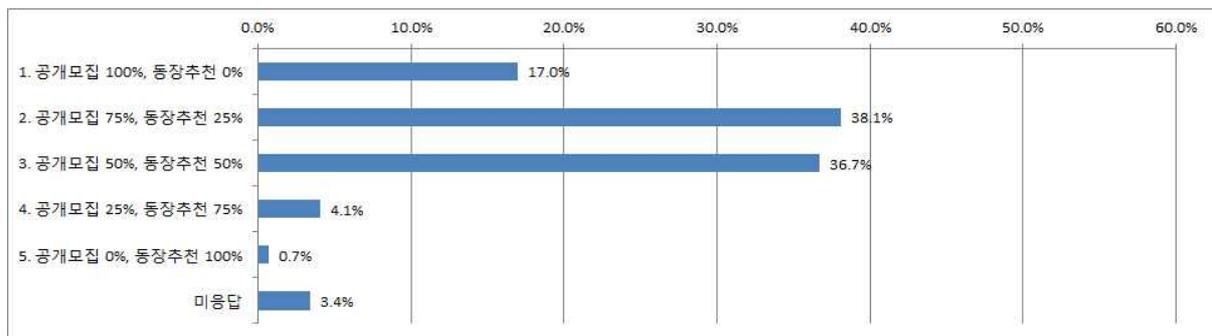
권선구의 경우, ‘공개모집 75, 동장추천 25%’ 37.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개모집 50%, 동장추천 50%’는 33.2%, ‘공개모집 100, 동장추천 0%’ 20.9%, ‘공개모집 25, 동장추천 75%’ 3.2%, ‘공개모집 0%, 동장추천 100%’과 미응답은 각각 2.7%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나타난 장안구와 상이한 결과로 공개모집 50%, 동장추천 50%’ 보다 ‘공개모집 75, 동장추천 25%’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8〉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한 권선구 결과

■ 팔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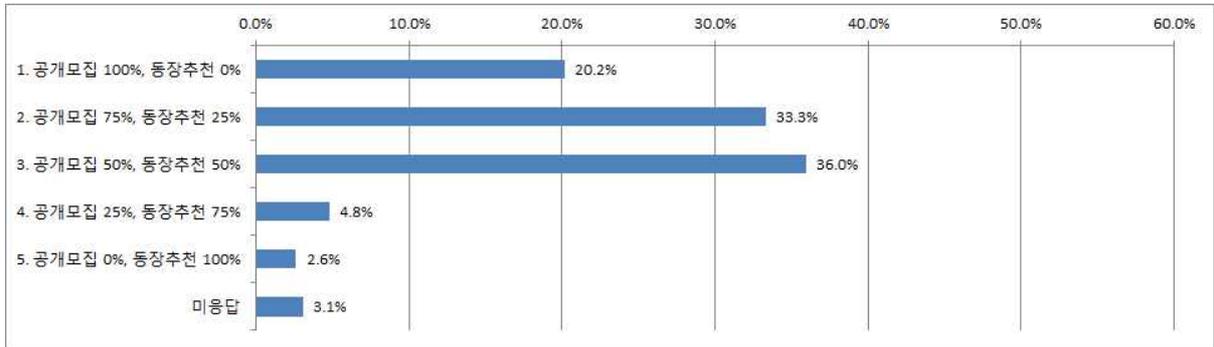
팔달구 또한 ‘공개모집 75, 동장추천 25%’ 38.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개모집 50%, 동장추천 50%’는 36.7%, ‘공개모집 100, 동장추천 0%’ 17%, ‘공개모집 25, 동장추천 75%’ 4.1%, 미응답은 3.4%, ‘공개모집 0%, 동장추천 100%’ 0.7%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는 권선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9〉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한 팔달구 결과

■ 영통구

영통구의 경우, ‘공개모집 50%, 동장추천 50%’가 36%로 가장 높게 차지하였으며, ‘공개모집 75, 동장추천 25%’ 33.3%, ‘공개모집 100, 동장추천 0%’ 20.2%, ‘공개모집 25, 동장추천 75%’ 4.8%, 미응답 3.1%, ‘공개모집 0%, 동장추천 100%’ 2.6% 순으로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안구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원시 전체 결과보다 0.7%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0〉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한 영통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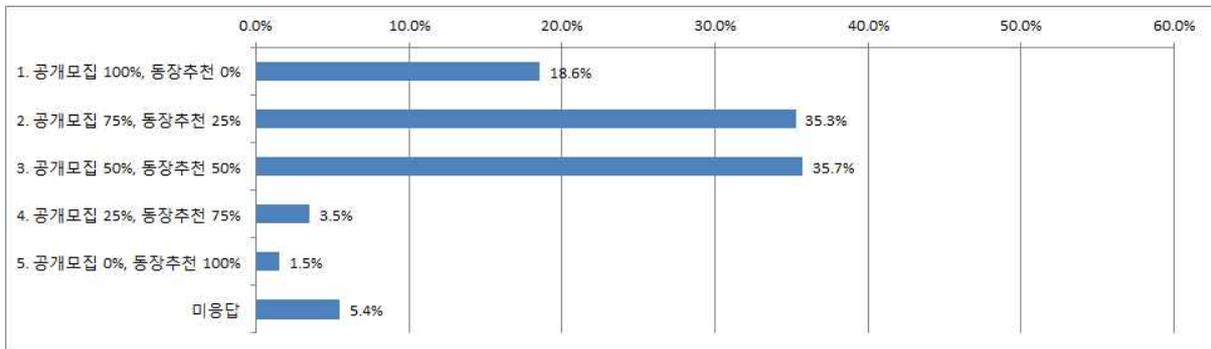
■ 행정구역 특성 분석

전체 행정구역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해 무엇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에 4개의 행정구역(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중 장안구와 영통구, 거주지역 미응답에서 ‘공개모집 50%, 동장추천 5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권선구와 팔달구는 ‘공개모집 75, 동장추천 25%’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각각 ‘공개모집 50%, 동장추천 50%’(장안구, 영통구, 거주지역 미응답), ‘공개모집 75, 동장추천 25%’(권선구, 팔달구)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들이 같은 패턴을 보이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공개모집 50%, 동장추천 50%’가 가장 높게 나온 장안구와 영통구, 거주지역 미응답의 경우, ‘공개모집 50%, 동장추천 50%’ - ‘공개모집 75, 동장추천 25%’ - ‘공개모집 100, 동장추천 0%’ - ‘공개모집 25, 동장추천 75%’ - ‘공개모집 0%, 동장추천 100%’ 순으로 나타나며, ‘공개모집 75, 동장추천 25%’ 가장 높게 나온 권선구와 팔달구의 경우, ‘공개모집 75, 동장추천 25%’ - ‘공개모집 50%, 동장추천 50%’ - ‘공개모집 100, 동장추천 0%’ - ‘공개모집 25, 동장추천 75%’ - ‘공개모집 0%, 동장추천 100%’ 순으로 패턴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3〉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한 지역별 현황

구분	1		2		3		4		5		미응답		총합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수원시	198	18.6%	376	35.3%	381	35.7%	37	3.5%	16	1.5%	58	5.4%	1066
장안구	40	19.0%	75	35.7%	82	39.0%	7	3.3%	2	1.0%	4	1.9%	210
권선구	46	20.9%	82	37.3%	73	33.2%	7	3.2%	6	2.7%	6	2.7%	220
팔달구	25	17.0%	56	38.1%	54	36.7%	6	4.1%	1	0.7%	5	3.4%	147
영통구	46	20.2%	76	33.3%	82	36.0%	11	4.8%	6	2.6%	7	3.1%	228
미응답	41	15.7%	87	33.3%	90	34.5%	6	2.3%	1	0.4%	36	13.8%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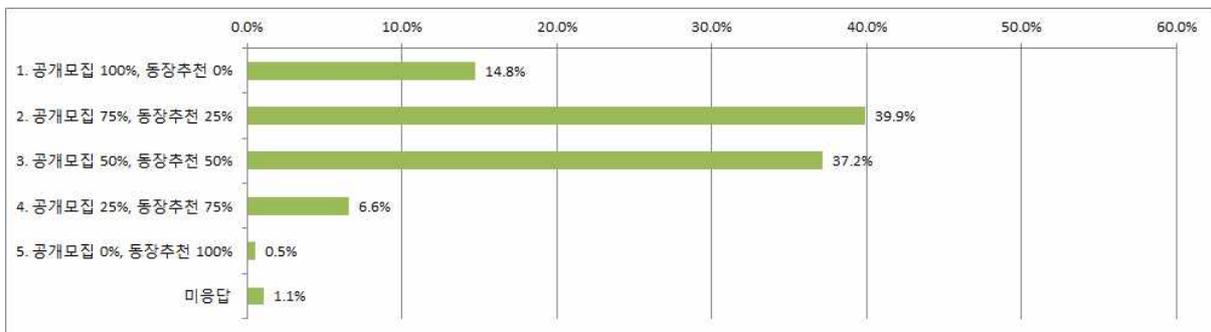


〈그림 3-41〉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한 수원시 결과

2) 참여자 현황

■ 현재 주민자치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에게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해 설문한 결과, ‘공개모집 75, 동장추천 25%’ 39.9%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공개모집 50%, 동장추천 50%’는 37.2%, ‘공개모집 100, 동장추천 0%’ 14.8%, ‘공개모집 25, 동장추천 75%’ 6.6%, 미응답 1.1%, ‘공개모집 0%, 동장추천 100%’ 0.5%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그림 3-42〉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한 현재 주민자치위원 결과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의 경우, ‘공개모집 75, 동장추천 25%’와 ‘공개모집 50%, 동장추천 50%’이 각각 36.4%로 동일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개모집 100, 동장추천 0%’가 18.2%, ‘공개모집 25, 동장추천 75%’ 9.1%, ‘공개모집 0%, 동장추천 100%’와 미응답이 0.0%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그림 3-43〉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한 주민자치회 결과

■ 과거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해 과거에 활동하였던 주민자치위원의 설문 결과, ‘공개모집 100, 동장추천 0%’와 ‘공개모집 75, 동장추천 25%’ 와 ‘공개모집 50%, 동장추천 50%’이 각각 31.3%로 동일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응답 6.3%, ‘공개모집 25, 동장추천 75%’과 ‘공개모집 0%, 동장추천 100%’ 0.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44〉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한 과거 주민자치위원 결과

■ 동 단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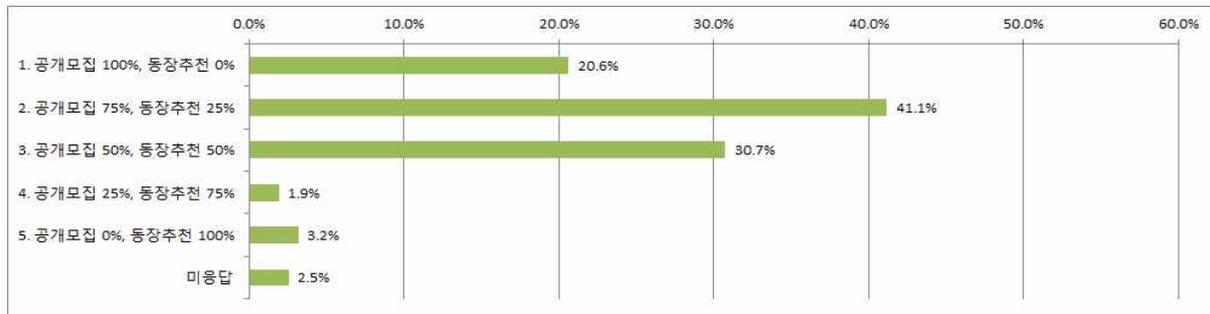
동 단체원의 경우, ‘공개모집 50%, 동장추천 50%’가 42.6로 가장 높게 차지하였으며, ‘공개모집 75, 동장추천 25%’ 29.1%, ‘공개모집 100, 동장추천 0%’ 21.5%, ‘공개모집 25, 동장추천 75%’ 4.6%, 미응답 1.7%, ‘공개모집 0%, 동장추천 100%’ 0.4% 순으로 차지하였다.



〈그림 3-45〉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한 동 단체원 결과

■ 일반주민

일반주민은 ‘공개모집 75, 동장추천 25%’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개모집 50%, 동장추천 50%’이 30.7%, ‘공개모집 100, 동장추천 0%’ 20.6%, ‘공개모집 0%, 동장추천 100%’ 3.2%, 미응답이 2.5%, ‘공개모집 25, 동장추천 75%’ 1.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46〉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한 일반주민 결과

■ 참여주체 특성 분석

참여주체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해 무엇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참여특성 미응답자를 포함한 현재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회, 과거 주민자치위원, 동 단체원, 참여특성, 미응답자 중 현재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 일반주민에서 ‘공개모집 75, 동장추천 2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거 동 단체원은 ‘공개모집 50%, 동장추천 50%’이 가장 높았으며, 과거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공개모집 100, 동장추천 0%’, ‘공개모집 75, 동장추천 25%’, ‘공개모집 50%, 동장추천 50%’의 결과가 모두 동일하게 차지하였다.

현재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는 ‘공개모집 75, 동장추천 25%’ - ‘공개모집 50%, 동장추천 50%’ - ‘공개모집 100, 동장추천 0%’ - ‘공개모집 25, 동장추천 75%’ - ‘공개모집 0%, 동장추천 100%’ 순으로 앞서 행정구역별 분석 결과 권선구와 팔달구에서와 같은 패턴을 나타냈으며, 동 단체원의 경우, 장안구와 영통구 등과 같이 ‘공개모집 50%, 동장추천 50%’ - ‘공개모집 75, 동장추천 25%’ - ‘공개모집 100, 동장추천 0%’ - ‘공개모집 25, 동장추천 75%’ - ‘공개모집 0%, 동장추천 100%’의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4〉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대한 참여주체별 현황

구분	1		2		3		4		5		미응답		총합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총합계	198	18.6%	376	35.3%	381	35.7%	37	3.5%	16	1.5%	58	5.4%	1066
현재 주민자치위원	27	14.8%	73	39.9%	68	37.2%	12	6.6%	1	0.5%	2	1.1%	183
주민자치회	2	18.2%	4	36.4%	4	36.4%	1	9.1%	0	0.0%	0	0.0%	11
과거 주민자치위원	5	31.3%	5	31.3%	5	31.3%	0	0.0%	0	0.0%	1	6.3%	16
동 단체원	51	21.5%	69	29.1%	101	42.6%	11	4.6%	1	0.4%	4	1.7%	237
일반주민	65	20.6%	130	41.1%	97	30.7%	6	1.9%	10	3.2%	8	2.5%	316
미응답	48	15.8%	95	31.4%	106	35.0%	7	2.3%	4	1.3%	43	14.2%	303

3.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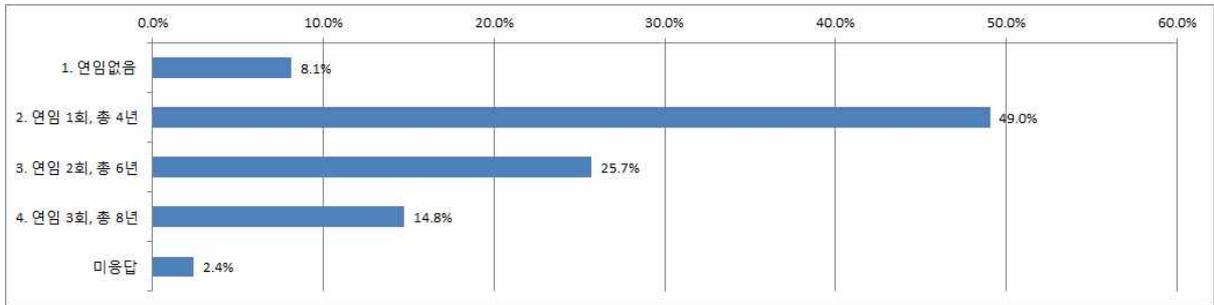
1) 지역별 현황

주민자치회 위원의 적합한 연임규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연임 1회, 총 4년’이 45.3%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임 2회, 총 6년’이 25.1%, ‘연임없음’이 12.6%, ‘연임 2회, 총 8년’ 11.6%, 미응답 5.3% 순으로

차지하였다.

■ 장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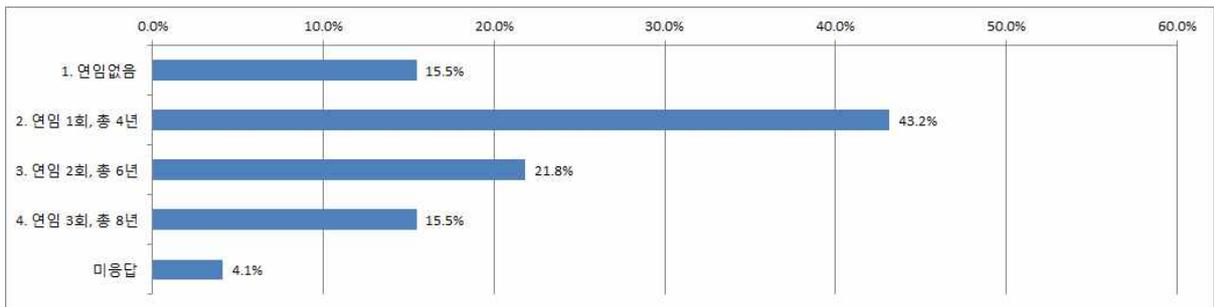
장안구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한 조사 결과, ‘연임 1회, 총 4년’이 49%로 가장 높게 차지하였으며, ‘연임 2회, 총 6년’이 25.7%, ‘연임 3회, 총 8년’ 14.8%, ‘연임없음’ 8.1%, 미응답 2.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47〉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한 장안구 결과

■ 권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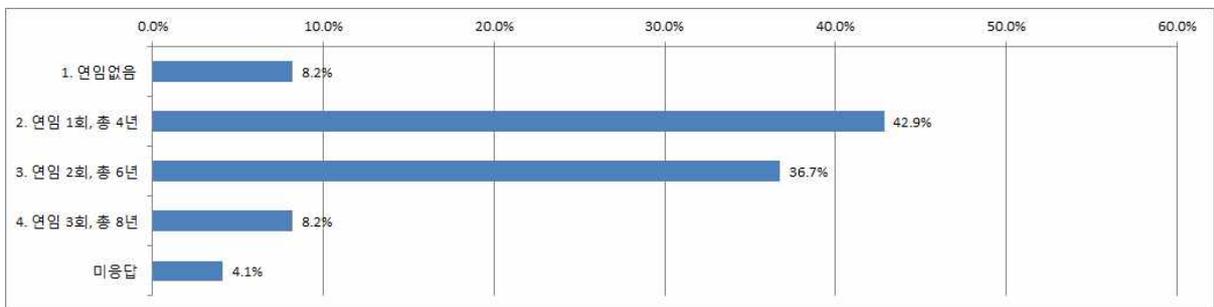
권선구의 경우, 43.2% ‘연임 1회, 총 4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임 2회, 총 6년’이 21.8%, ‘연임 3회, 총 8년’ 과 ‘연임없음’이 각각 15.5%로 동일하게 차지하였으며, 미응답 4.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48〉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한 권선구 결과

■ 팔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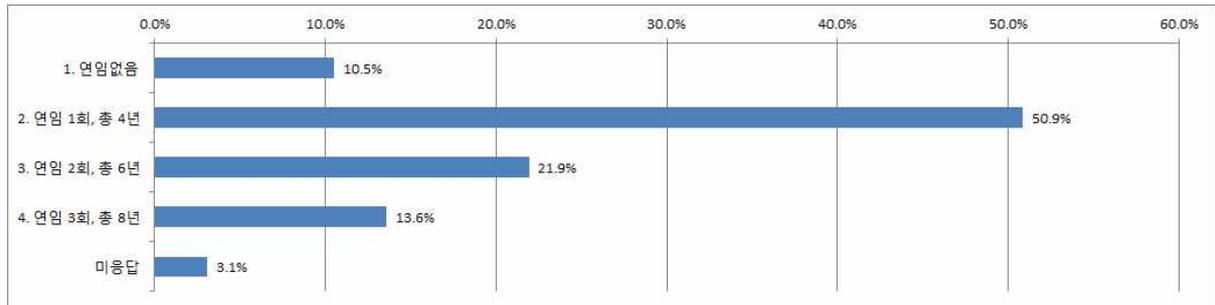
팔달구의 경우, 42.9% ‘연임 1회, 총 4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임 2회, 총 6년’이 36.7%, ‘연임 3회, 총 8년’ 과 ‘연임없음’이 각각 8.2%로 동일하게 차지하였으며, 미응답 4.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49〉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한 팔달구 결과

■ 영통구

영통구는 '연임 1회, 총 4년'가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임 2회, 총 6년'이 21.9%, '연임 3회, 총 8년'이 13.6%, '연임없음' 10.5%, 미응답 3.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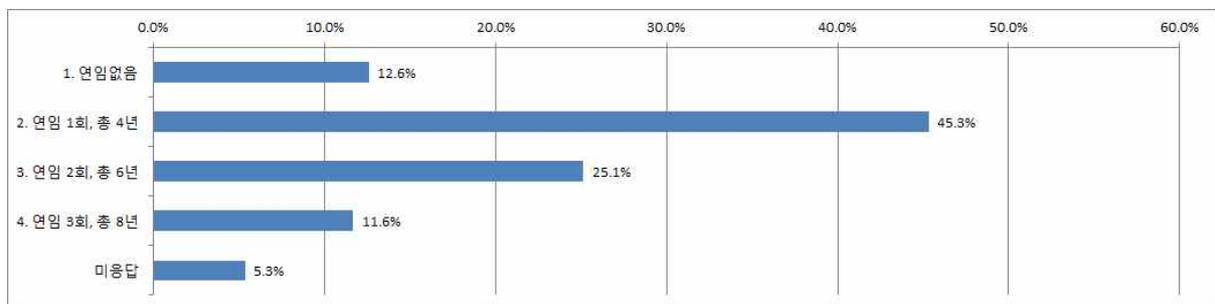
〈그림 3-50〉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한 영통구 결과

■ 행정구역 특성 분석

지역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적합한 연임규정에 대한 행정구역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4개의 행정구역(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모두 '연임 1회, 총 4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연임 2회, 총 6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응답률 다음으로 장안구와 영통구는 '연임 3회, 총 8년'-'연임없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권선구와 팔달구는 '연임 3회, 총 8년', '연임없음'이 같은 응답률을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다.

〈표 3-15〉 주민자치회에 적합한 연임규정에 대한 지역별 현황

구분	1		2		3		4		미응답		총합
	계(명)	%									
수원시	134	12.6%	483	45.3%	268	25.1%	124	11.6%	57	5.3%	1066
장안구	17	8.1%	103	49.0%	54	25.7%	31	14.8%	5	2.4%	210
권선구	34	15.5%	95	43.2%	48	21.8%	34	15.5%	9	4.1%	220
팔달구	12	8.2%	63	42.9%	54	36.7%	12	8.2%	6	4.1%	147
영통구	24	10.5%	116	50.9%	50	21.9%	31	13.6%	7	3.1%	228
미응답	47	18.0%	106	40.6%	62	23.8%	16	6.1%	30	11.5%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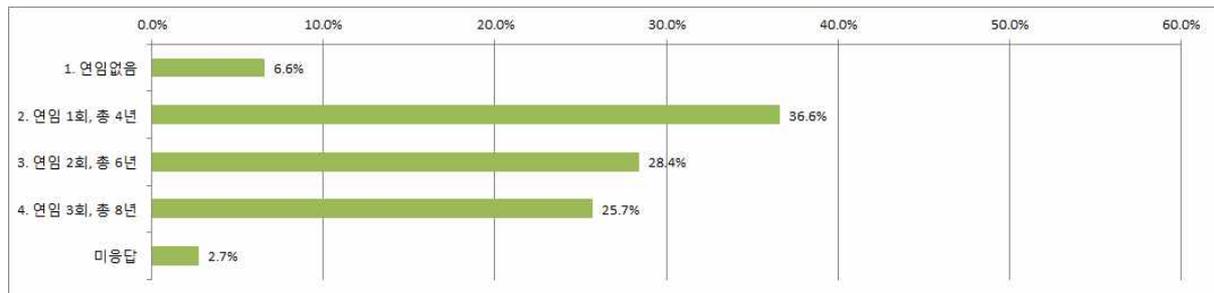
〈그림 3-51〉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한 수원시 결과

2) 참여자 현황

■ 현재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회 위원의 적합한 연임규정에 대한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의 설문조사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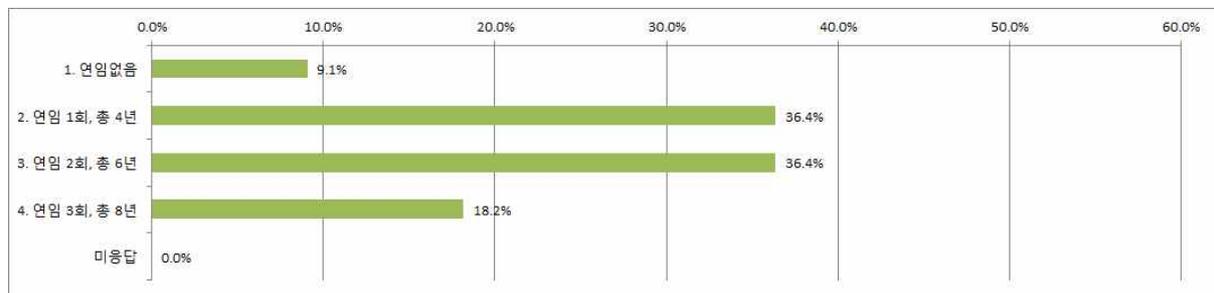
과, ‘연임 1회, 총 4년’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임 2회, 총 6년’이 28.4%, ‘연임 3회, 총 8년’이 25.7%, ‘연임없음’ 6.6%, 미응답 2.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52〉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한 현재 주민자치위원 결과

■ 주민자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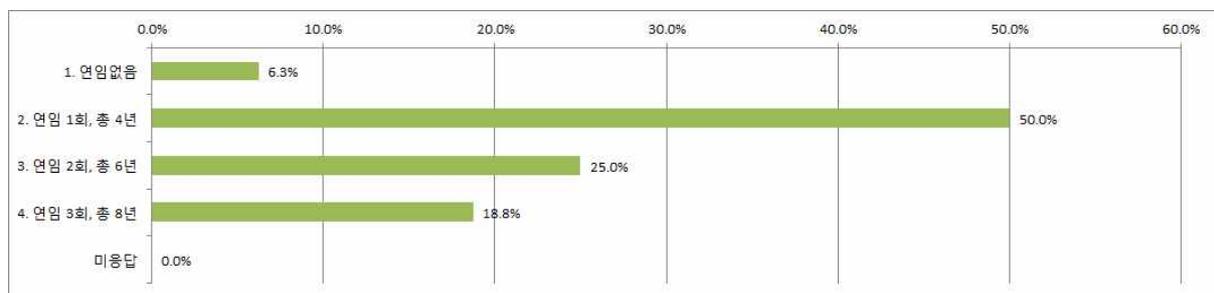
주민자치회의 경우, ‘연임 1회, 총 4년’과 ‘연임 2회, 총 6년’의 비율이 각각 36.4%로 동일하게 차지하였으며, ‘연임 3회, 총 8년’이 18.2%, ‘연임없음’ 9.1%, 미응답 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53〉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한 주민자치회 결과

■ 과거 주민자치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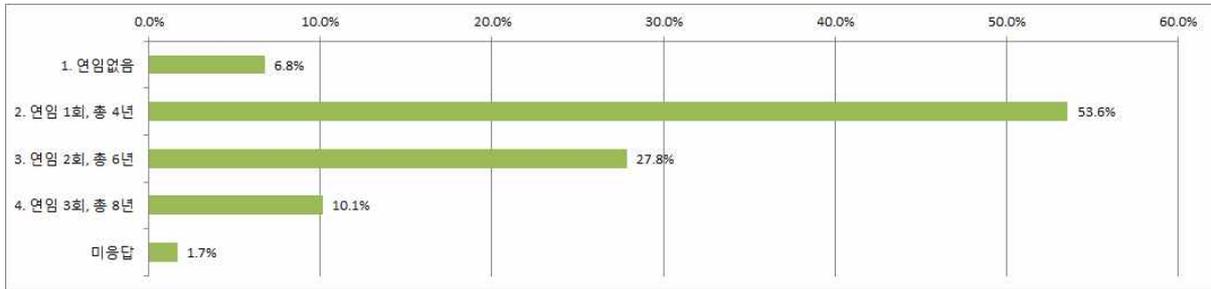
과거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응답자의 주민자치회 연임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연임 1회, 총 4년’이 50%로 높게 차지하였으며, ‘연임 2회, 총 6년’ 25%, ‘연임 3회, 총 8년’ 18.8%, ‘연임없음’ 6.3%, 미응답 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54〉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한 과거 주민자치위원 결과

■ 동 단체원

동 단체원의 경우, ‘연임 1회, 총 4년’ 53.6%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연임 2회, 총 6년’ 27.8%, ‘연임 3회, 총 8년’ 10.1%, ‘연임없음’ 6.8%, 미응답 1.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55〉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한 동 단체원 결과

■ 일반주민

일반주민 또한 연임 1회, 총 4년'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임 2회, 총 6년' 22.2%, '연임없음' 17.1%, '연임 3회, 총 8년' 7.3%, 미응답 3.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56〉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한 일반주민 결과

■ 참여주체 특성 분석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적합한 연임규정에 대한 참여주체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참여 특성 미응답자를 포함한 현재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회, 과거 주민자치위원, 동 단체원, 일반주민 등 총 6개의 참여주체 모두에서 '연임 1회, 총 4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임 1회, 총 4년'과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난 주민자치회를 제외한 현재와 과거에 활동한 주민자치위원과 동 단체원은 '연임 2회, 총 6년' - '연임 3회, 총 8년' - '연임없음'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일반주민의 경우, '연임 2회, 총 6년' - '연임없음' - '연임 3회, 총 8년'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6〉 주민자치회에 적합한 연임규정에 대한 참여주체별 현황

구분	1		2		3		4		미응답		총합
	계(명)	%									
총합계	134	12.6%	483	45.3%	268	25.1%	124	11.6%	57	5.3%	1066
현재 주민자치위원	12	6.6%	67	36.6%	52	28.4%	47	25.7%	5	2.7%	183
주민자치회	1	9.1%	4	36.4%	4	36.4%	2	18.2%		0.0%	11
과거 주민자치위원	1	6.3%	8	50.0%	4	25.0%	3	18.8%		0.0%	16
동 단체원	16	6.8%	127	53.6%	66	27.8%	24	10.1%	4	1.7%	237
일반주민	54	17.1%	158	50.0%	70	22.2%	23	7.3%	11	3.5%	316
미응답	50	16.5%	119	39.3%	72	23.8%	25	8.3%	37	12.2%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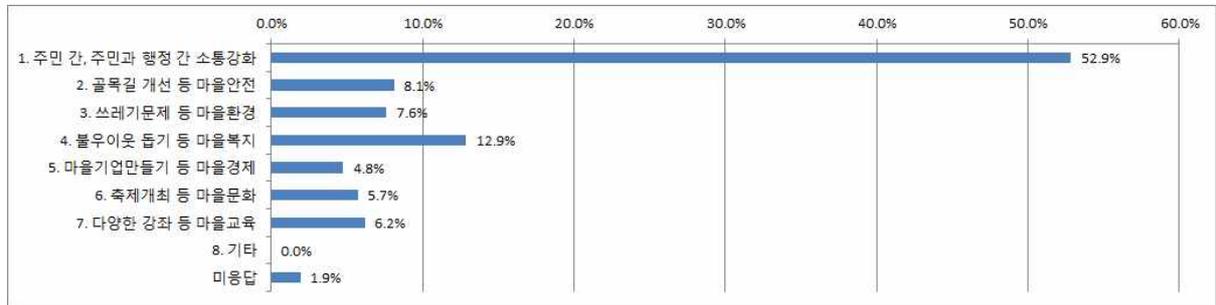
4.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개선 분야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분야는 무엇인가에 대한 수원시 전체 설문 결과,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가 52.9%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불우이웃 돕기 등 마을복지’가 9.7%, ‘쓰레기 문제 등 마을환경’ 8.3%, ‘마을기업만들기 등 마을경제’ 7.8%, ‘골목길 개선 등 마을안전’ 7%, ‘다양한 강좌 등 마을교육’ 5.3%, 미응답 4.8%, ‘축제개최 등 마을문화’ 4.7%, 기타 0% 순으로 나타났다.

1) 지역별 현황

■ 장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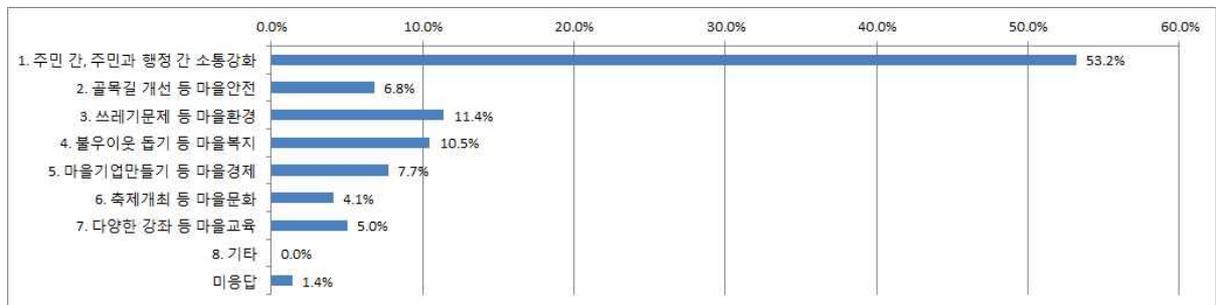
장안구의 설문조사 결과,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가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우이웃 돕기 등 마을복지’가 12.9%, ‘골목길 개선 등 마을안전’ 8.1%, ‘쓰레기 문제 등 마을환경’ 7.6%, ‘다양한 강좌 등 마을교육’ 6.2%, ‘축제개최 등 마을문화’ 5.7%, ‘마을기업만들기 등 마을경제’ 4.8%, 미응답 1.9%, 기타 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57〉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개선 분야에 대한 장안구 현황

■ 권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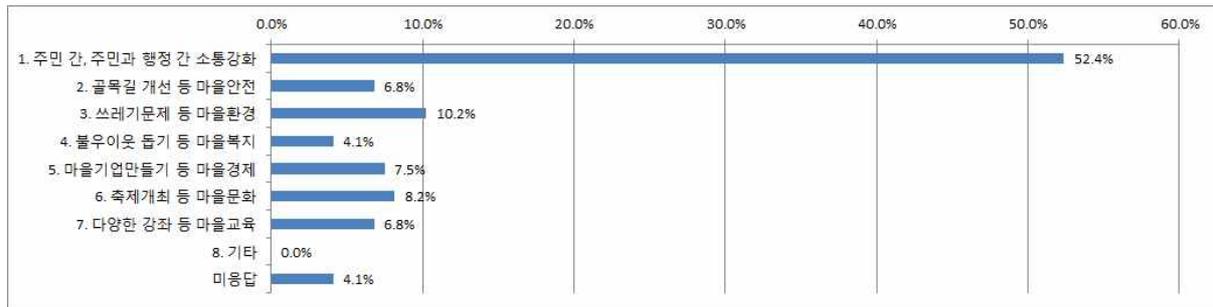
권선구의 경우,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가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쓰레기 문제 등 마을환경’ 11.4%, ‘불우이웃 돕기 등 마을복지’가 10.5%, ‘마을기업만들기 등 마을경제’ 7.7%, ‘골목길 개선 등 마을안전’ 6.8%, ‘다양한 강좌 등 마을교육’ 5%, ‘축제개최 등 마을문화’ 4.1%, 미응답 1.4%, 기타 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58〉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개선 분야에 대한 권선구 현황

■ 팔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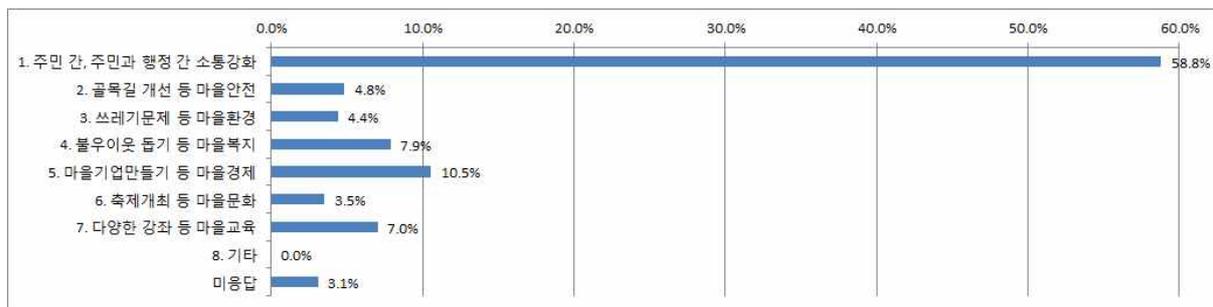
팔달구의 경우,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가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쓰레기 문제 등 마을환경’ 10.2%, ‘축제개최 등 마을문화’ 8.2%, ‘마을기업만들기 등 마을경제’ 7.5%, ‘골목길 개선 등 마을안전’과 ‘다양한 강좌 등 마을교육’이 각각 6.8%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불우이웃 돕기 등 마을복지’와 미응답이 각각 동일하게 4.1%, 기타 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59〉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개선 분야에 대한 팔달구 현황

■ 영통구

영통구는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가 58.8%로 행정구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을기업만들기 등 마을경제’ 10.5%, ‘불우이웃 돕기 등 마을복지’가 7.9%, ‘다양한 강좌 등 마을교육’ 7%, ‘골목길 개선 등 마을안전’ 4.8%, ‘쓰레기 문제 등 마을환경’ 4.4%, ‘축제개최 등 마을문화’ 3.5%, 미응답 3.1%, 기타 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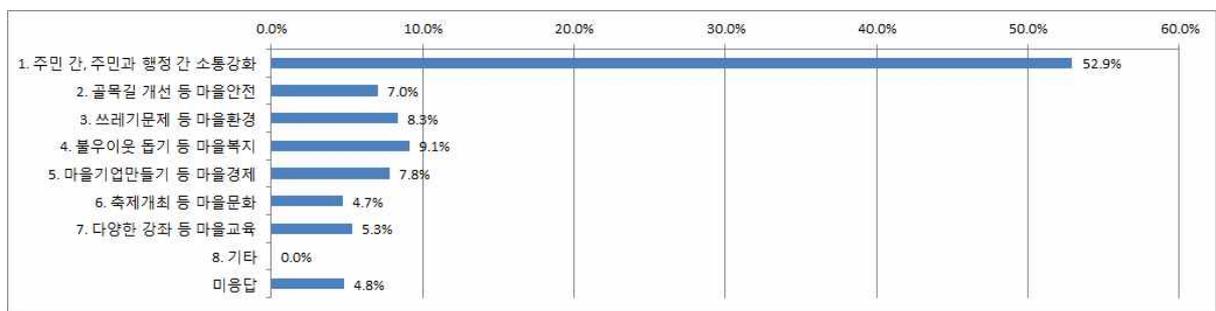
〈그림 3-60〉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개선 분야에 대한 영통구 현황

■ 행정구역 특성 분석

이와 같은 결과로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분야는 무엇인가에 대한 행정구역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거주지역 미응답자를 포함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모두에서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가 가장 높게 차지하였다. 1번째로 가장 높게 나온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의 응답률과 각 행정구역별 2번째로 높게 나온 응답률 보다 약 40% 높게 차이나는 것을 파악하였다. 다음 응답률은 일정한 패턴 없이 행정구역별 각각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로 주민간, 주민과 행정 간의 소통이 강화되는 것이 주민자치회를 통해 개선되었으면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표 3-17〉 주민자치회 개선 분야에 대한 지역별 현황

구분	1		2		3		4		5		6		7		미응답		총합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수원시	564	52.9%	75	7.0%	89	8.3%	97	9.1%	83	7.8%	50	4.7%	57	5.3%	51	4.8%	1066
장안구	111	52.9%	17	8.1%	16	7.6%	27	12.9%	10	4.8%	12	5.7%	13	6.2%	4	1.9%	210
권선구	117	53.2%	15	6.8%	25	11.4%	23	10.5%	17	7.7%	9	4.1%	11	5.0%	3	1.4%	220
팔달구	77	52.4%	10	6.8%	15	10.2%	6	4.1%	11	7.5%	12	8.2%	10	6.8%	6	4.1%	147
영통구	134	58.8%	11	4.8%	10	4.4%	18	7.9%	24	10.5%	8	3.5%	16	7.0%	7	3.1%	228
미응답	125	47.9%	22	8.4%	23	8.8%	23	8.8%	21	8.0%	9	3.4%	7	2.7%	31	11.9%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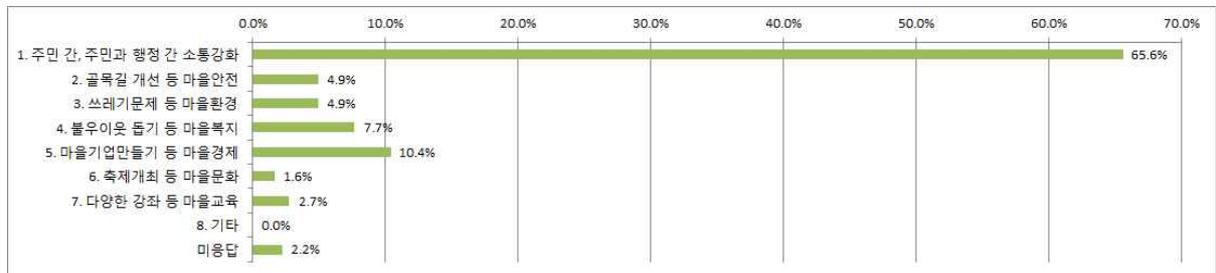


〈그림 3-61〉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개선 분야에 대한 수원시 현황

2) 참여자 현황

■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분야는 무엇인가에 대한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의 설문 결과,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가 65.6%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을기업만들기 등 마을경제’ 10.4%, ‘불우이웃 돕기 등 마을복지’가 7.7%, ‘골목길 개선 등 마을안전’과 ‘쓰레기 문제 등 마을환경’은 각각 4.9% 동일하게 차지하고, ‘다양한 강좌 등 마을교육’ 2.7%, 미응답 2.2%, ‘축제개최 등 마을문화’ 1.6%, 기타 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62〉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개선 분야에 대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 주민자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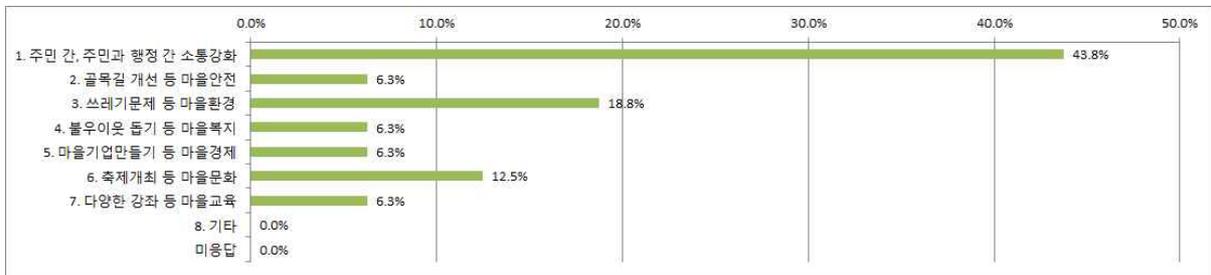
주민자치회의 경우,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가 54.5%로 가장 높았으며, ‘쓰레기 문제 등 마을환경’과 ‘불우이웃 돕기 등 마을복지’는 각각 18.2%로 동일하게 차지하였으며, ‘골목길 개선 등 마을안전’ 9.1%, ‘마을기업만들기 등 마을경제’, ‘축제개최 등 마을문화’, ‘다양한 강좌 등 마을교육’, 기타는 0% 나타났다.



〈그림 3-63〉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개선 분야에 대한 주민자치회 현황

■ 과거 주민자치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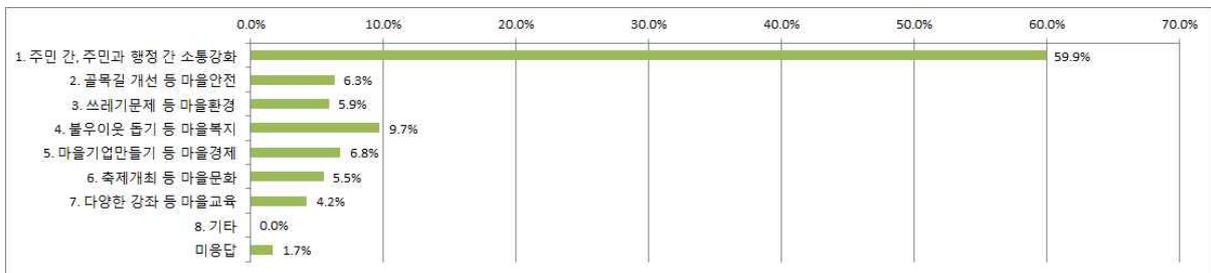
과거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응답자의 설문 결과,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가 43.8%로 가장 높았으며, ‘쓰레기 문제 등 마을환경’ 18.8%, ‘축제개최 등 마을문화’ 12.5%, ‘골목길 개선 등 마을안전’, ‘불우이웃 돕기 등 마을복지’, ‘마을기업만들기 등 마을경제’, ‘다양한 강좌 등 마을교육’이 각각 6.3%로 동일하게 차지하였고 기타와 미응답 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64〉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개선 분야에 대한 과거 주민자치위원 현황

■ 동 단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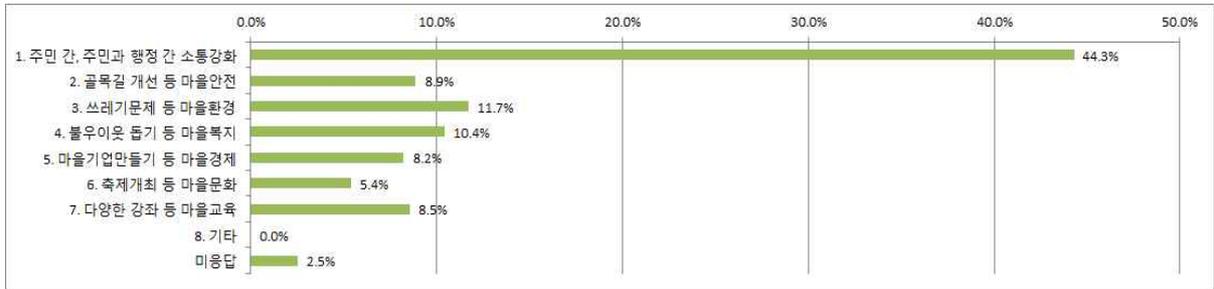
동 단체원의 경우, 59.9%를 차지한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가 가장 높았으며, ‘불우이웃 돕기 등 마을복지’ 9.7%, ‘마을기업만들기 등 마을경제’ 6.8%, ‘골목길 개선 등 마을안전’ 6.3%, ‘쓰레기 문제 등 마을환경’ 5.9%, ‘축제개최 등 마을문화’ 5.5%, ‘다양한 강좌 등 마을교육’ 4.2%, 미응답 1.7%, 기타 0% 순으로 같은 비율의 항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65〉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개선 분야에 대한 동 단체원 현황

■ 일반주민

일반주민 또한,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가 44.3%로 가장 높았으며, ‘쓰레기 문제 등 마을환경’ 11.7%, ‘불우이웃 돕기 등 마을복지’ 10.4%, ‘골목길 개선 등 마을안전’ 8.9%, ‘다양한 강좌 등 마을교육’ 8.5%, ‘마을기업만들기 등 마을경제’ 8.2%, ‘축제개최 등 마을문화’ 5.4%, 미응답 2.5%, 기타 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66〉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개선 분야에 대한 일반주민 현황

■ 참여주체 특성 분석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분야는 무엇인가에 대한 참여주체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참여특성 미응답을 포함한 현재·과거에 활동하였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동 단체원, 일반주민 등 총 6개의 참여주체 모두가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를 가장 높게 개선되었으면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어 다른 문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패턴 없이 주체별 각자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와의 차이가 현저히 크게 나타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3-18〉 주민자치회 개선 분야에 대한 참여주체별 현황

구분	1		2		3		4		5		6		7		미응답		총합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총합계	564	52.9%	75	7.0%	89	8.3%	97	9.1%	83	7.8%	50	4.7%	57	5.3%	51	4.8%	1066
현재 주민자치위원	120	65.6%	9	4.9%	9	4.9%	14	7.7%	19	10.4%	3	1.6%	5	2.7%	4	2.2%	183
주민자치회	6	54.5%	1	9.1%	2	18.2%	2	18.2%		0.0%		0.0%		0.0%		0.0%	11
과거 주민자치위원	7	43.8%	1	6.3%	3	18.8%	1	6.3%	1	6.3%	2	12.5%	1	6.3%		0.0%	16
동 단체원	142	59.9%	15	6.3%	14	5.9%	23	9.7%	16	6.8%	13	5.5%	10	4.2%	4	1.7%	237
일반주민	140	44.3%	28	8.9%	37	11.7%	33	10.4%	26	8.2%	17	5.4%	27	8.5%	8	2.5%	316
미응답	149	49.2%	21	6.9%	24	7.9%	24	7.9%	21	6.9%	15	5.0%	14	4.6%	35	11.6%	303

5.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인식

1) 지역별 현황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수원시 전체 설문조사 결과, 1번(주민자치회우위) ~ 7번(동장우위)에서 ‘4번’이 54.6%로 가장 높게 차지하였으며, ‘5번’이 10.1%, ‘미응답’ 9.8%, ‘3번’ 7.3%, ‘6번’ 6.2%, ‘7번’ 6.1%, ‘2번’ 3.8%, ‘1번’ 2%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주민자치회와 동장의 관계가 동등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 장안구

장안구의 경우, 1번(주민자치회우위) ~ 7번(동장우위) 중 '4번'이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번'이 11.4%, '6번' 8.6%, '3번' 8.1%, '미응답' 6.2%, '7번' 5.7%, '2번' 2.9%, '1번' 2.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안구는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관계는 동등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권선구

권선구는 1번(주민자치회우위) ~ 7번(동장우위) 중 '4번'이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번'이 12.3%, '7번' 7.3%, '3번' 6.8%, '6번' 6.4%, '미응답' 5.5%, '1번' 5%, '2번' 4.5% 순으로 나타났다. 권선구 또한 '4번'의 응답률이 많으므로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관계는 동등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결과로 확인되었다.

■ 팔달구

팔달구 또한, '4번'의 응답률이 58.5%로 가장 높게 차지하였으며, 미응답 10.9%, '5번'과 '6번'이 각각 동일하게 8.2%, '3번' 6.1%, '2번' 4.8%, '7번' 3.4% 순으로 차지하였다. 이에 팔달구는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관계가 동등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 영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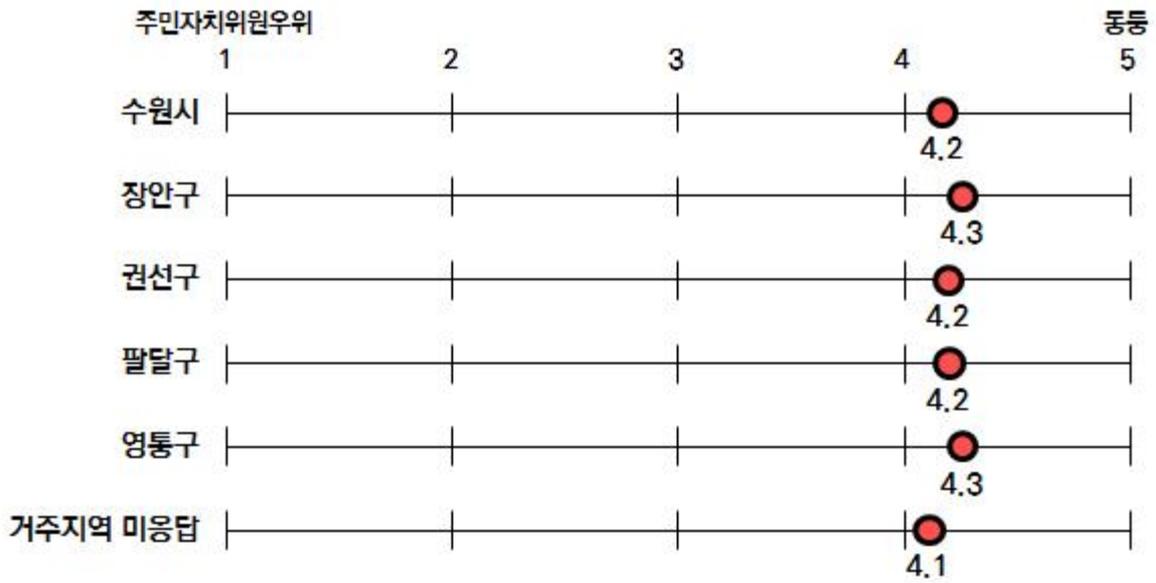
영통구의 경우, 53.5%를 차지한 '4번'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5번'과 '7번'은 각각 10.5%, '3번' 7.9%, '2번' 5.3%, 미응답 4.4%, '1번' 1.3% 순으로 나타나 영통구 또한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관계는 동등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 행정구역 특성 분석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한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행정구역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1번(주민자치회우위) ~ 7번(동장우위) 중 거주지역 미응답자를 포함한 4개의 행정구역(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모두에서 '4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통계를 낸 결과, 장안구와 영통구는 4.3점, 권선구와 팔달구 4.2점, 거주지역 미응답자 4.1점으로 총 수원시 전체 4.2점의 결과가 나타나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관계는 동등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결과로 확인되었다.

〈표 3-19〉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지역별 현황

구분	1		2		3		4		5		6		7		미응답		총합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수원시	21	2.0%	41	3.8%	78	7.3%	582	54.6%	108	10.1%	66	6.2%	65	6.1%	105	9.8%	1066
장안구	5	2.4%	6	2.9%	17	8.1%	115	54.8%	24	11.4%	18	8.6%	12	5.7%	13	6.2%	210
권선구	11	5.0%	10	4.5%	15	6.8%	115	52.3%	27	12.3%	14	6.4%	16	7.3%	12	5.5%	220
팔달구	0	0.0%	7	4.8%	9	6.1%	86	58.5%	12	8.2%	12	8.2%	5	3.4%	16	10.9%	147
영통구	3	1.3%	12	5.3%	18	7.9%	122	53.5%	24	10.5%	15	6.6%	24	10.5%	10	4.4%	228
미응답	2	0.8%	6	2.3%	19	7.3%	144	55.2%	21	8.0%	7	2.7%	8	3.1%	54	20.7%	261



〈그림 3-67〉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수원시 결과

2) 참여자 현황

■ 현재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관계 변화에 대해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의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4번'의 응답률이 5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3번'은 13.1%, '5번' 8.2%, '6번' 6.6%, '1번' 4.4%, 미응답 3.8%, '2번'과 '7번'은 3.3%로 동일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체는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관계가 동등하게 변화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의 경우, '4번'이 36.4%로 나타났으며, '7번'이 27.3%, 미응답이 18.2%, '3번'과 '6번'의 응답률은 9.1%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고, '1번'과 '2번', '5번'은 응답하지 않았다. 주민자치회의 응답 결과,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관계는 동등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7번'의 응답률이 평균 6.1% 보다 21.2%가 높게 나타나 동장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과거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으로 과거에 활동하였던 주체의 응답 결과, '4번'이 가장 높게 차지하였으며, '3번' 25%, '6번' 18.8%, '1번'과 '5번', '7번'은 각각 동일하게 6.3%로 나타나고 '2번'과 미응답은 0%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과거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관계가 동등하게 변화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3번'에 대한 응답률이 평균 7.3% 보다 17.7% 높게 나왔으므로 주민자치회가 약간 우위를 가져야 된다는 의견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동 단체원

동 단체원의 경우, '4번'의 응답률이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번'과 '7번'이 각각 동일하게 9.3%, '6번'이 8.4%, 미응답 6.3%, '2번' 5.1%, '3번'이 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로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의 결과와 같은 주민자치회와 동장은 동등한 관계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 일반주민

일반주민의 경우, '4번'의 응답률이 57.3%로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5번' 14.6%, '7번' 7.3%, 미응답 6.3%, '6번' 6%, '3번' 4.4%, '2번' 3.2%, '1번' 0.9% 순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동 단체원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관계는 동등하게 변화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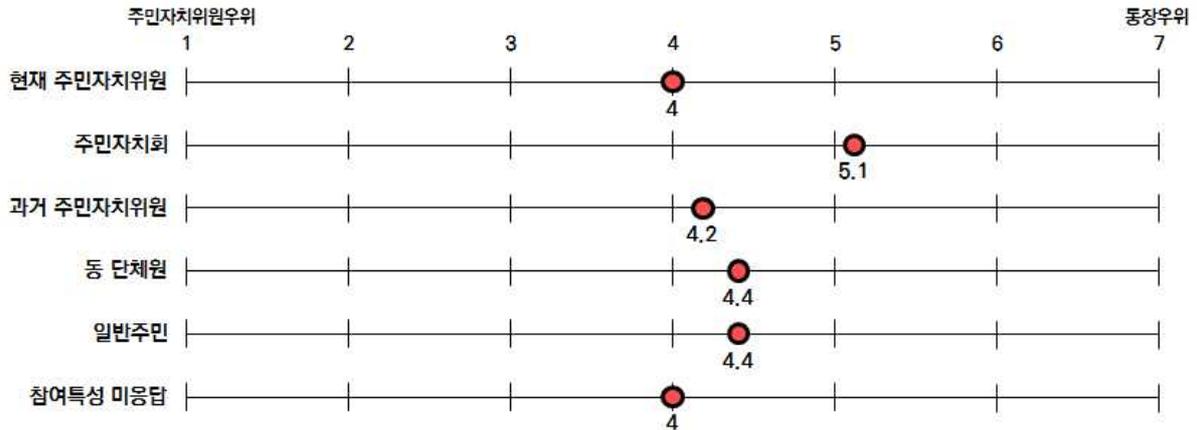
■ 참여주체 특성 분석

각 참여주체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 결과, '1번(주민자치회우위) ~ 7번(동장우위)' 중 참여주체 미응답자까지 포함한 총 6개의 참여주체에서 모두 '4번'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모든 참여주체가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관계는 동등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걸 파악할 수 있었지만, 주민자치회와 과거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주체들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동등한 관계로 변화되는 것에 대한 결과에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살펴보면, 주민자치회의 경우 '4번'의 응답률이 높았지만 '7번'의 응답률이 평균 6.1% 보다 월등히 높은 27.3%가 나타나 동장이 우위로 변하는 것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주민자치위원은 '3번'의 응답률이 평균 7.3% 보다 높은 25%가 나타나 주민자치회 조금이라도 우위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주민자치회에 속해 활동을 하고 있는 주체와 과거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주체에게서 나온 결과로 이들의 경험으로 인해 다른 주체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통계를 낸 결과, 주민자치회의 평균 점수는 5.1점으로 나타났으며, 동단체원과 일반주민은 4.4점, 과거 주민자치위원은 4.2점, 현재 주민자치위원과 참여특성 미응답자는 4점으로 나타나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관계는 동등하게 변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표 3-20〉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관계에 대한 참여주체별 현황

구분	1		2		3		4		5		6		7		미응답		총합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총합계	21	2.0%	41	3.8%	78	7.3%	582	54.6%	108	10.1%	66	6.2%	65	6.1%	105	9.8%	1066
현재 주민자치위원	8	4.4%	6	3.3%	24	13.1%	105	57.4%	15	8.2%	12	6.6%	6	3.3%	7	3.8%	183
주민자치회		0.0%		0.0%	1	9.1%	4	36.4%		0.0%	1	9.1%	3	27.3%	2	18.2%	11
과거 주민자치위원	1	6.3%		0.0%	4	25.0%	6	37.5%	1	6.3%	3	18.8%	1	6.3%		0.0%	16
동 단체원	2	0.8%	12	5.1%	11	4.6%	133	56.1%	22	9.3%	20	8.4%	22	9.3%	15	6.3%	237
일반주민	3	0.9%	10	3.2%	14	4.4%	181	57.3%	46	14.6%	19	6.0%	23	7.3%	20	6.3%	316
미응답	7	2.3%	13	4.3%	24	7.9%	153	50.5%	24	7.9%	11	3.6%	10	3.3%	61	20.1%	303



〈그림 3-68〉 주민자치회와 동장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참여주체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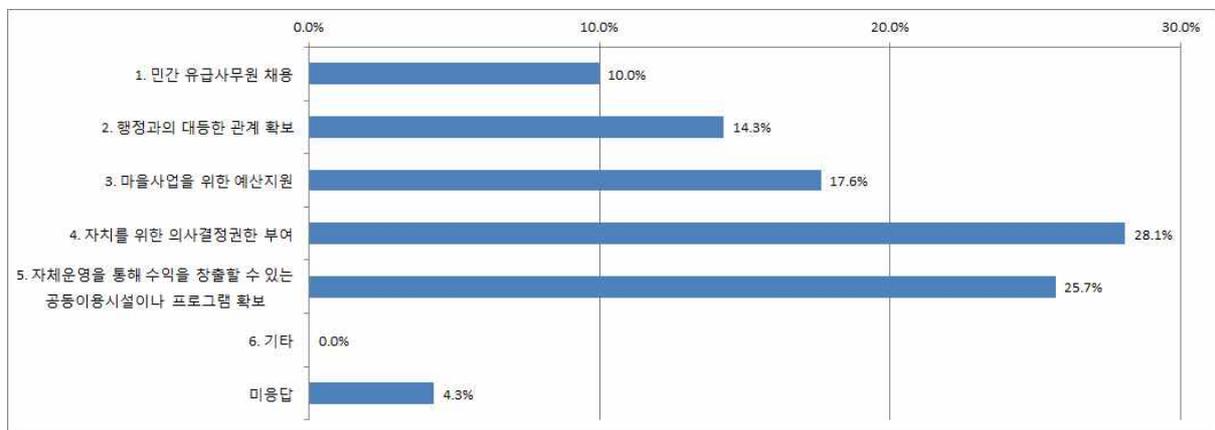
6.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

1) 지역별 현황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한 수원시 전체의 설문조사 결과, ‘자체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이나 프로그램 확보’가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치를 위한 의사결정 권한 부여’가 23.3%, ‘행정과의 대등한 관계 확보’ 18.5%, ‘마을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이 16.9%, ‘민간 유급사무원 채용’ 10.1%, 미응답이 7.9%, 기타 0%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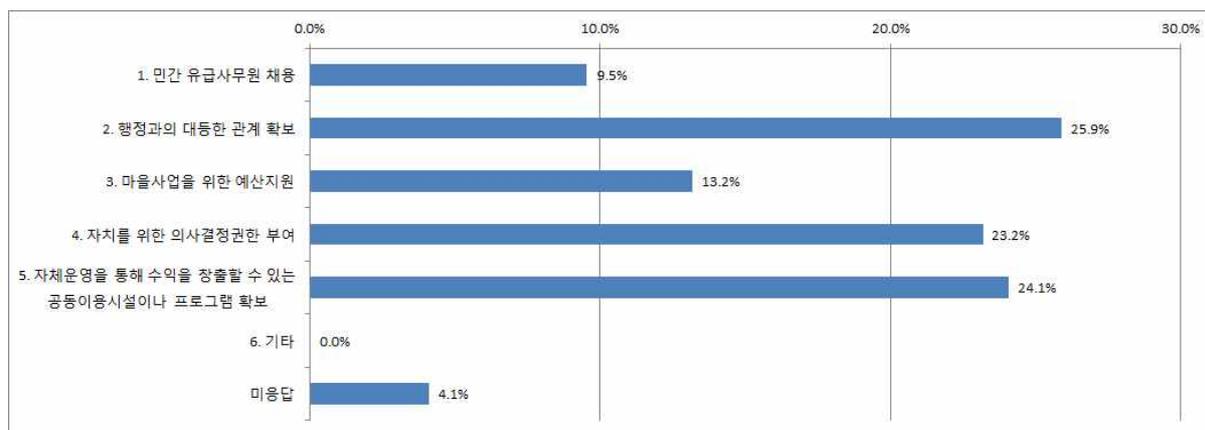
장안구의 경우, ‘자치를 위한 의사결정 권한 부여’가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체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이나 프로그램 확보’가 25.7%, ‘마을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이 17.6%, ‘행정과의 대등한 관계 확보’ 14.3%, ‘민간 유급사무원 채용’ 10%, 미응답이 4.3%, 기타 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69〉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장안구 결과

■ 권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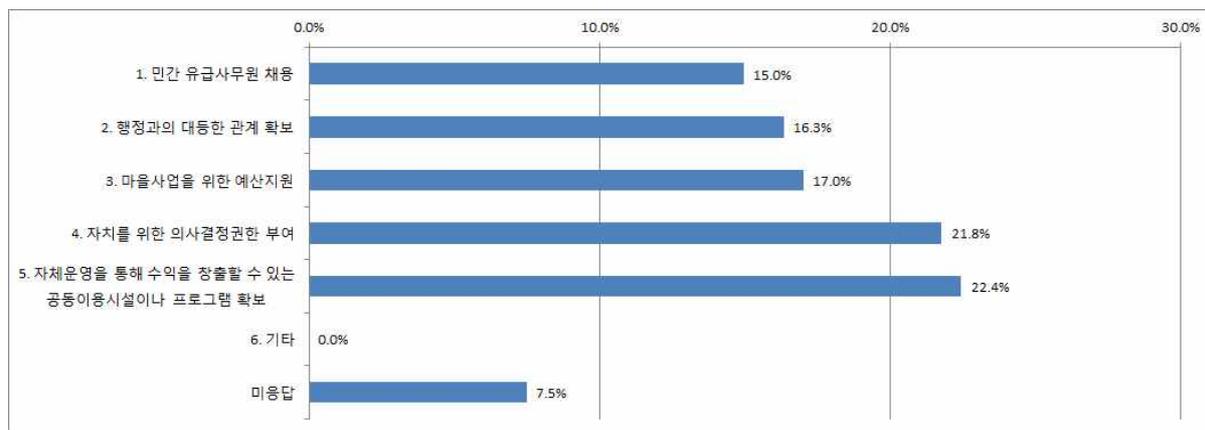
권선구는 '행정과의 대등한 관계 확보'의 응답률이 25.9%로 가장 높게 차지하였으며, '자체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이나 프로그램 확보'가 24.1%, '자치를 위한 의사결정 권한 부여' 23.2%, '마을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13.2%, '민간 유급사무원 채용' 9.5%, 미응답 4.1%, 기타 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70〉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권선구 결과

■ 팔달구

팔달구의 경우, '자체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이나 프로그램 확보'가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치를 위한 의사결정 권한 부여'가 21.8%, '마을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17%, '행정과의 대등한 관계 확보' 16.3%, '민간 유급사무원 채용' 15%, 미응답 7.5%, 기타 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민자치회 운영은 '자체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이나 프로그램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앞서 분석한 권선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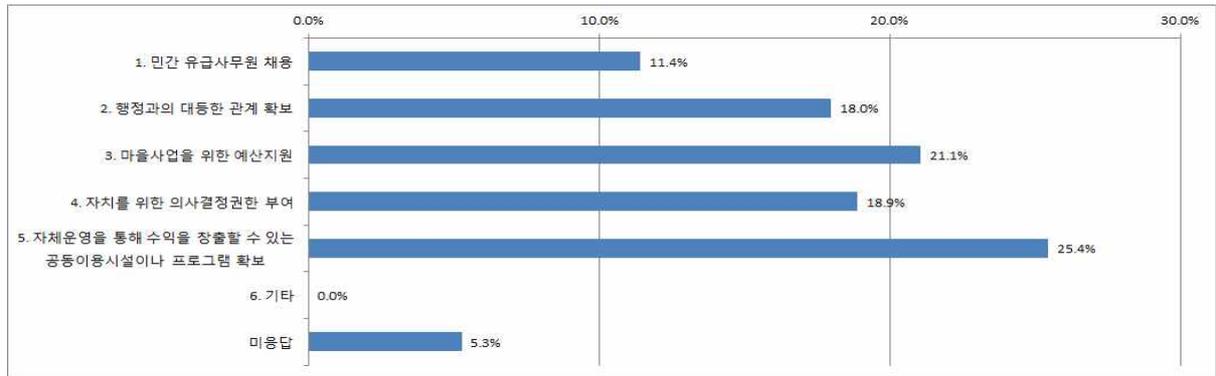


〈그림 3-71〉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팔달구 결과

■ 영통구

영통구는 25.4%를 차지한 '자체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이나 프로그램 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을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이 21.1%, '자치를 위한 의사결정 권한 부여' 18.9%, '행정과의 대등한 관계 확보' 18%, '민간 유급사무원 채용' 11.4%, 미응답 5.3%, 기타 0% 순으로 나타났

다. 영통구 또한 ‘자체운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이나 프로그램 확보’가 주민자치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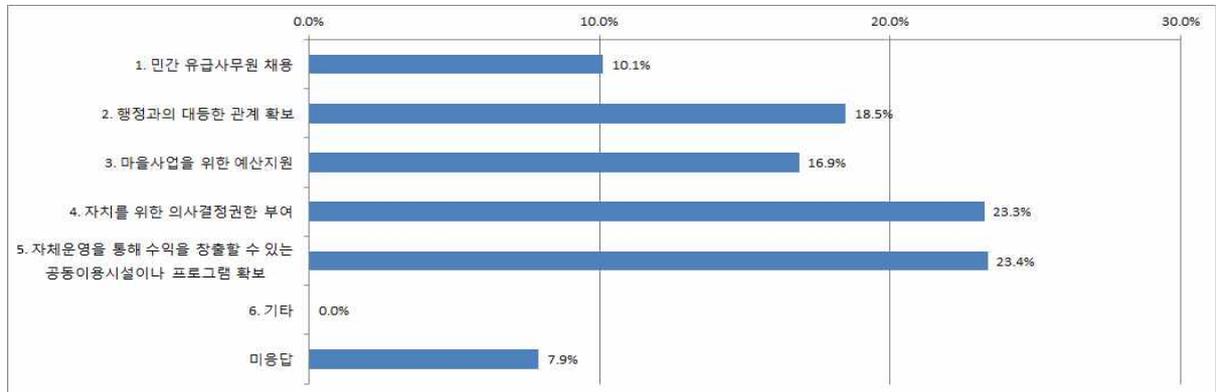
〈그림 3-72〉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영통구 결과

■ 행정구역 특성 분석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행정구역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팔달구와 영통구, 거주지역 미응답자는 ‘자체운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이나 프로그램 확보’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안구는 ‘자치를 위한 의사결정 권한 부여’, 권선구는 ‘행정과의 대등한 관계 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결과가 높게 나타난 지역(팔달구, 영통구, 거주지역 미응답자)의 패턴은 일부분 일정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각각 다른 패턴을 보였으며, 동일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자체운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이나 프로그램 확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3-21〉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 지역별 결과

구분	1		2		3		4		5		6		미응답		총합
	계(명)	%	계(명)	%	계(명)	%									
수원시	108	10.1%	197	18.5%	180	16.9%	248	23.3%	249	23.4%	0	0.0%	84	7.9%	1066
장안구	21	10.0%	30	14.3%	37	17.6%	59	28.1%	54	25.7%	0	0.0%	9	4.3%	210
권선구	21	9.5%	57	25.9%	29	13.2%	51	23.2%	53	24.1%	0	0.0%	9	4.1%	220
팔달구	22	15.0%	24	16.3%	25	17.0%	32	21.8%	33	22.4%	0	0.0%	11	7.5%	147
영통구	26	11.4%	41	18.0%	48	21.1%	43	18.9%	58	25.4%	0	0.0%	12	5.3%	228
미응답	18	6.9%	45	17.2%	41	15.7%	63	24.1%	51	19.5%	0	0.0%	43	16.5%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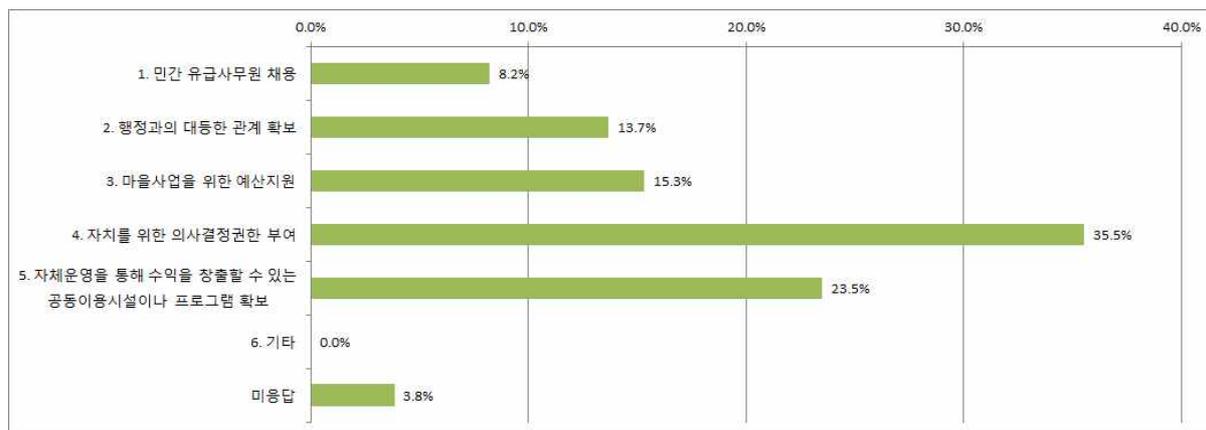


〈그림 3-73〉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수원시 결과

2) 참여자 현황

■ 현재 주민자치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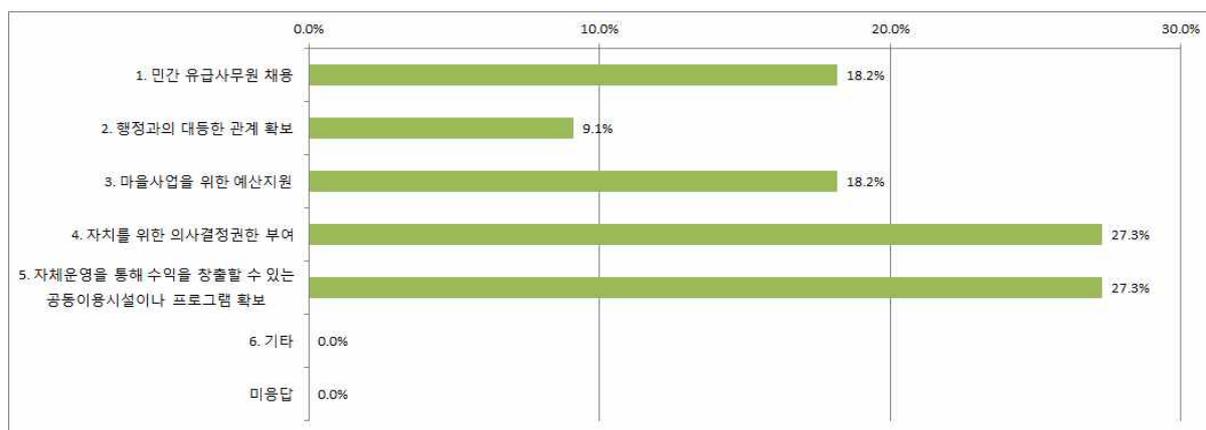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문자의 응답 현황은 ‘자치를 위한 의사결정 권한 부여’가 35.5%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이나 프로그램 확보’가 23.5%, ‘마을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15.3%, ‘행정과의 대등한 관계 확보’ 13.7%, ‘민간 유급사무원 채용’ 8.2%, 미응답 3.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74〉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현재 주민자치위원 결과

■ 주민자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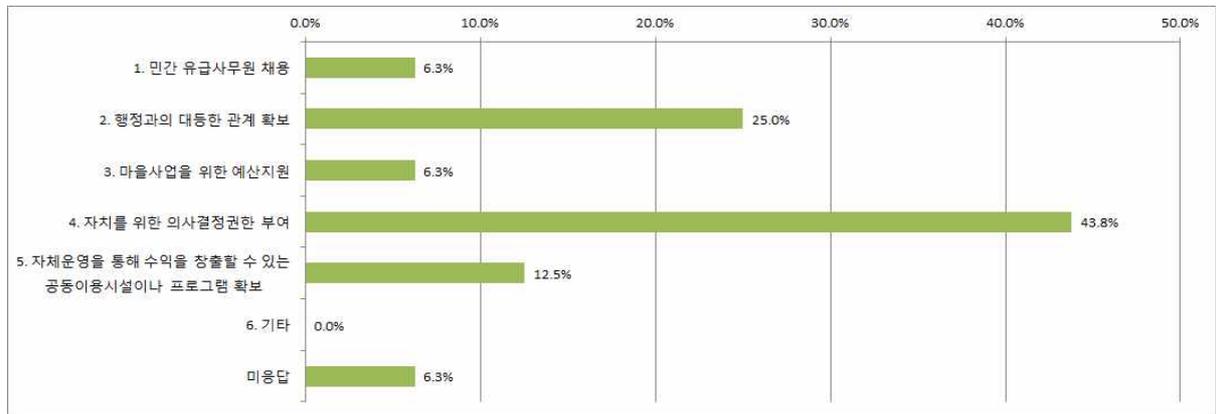
주민자치회의 경우, ‘자치를 위한 의사결정 권한 부여’와 ‘자체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이나 프로그램 확보’는 각각 27.3% 동일한 값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 유급사무원 채용’과 ‘마을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이 동일하게 18.2%, ‘행정과의 대등한 관계 확보’ 9.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75〉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주민자치회 결과

■ 과거 주민자치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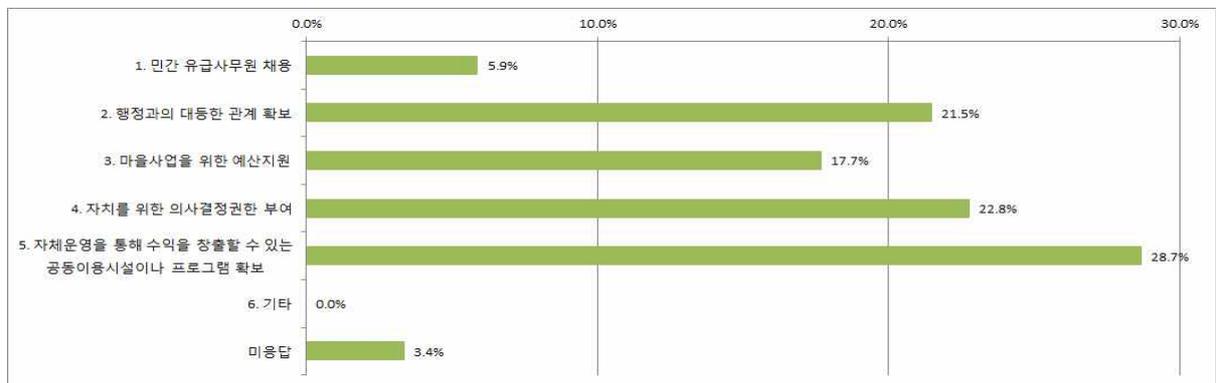
주민자치위원으로 과거에 활동하였던 응답자의 결과, ‘자치를 위한 의사결정 권한 부여’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행정과의 대등한 관계 확보’ 25%, ‘자체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이나 프로그램 확보’ 12.5%, ‘민간 유급사무원 채용’과 ‘마을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미응답’이 각각 동일하게 6.3% 순으로 차지하였다.



〈그림 3-76〉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과거 주민자치위원 결과

■ 동 단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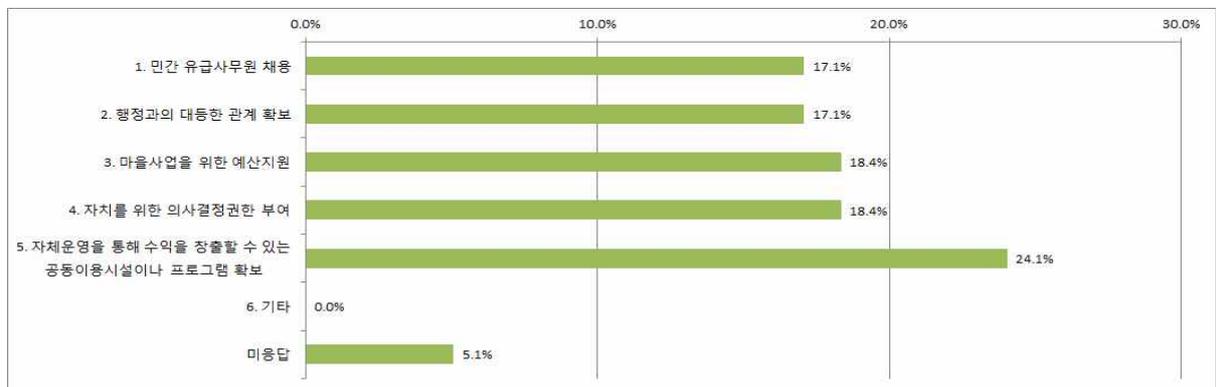
동 단체원의 경우, ‘자체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이나 프로그램 확보’가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치를 위한 의사결정 권한 부여’ 22.8%, ‘행정과의 대등한 관계 확보’ 21.5%, ‘마을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17.7%, ‘민간 유급사무원 채용’ 5.9%, 미응답 3.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77〉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동 단체원 결과

■ 일반주민

일반주민은 ‘자체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이나 프로그램 확보’가 24.1%, ‘마을사업을 위한 예산지원’과 ‘자치를 위한 의사결정 권한 부여’가 18.4%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민간 유급사무원 채용’과 ‘행정과의 대등한 관계 확보’가 각각 17.1%, 미응답 5.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78〉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일반주민 결과

■ 참여주체 특성 분석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한 참여주체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참여특성 미응답자를 포함한 현재 주민자치위원을 활동하고 있는 주체와 과거 활동하였던 주체에서 '자치를 위한 의사결정 권한 부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응답을 보인 2개 주체의 공통점은 주민자치위원을 활동해본 경험이 있는 주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동 단체원과 일반주민에게서는 '자체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이나 프로그램 확보'가 높게 나타났다으며, 주민자치회의 경우 위의 두 응답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참여주체별 결과로 인해 전체 설문결과가 '자체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이나 프로그램 확보'의 응답률이 높았지만, '자치를 위한 의사결정 권한 부여'와의 응답 차이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22〉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 참여주체별 현황

구분	1		2		3		4		5		6		미응답		총합
	계(명)	%	계(명)	%	계(명)	%									
총합계	108	10.1%	197	18.5%	180	16.9%	248	23.3%	249	23.4%	0	0.0%	84	7.9%	1066
현재 주민자치위원	15	8.2%	25	13.7%	28	15.3%	65	35.5%	43	23.5%	0	0.0%	7	3.8%	183
주민자치회	2	18.2%	1	9.1%	2	18.2%	3	27.3%	3	27.3%	0	0.0%	0	0.0%	11
과거 주민자치위원	1	6.3%	4	25.0%	1	6.3%	7	43.8%	2	12.5%	0	0.0%	1	6.3%	16
동 단체원	14	5.9%	51	21.5%	42	17.7%	54	22.8%	68	28.7%	0	0.0%	8	3.4%	237
일반주민	54	17.1%	54	17.1%	58	18.4%	58	18.4%	76	24.1%	0	0.0%	16	5.1%	316
미응답	22	7.3%	62	20.5%	49	16.2%	61	20.1%	57	18.8%	0	0.0%	52	17.2%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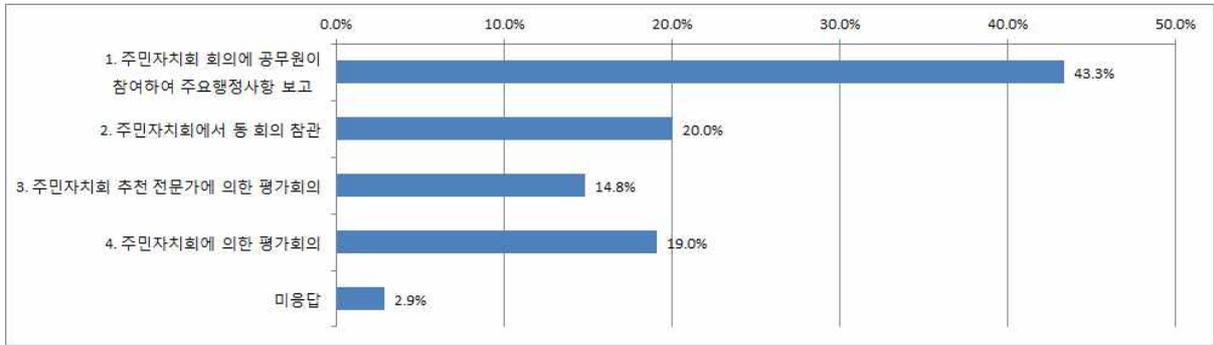
7. 동 행정 평가방식의 적합성

1) 지역별 현황

주민자치회가 동 행정을 평가하는 바람직한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자치회 회의에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요 행정사항 보고'가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자치회에서 동 회의 참관'이 23.2%, '주민자치회에 의한 평가회의' 19.8%, '주민자치회 추천 전문가에 의한 평가회의' 17.4%, 미응답이 7.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원시는 주민자치회가 동 행정을 평가하는 방식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요 행정사항 보고'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장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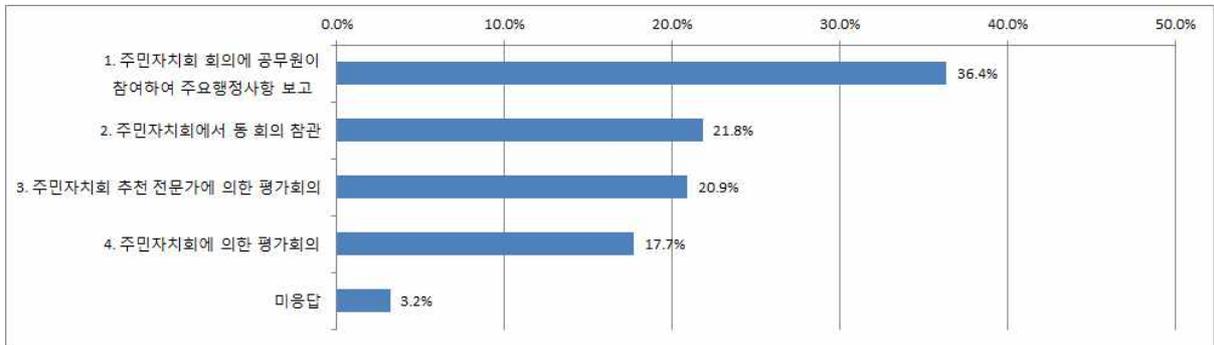
장안구의 경우, '주민자치회 회의에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요 행정사항 보고'가 43.3%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자치회에서 동 회의 참관'이 20%, '주민자치회에 의한 평가회의'가 19%, '주민자치회 추천 전문가에 의한 평가회의' 14.8%, 미응답 2.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79> 동 행정 평가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장안구 결과

■ 권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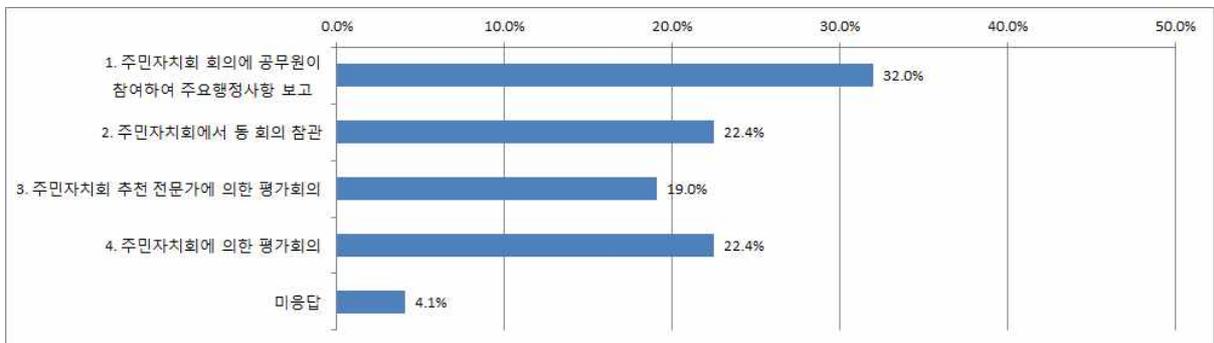
권선구는 ‘주민자치회 회의에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요 행정사항 보고’가 3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동 회의 참관’ 21.8%, ‘주민자치회 추천 전문가에 의한 평가회의’ 20.9%, ‘주민자치회에 의한 평가회의’ 17.7%, 미응답 3.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80> 동 행정 평가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권선구 결과

■ 팔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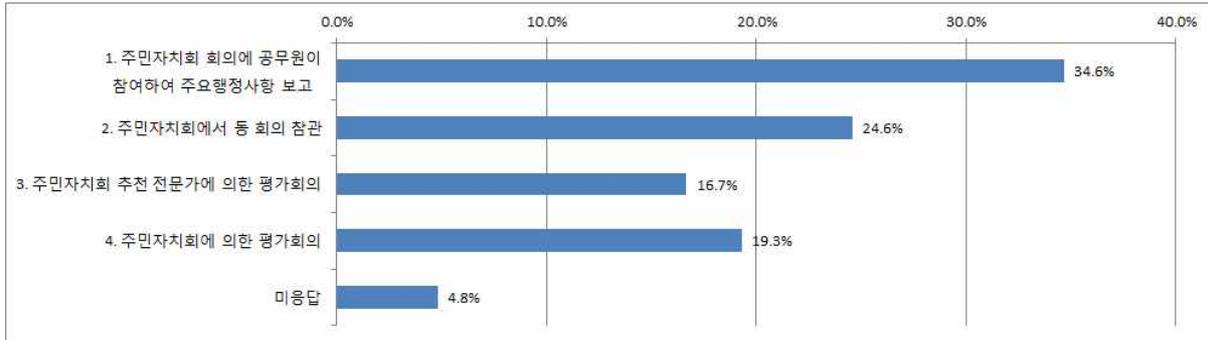
팔달구의 경우, 32%를 차지한 ‘주민자치회 회의에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요 행정사항 보고’가 가장 높았으며, ‘주민자치회에서 동 회의 참관’과 ‘주민자치회에 의한 평가회의’가 각각 동일하게 22.4%씩 나타났고 ‘주민자치회 추천 전문가에 의한 평가회의’ 19%, 미응답 4.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81> 동 행정 평가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팔달구 결과

■ 영통구

영통구의 경우, '주민자치회 회의에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요 행정사항 보고'가 34.6%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자치회에서 동 회의 참관' 24.6%, '주민자치회에 의한 평가회의' 19.3%, '주민자치회 추천 전문가에 의한 평가회의' 16.7%, 미응답 4.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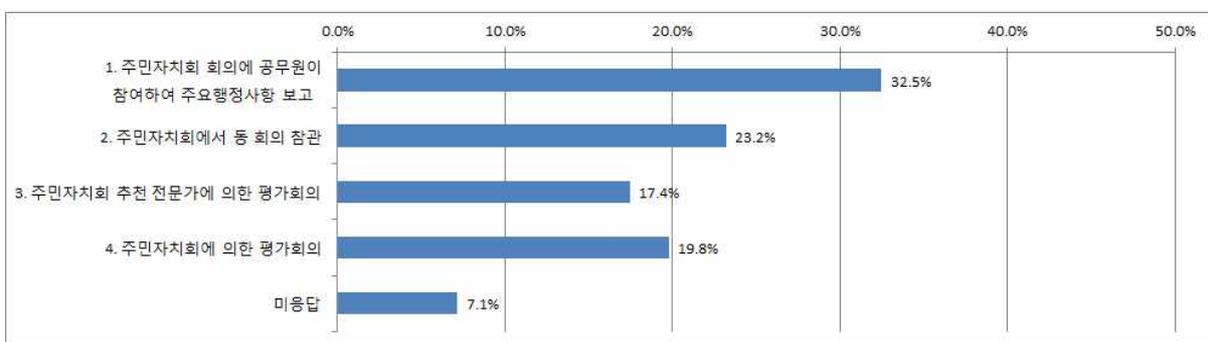
〈그림 3-82〉 동 행정 평가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영통구 결과

■ 행정구역 특성 분석

주민자치회가 동 행정을 평가하는 바람직한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행정구역별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한 특성을 분석한 결과, 4개의 행정구역(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에서 모두 '주민자치회 회의에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요 행정사항 보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번째로 높은 응답률은 '주민자치회에서 동 회의 참관'까지 모두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후의 패턴은 동일하지 않았지만 주민자치회가 동 행정을 평가하는 방식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요 행정사항 보고'가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3-23〉 주민자치회의 동 행정 평가 방식에 대한 지역별 현황

구분	1		2		3		4		미응답		총합
	계(명)	%									
수원시	346	32.5%	247	23.2%	186	17.4%	211	19.8%	76	7.1%	1066
장안구	91	43.3%	42	20.0%	31	14.8%	40	19.0%	6	2.9%	210
권선구	80	36.4%	48	21.8%	46	20.9%	39	17.7%	7	3.2%	220
팔달구	47	32.0%	33	22.4%	28	19.0%	33	22.4%	6	4.1%	147
영통구	79	34.6%	56	24.6%	38	16.7%	44	19.3%	11	4.8%	228
미응답	49	18.8%	68	26.1%	43	16.5%	55	21.1%	46	17.6%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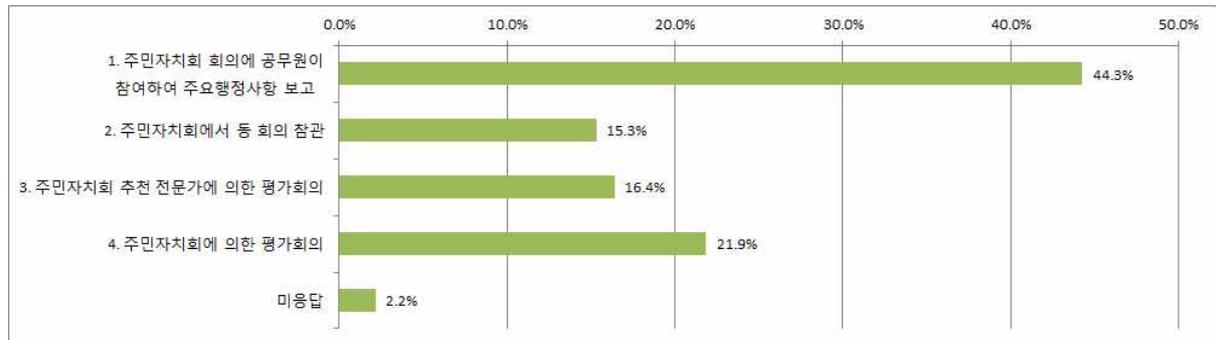


〈그림 3-83〉 동 행정 평가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수원시 결과

2) 참여자 현황

■ 현재 주민자치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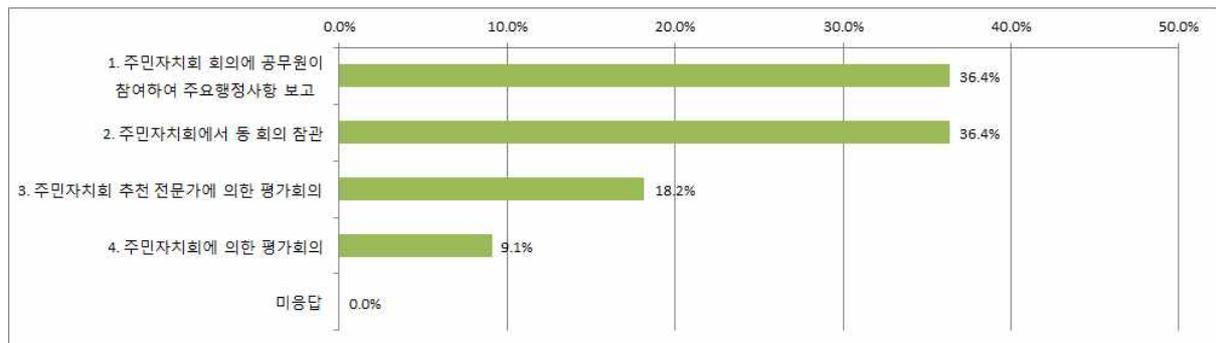
주민자치회가 동 행정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체의 조사 결과, ‘주민자치회 회의에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요행정사항 보고’가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자치회에 의한 평가회의’ 21.9%, ‘주민자치회 추천 전문가에 의한 평가회의’ 16.4%, ‘주민자치회에서 동 회의 참관’ 15.3%, 미응답 2.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84〉 동 행정 평가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현재 주민자치위원 결과

■ 주민자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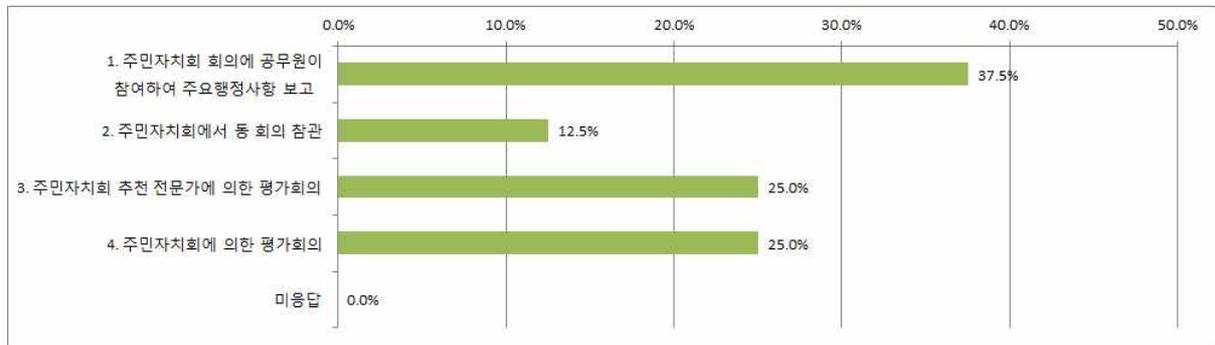
주민자치회의 경우, ‘주민자치회 회의에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요행정사항 보고’와 ‘주민자치회에서 동 회의 참관’이 각각 동일하게 36.4%로 가장 높게 차지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추천 전문가에 의한 평가회의’가 18.2%, ‘주민자치회에 의한 평가회의’ 9.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85〉 동 행정 평가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주민자치회 결과

■ 과거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으로 과거에 활동하였던 주체들의 주민자치회가 동 행정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결과, ‘주민자치회 회의에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요행정사항 보고’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자치회 추천 전문가에 의한 평가회의’와 ‘주민자치회에 의한 평가회의’ 각각 25%로 나타나고, ‘주민자치회에서 동 회의 참관’이 12.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86〉 동 행정 평가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과거 주민자치위원 결과

■ 동 단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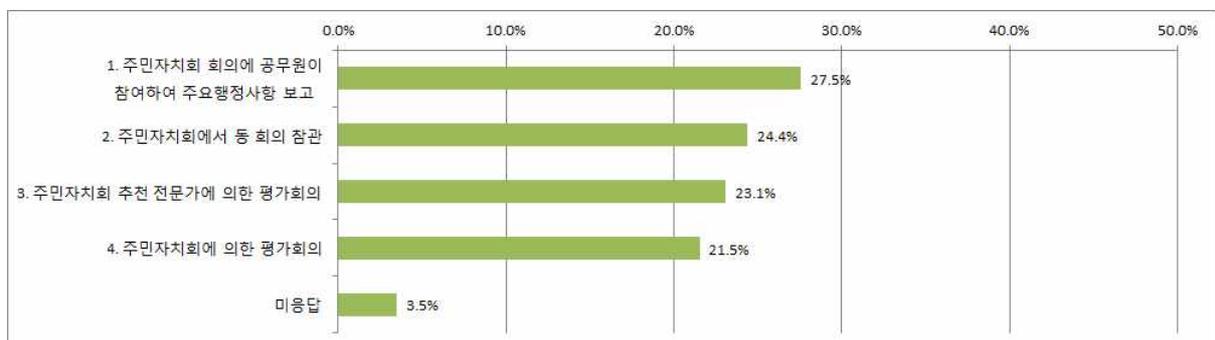
동 단체원의 경우, ‘주민자치회 회의에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요행정사항 보고’가 35.4%를 차지하였으며, ‘주민자치회에서 동 회의 참관’이 26.6%, ‘주민자치회에 의한 평가회의’ 19%, ‘주민자치회 추천 전문가에 의한 평가회의’ 16%, 미응답 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87〉 동 행정 평가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동 단체원 결과

■ 일반주민

일반주민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요행정사항 보고’가 27.5%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자치회에서 동 회의 참관’ 24.4%, ‘주민자치회 추천 전문가에 의한 평가회의’ 23.1%, ‘주민자치회에 의한 평가회의’ 21.5%, 미응답 3.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88〉 동 행정 평가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일반주민 결과

■ 참여주체 특성 분석

참여주체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동 행정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응답 특성을 살펴본 결과, 참여특성 미응답을 포함한 현재·과거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 동 단체원, 일반주민 모두가 '주민자치회 회의에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요행정사항 보고'에 대해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 후 응답 패턴은 각각 다르지만 앞서 파악한 행정구역별 설문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동 행정을 평가하는 방식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요행정사항 보고'가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표 3-24〉 주민자치회의 동 행정 평가 방식에 대한 참여주체별 현황

구분	1		2		3		4		미응답		총합
	계(명)	%									
총합계	346	32.5%	247	23.2%	186	17.4%	211	19.8%	76	7.1%	1066
현재 주민자치위원	81	44.3%	28	15.3%	30	16.4%	40	21.9%	4	2.2%	183
주민자치회	4	36.4%	4	36.4%	2	18.2%	1	9.1%		0.0%	11
과거 주민자치위원	6	37.5%	2	12.5%	4	25.0%	4	25.0%		0.0%	16
동 단체원	84	35.4%	63	26.6%	38	16.0%	45	19.0%	7	3.0%	237
일반주민	87	27.5%	77	24.4%	73	23.1%	68	21.5%	11	3.5%	316
미응답	84	27.7%	73	24.1%	39	12.9%	53	17.5%	54	17.8%	303

8. 주민자치회 전환 시 참여 여부

1) 지역별 현황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 참여하실 의향이 있느냐에 대한 수원시 전체 설문 결과, '보통'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가 23%, '참여의사 없음'이 19.7%, '전혀 참여의사 없음' 7.7%, '반드시 참여' 5.9%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안구

장안구의 참여의사 설문 결과, '보통'이 34.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24.3%, '참여의사 없음' 20.5%, '전혀 참여의사 없음' 10%, '반드시 참여' 8.1% 순으로 나타났다.

■ 권선구

권선구의 경우, 36.8%를 차지한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가 27.7%, '참여의사 없음' 20%, '전혀 참여의사 없음' 7.3%, '반드시 참여' 6.4% 순으로 나타났다.

■ 팔달구

팔달구는 '보통'이 43.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의사 없음' 23.1%, '참여' 20.4%, '전혀 참여의사 없음' 5.4%, '반드시 참여' 20.4% 순으로 나타났다.

■ 영통구

영통구의 경우, ‘보통’이 41.2% 로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가 25.4%, ‘참여의사 없음’ 15.8%, ‘전혀 참여의사 없음’ 7.5%, ‘반드시 참여’ 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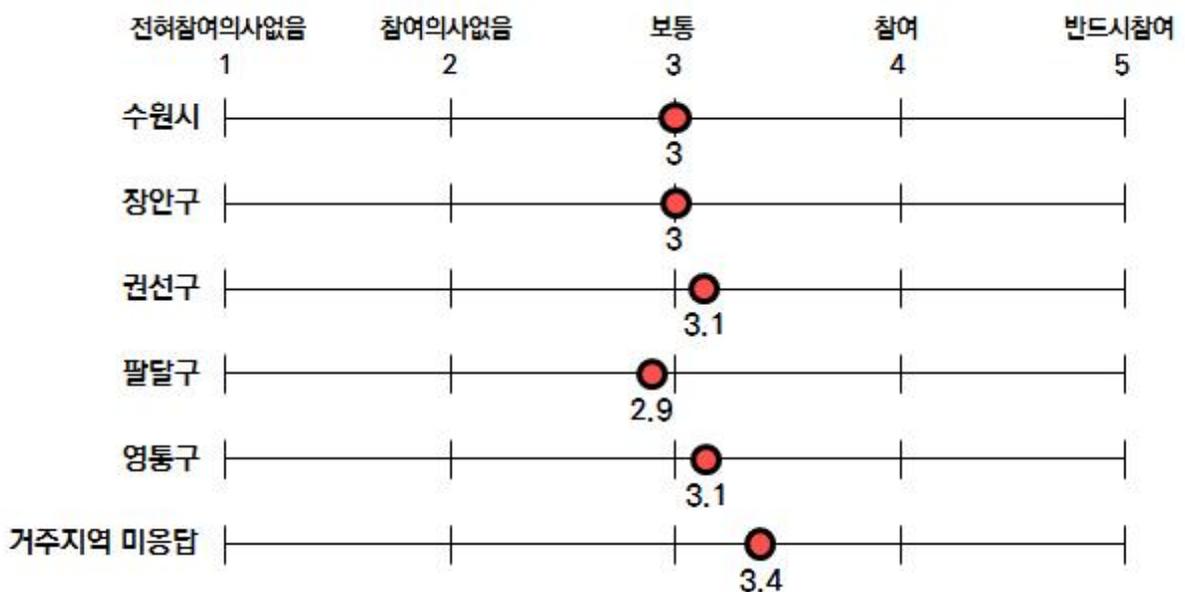
■ 행정구역 특성 분석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 참여하실 의향이 있느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4개의 행정구역과 거주지역 미응답 모두에서 ‘보통’의 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안구와 권선구, 영통구는 ‘보통 - 참여- 참여의사 없음 - 전혀 참여의사 없음 - 반드시 참여’로 모든 응답률의 패턴이 같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팔달구와 거주지역은 ‘보통 - 참여의사 없음 - 참여- 전혀 참여의사 없음 - 반드시 참여’으로 같은 응답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전체 통계를 낸 결과, 거주지역 미응답은 3.4점, 권선구와 영통구는 3.1점, 장안구는 3점, 팔달구는 2.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3점으로 통계되어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 ‘보통’으로 참여하겠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3-25〉 주민자치회에 전환시 참여 여부에 대한 지역별 현황

구분	1		2		3		4		5		미응답		총합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계(명)	%	
수원시	82	7.7%	210	19.7%	401	37.6%	245	23.0%	63	5.9%	65	6.1%	1066
장안구	21	10.0%	43	20.5%	73	34.8%	51	24.3%	17	8.1%	5	2.4%	210
권선구	16	7.3%	44	20.0%	81	36.8%	61	27.7%	14	6.4%	4	1.8%	220
팔달구	8	5.4%	34	23.1%	64	43.5%	30	20.4%	6	4.1%	5	3.4%	147
영통구	17	7.5%	36	15.8%	94	41.2%	58	25.4%	16	7.0%	7	3.1%	228
미응답	20	7.7%	53	20.3%	89	34.1%	45	17.2%	10	3.8%	44	16.9%	261



〈그림 3-89〉 주민자치회 전환시 참여여부에 대한 수원시 결과

2) 참여자 현황

■ 현재 주민자치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체들에게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 참여 의사를 파악한 결과, '참여'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 24.6%, '반드시 참여'가 15.3%, '참여의사 없음' 8.7%, '전혀 참여의사 없음' 1.1% 순으로 나타났다.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의 경우, '보통'이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가 36.4%, '참여의사 없음' 9.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참여의사 없음'과 '반드시 참여'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 과거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으로 과거에 활동하였던 주체의 설문조사 결과, '참여'가 31.3%로 가장 높게 차지하였으며, '참여의사 없음' 25%, '보통' 18.8%, '전혀 참여의사 없음'과 '반드시 참여'가 각각 12.5% 동일하게 나타났다.

■ 동 단체원

동 단체원은 43%를 차지한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 22.4%, '참여의사 없음' 16.9%, '전혀 참여의사 없음'과 '반드시 참여'가 각각 8%로 과거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주체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일반주민

일반주민의 경우, '보통'이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의사 없음'이 28.2%, '전혀 참여의사 없음' 12.3%, '참여' 9.8%, '반드시 참여' 0.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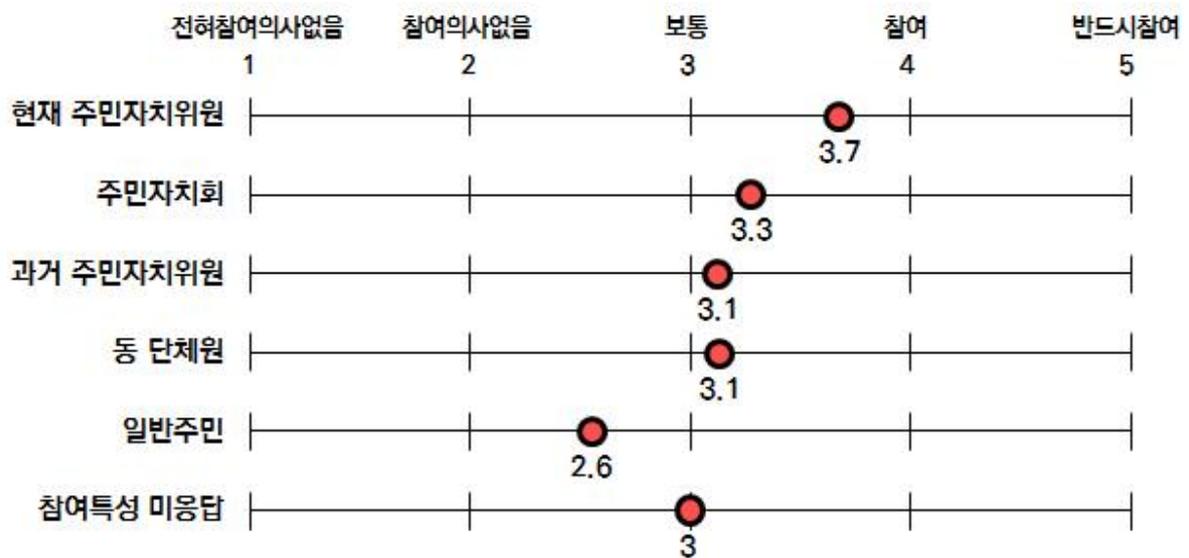
■ 참여주체 특성 분석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 참여하실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참여주체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와 과거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주체에서는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자치회와 동 단체원, 일반주민, 참여특성 미응답자는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앞서 분석하였던 행정구역에서는 모두 '보통'이라고 나온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으로 인해 생긴 인식과 주체 성격의 차이로 예상되어 '참여' 의사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전체 통계를 낸 결과, 현재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3.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주민자치회 3.3점, 과거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주체와 동 단체원은 각각 3.1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참여특성 미응답은 3점, 일반주민은 2.6점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참여주체 또한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 참여할 의향이 '보통'이지만 '참여'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된다.

〈표 3-26〉 주민자치회 전환 시 참여 여부에 대한 참여주체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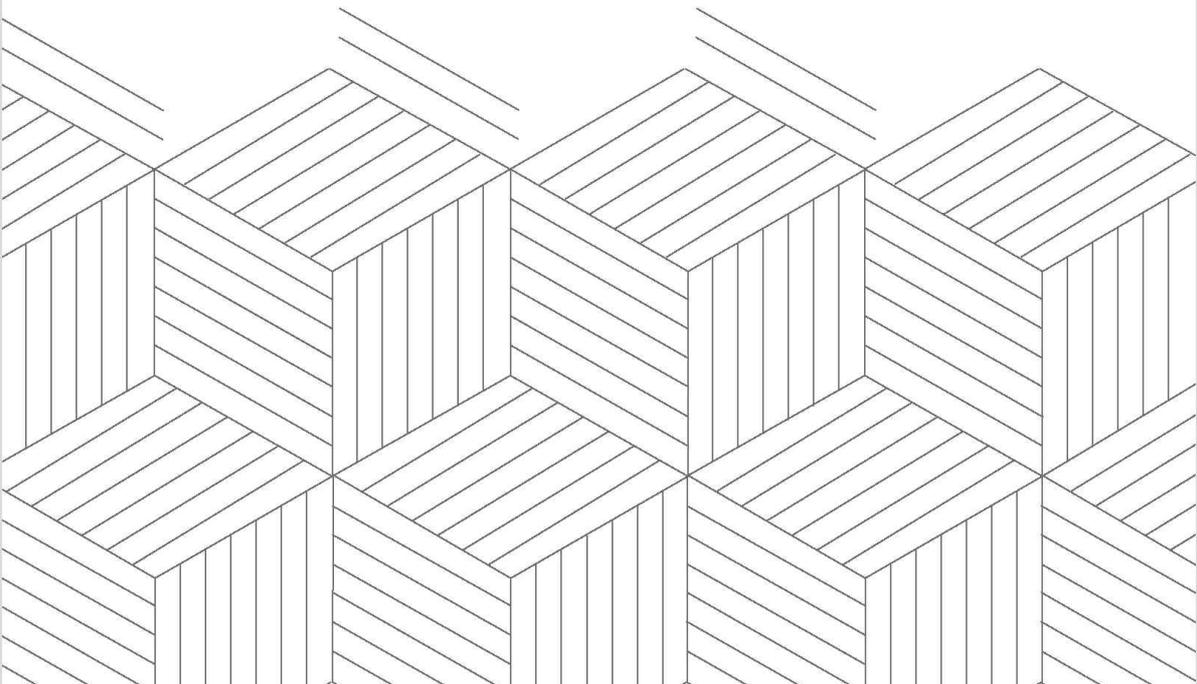
구분	1		2		3		4		5		미응답		총합
	계(명)	%											
총합계	82	7.7%	210	19.7%	401	37.6%	245	23.0%	63	5.9%	65	6.1%	1066
현재 주민자치위원	2	1.1%	16	8.7%	45	24.6%	88	48.1%	28	15.3%	4	2.2%	183
주민자치회		0.0%	1	9.1%	6	54.5%	4	36.4%		0.0%		0.0%	11
과거 주민자치위원	2	12.5%	4	25.0%	3	18.8%	5	31.3%	2	12.5%		0.0%	16
동 단체원	19	8.0%	40	16.9%	102	43.0%	53	22.4%	19	8.0%	4	1.7%	237
일반주민	39	12.3%	89	28.2%	145	45.9%	31	9.8%	2	0.6%	10	3.2%	316
미응답	20	6.6%	60	19.8%	100	33.0%	64	21.1%	12	4.0%	47	15.5%	303



〈그림 3-90〉 주민자치회 전환시 참여여부에 대한 참여주체별 결과

제4장 정책 제언

- 제1절 주민자치회 이해확산 정책 추진
- 제2절 주민자치회 관련 다양한 학습체계 및 사업 지원
- 제3절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화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실시



제4장

정책제언

제1절 주민자치회 이해 확산 정책 추진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의해 행정동에 설치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환되는 행정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 성격을 지님
-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의 특성상 주민자치위원회 대비 주민자치회 정책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5점 만점에 3.4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는 5점 만점에 3.1점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주민자치회 개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전개가 요구됨
 - 주민자치위원 등 기존 단체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순회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수준은 일반주민과 단체원 간에 상당한 차이를 발생하고 있음(주민자치위원 3.6, 동단체원 3.2, 일반주민 2.8)
 -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동별 이론교육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일정수준 이상 기여하였음을 의미함
- 학습과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참여주체 발굴
 -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민운동으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주민운동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현실인식으로부터 출발함
 - 지역에 대한 인식이 강화하며 주민에 대한 지도력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지역의 가능성과 비전을 찾아 행동하며 주민조직화를 성취할 수 있음
 - 따라서 주민자치회 활동에서의 시작은 지역에 대한 인식 강화를 통한 주민조직화이며, 이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민에 대한 교육이 있음
 - 주민교육이 주민조직화를 위한 필수도구이자 중심과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지역의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고, 주민조직을 운영하며 자신의 지역을 변화시켜나가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커리큘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주민교육을 통한 주민조직화는 주민의 자발성과 참여가 이기주의로 변질되거나, 일부 사람에 의해 독단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것을 제한함
 - 단, 주민교육이 단순한 이론교육으로 추진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교육 훈련이 된다면 교육의 효과는 최소화될 수 있음

-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참여주체 발굴, 자치계획 수립, 마을총회 개최 등의 과정에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일상적인 주민자치회 활동과 실천과정 속에서 교육훈련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 주민자치회의 시범운영을 자칫 주민자치회의 참여자를 모집한 이후, 모집된 참여자에 의해 운영되는 과정부터 시범운영으로 인식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와 같은 협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주민조직화 과정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참여주체를 발굴하는 과정 자체를 주민자치회의 시범운영으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주민자치회 참여주체의 발굴과정을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주민교육과 결합하는 방안이 요구됨
 - 수원시는 2010년 마을르네상스 정책을 추진 시 마을르네상스에 대한 이해와 마을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의 실습교육 등을 사전에 추진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을르네상스 참여주체로 진입·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마을르네상스 정책에 참여하는 방법은 교육, 공모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입하는데, 통상 교육을 통해서 마을르네상스 정책에 진입할 경우 자발성, 적극성, 지속성에서 높은 효과가 있었음
-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 추진
 -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제 발굴 워크숍, 동네한바퀴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제 발굴 워크숍 교육은 지역 내 학부모 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지역문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이 중 주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문제를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교육임
 - 지역문제 발굴을 위한 워크숍(2시간),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론교육(1시간)으로 추진
 -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서의 역량강화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로서 주민자치회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
 - 동네한바퀴 교육은 지역기반의 문제 중심 학습을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자치의 기초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지역주민과 현장을 답사하고 현장에서 찾은 문제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참여자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상호 간에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과정으로서 지역기반의 문제를 찾는데 용이한 방법임
 - 동네한바퀴(현장조사, 2시간), 필드워크숍(문제종합, 1시간)으로 구성하여 운영 가능하도록 함



일반시민 대상 주민자치회 교육 추진

-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은 현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교육이 추진되고 있음
- 일반시민 대상 주민자치회 교육 추진 필요(흥미롭게 참여를 통한 주제발굴)



문제발굴 워크숍

- 이론강의(주민자치회) + 워크숍(지역문제발굴, 다양한 주제 참여)
- 워크숍을 통한 지역문제 발굴,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 강화 제감



동네한바퀴

- 현장조사(동네한바퀴) + 필드워크숍(문제종합)
- 지역기반 문제중심 학습을 통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자치의 기초이해

〈그림 4-1〉 일반시민 대상 주민자치회 교육 추진 방향

■ 일반시민 대상 주민자치회 홍보 강화

- 일반시민 대상 주민자치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인을 통한 홍보와 현수막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인적구성이 유지될 개연성이 높음
- 따라서 일반시민과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홍보를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회 홍보를 위한 예산확보가 가능한 경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을 통한 광고, 대형포털의 배너광고, 지역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홍보예산이 적은 경우에는 그간 수원시에서 사용했던 전통적인 홍보방법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것도 방법임
- 주민센터의 홍보물 비치, 카카오톡을 통한 홍보, SNS 이벤트, 수원시 공용와이파이 접속화면을 통한 홍보 등이 이에 해당함



다양한 주민자치회 홍보활동 전개

- 주민자치위원과 일반시민 간 정보격차가 상당함
- 일반시민 대상 주민자치회 홍보 강화



주민센터 홍보물 비치



대중교통 홍보



카카오톡 홍보



SNS홍보



공용와이파이 홍보

〈그림 4-2〉 주민자치회 홍보활동 방안

제2절 주민자치회 관련 다양한 학습체계 및 사업 지원

■ 다양한 주민자치회 지원 학습체계 구축

-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또는 위탁사무의 처리, 행정동 단위의 계획수립, 동정평가 등 주민자치위원회 대비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 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행정동 단위의 계획수립 등은 다양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주민 스스로 이러한 업무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 따라서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위임·위탁사무 처리방법, 자치계획 수립방법, 동정평가 등 다양한 학습을 개발하여 지원하여야 함
- 특히 자치계획 수립은 계획수립 과정 자체의 중요성과 주민들과의 공론화 과정들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적 민주성과 내용적 충실함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동별로 자치계획을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자치계획 Project Master를 선정하여 파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치계획 수립 지원(자치계획 PM*제도)과 현장실사

- 현장조사, 다양한 주체 간담회, 사업구상, 마을총회를 체계화 한 종합지원
 - * 자치계획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파견(Project Master)
- 마을총회 전 자치계획에 대한 현장실사 추진



자치계획 수립

- 결과보다는 과정에 중점
- 주민주도의 행정지원 사업과 공공 지원 요구사업 등 명확하게 구분
- 다양한 예산확보방안 고려

〈그림 4-3〉 주민자치회 학습체계 구축

■ 공동의 해결과제 부여

- 주민자치회를 통해 마을의 주요한 현안을 직접 해결하는 과정을 직접 현장에서 경험해보면 많은 변수와 갈등이 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새롭게 의지를 가지고 참여한 주체들에게 처음부터 큰 과제가 주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아주 작은 공동의 해결과제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사업예산과 갈등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비교적 갈등이 적은 마을사업을 부여하여 적은 갈등 속에서 사업을 이루어냈다는 성취감을 줄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함
 - 이러한 사업의 경험적 자산은 향후 큰 마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음
- 소규모 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은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하여 동별 주민공모사업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음



공동의 해결과제 부여(주민참여예산 연계*)

-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아주 작은 공동해결과제 부여(갈등이 적은 성취가 큰 사업의 밑거름)
- 공동의 문제발굴과 해결과정에서 성취감을 높이고 자치를 위한 준비 가능
- * 해당동의 예산심의가 과정이 아닌 해당동의 공동과제 해결과제 실행예산 성격 전환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 공동해결과제에 대한 원인파악, 대안마련, 반영, 개선 등을 통해 문제해결력 증대
- 마을 내 관심공간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정 중요

<그림 4-4> 공동의 해결과제 부여

■ 일반주민과의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활동 기획

-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주민, 동단체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간에 마을문제의 우선순위가 상이함을 볼 수 있음
- 주민자치회가 자치조직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주체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현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생각과 마을의 현안을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수시로 만들고 마을 내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함



일반주민과의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활동 기획 유도

-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이는 월 1회 회의의 안건변화가 아닌 활동자체의 변화 필요
- 현장중심의 활동을 통해 일반주민과의 괴리감 해소



공감활동

- 다양한 주민의 생각과 마을의 현안을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의 장 마련
- 마을 내 특정주제를 함께 고민하는 기회 마련 필요

<그림 4-5> 일반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 기획 유도

■ 문제해결 모델의 확산을 통한 홍보

- 지역문제 해결 기반의 주민자치회 활동을 전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마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함
 - 실제사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와 자치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문제해결의 모델로서 적극적인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선행모델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마을별 공동의 해결과제를 공모하여 대표 제안으로 선정되면, 그 개선과정에 전문가를 지원하여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도록 시범 사업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통상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범지역은 행정의 도움을 통해 조금 더 빠른 문제해결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타 동으로 확산시키는 리빙랩 전략 필요



문제해결 모델의 확산을 통한 홍보

- 지역문제 해결 기반의 주민자치회 활동 전개(선행모델의 전문가 지원 강화)
- 실제사례를 통해 주민자치, 자치력 등에 대한 이해 도모, 적극적 확산 유도



리빙랩

- 리빙랩, 디자인씽킹 등 다양한 문제해결 기반의 지역문제 해결
- 문제해결 모델의 확산을 통해 주민자치 홍보(실효적 주민자치회 접근 필요)



독산4동 공유주차장 사례

〈그림 4-6〉 문제해결 모델의 확산을 통한 홍보

제3절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화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실시

- 수원시는 주민 스스로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송죽동, 행궁동, 광교1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음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선형적 추진을 통해 향후 주민자치회 전면전환을 위한 준비의 일환이며, 사회적 공감대 확산의 측면도 존재함
 - 시범사업 자체가 가장 훌륭한 학습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의 주민자치회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는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 45.6%,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 22.6%, 봉사를 위한 단체 9.5%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946명의 응답결과에서는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 43.1%,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 21.5%, 봉사를 위한 단체 14.4%의 순으로 결과가 나타남
 - 다만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였던 송죽동, 행궁동, 광교1동의 응답자는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

38.7%,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 37.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하여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성을 지니는 활동으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이 타 지역에 비하여 좋지 못하는 기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됨
- 따라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범운영 추진시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화되고,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로서의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이 학습적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행정협의체 운영

- 주민자치회의 추진과정에 부딪히는 행정적 한계를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청, 구청 내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 주민자치회 사업추진과정에 필요한 원활한 행정부서 협의
- 관계부서 공동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시청, 구청 내 행정협의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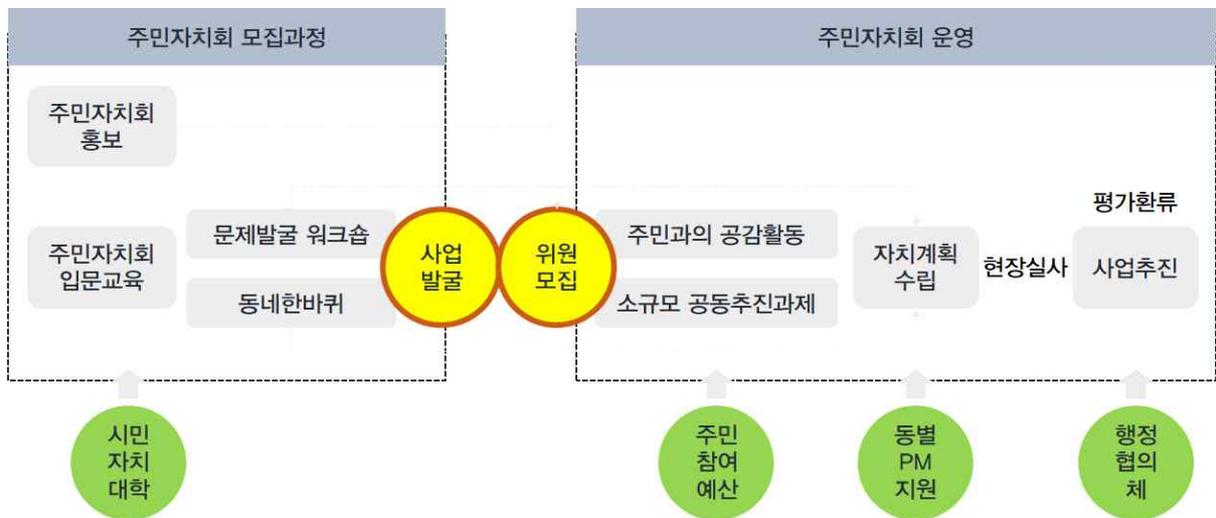
행정협의체 사례

〈그림 4-7〉 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행정협의체 운영

■ 수원형 주민자치회 모델 마련

- 주민자치회 모집과정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일반시민 홍보를 전개하고 문제 발굴 워크숍, 동네한바퀴와 같은 주민자치회 입문교육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에 대한 접촉면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회 입문교육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마을의 현안문제 중심의 마을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수원시민자치대학에 찾아가는 교육을 개설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위원모집 과정은 그 간의 소극적 모집에서 적극적인 모집으로 전환하여야 함
- 적극적인 모집은 모집방법 및 홍보를 다각화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 주민자치회 입문교육 등의 추진을 통해 마을주체와 마을사업을 발굴하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주민자치회를 경험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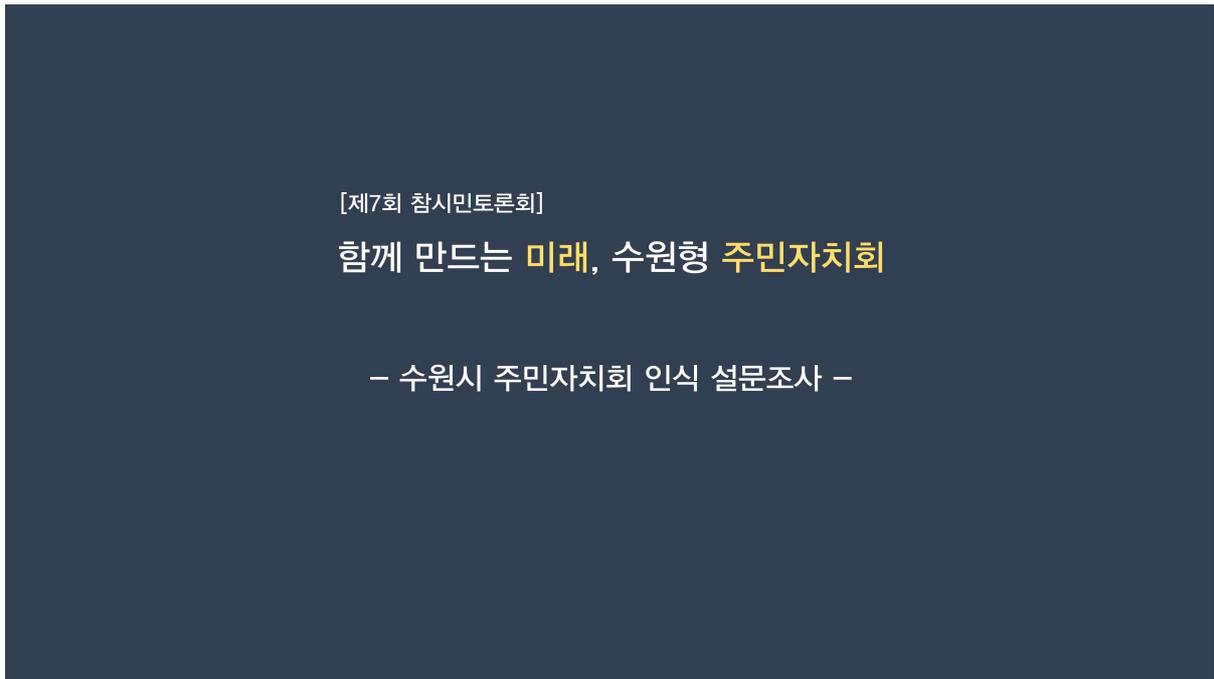
- 일반시민들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이해부족,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오해(친목단체, 지역 내 재력가들의 모임 등)로 참여를 꺼리는 측면이 존재함
- 따라서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모집 과정부터 다양한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면 가장 먼저 주민과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공감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중요함
-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일반주민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과정은 일반주민들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홍보와 함께 기초적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단순한 인사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마을사업을 지원하여 마을사업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활발하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마을사업은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해 지원하되, 갈등이 적고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민자치회 입문교육을 통한 지역현안 파악, 일반주민과의 공감활동 등을 통해 나온 주민의 의견을 하나의 계획에 담을 수 있는 자치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함
- 자치계획은 수원시민자치대학의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되, 이와 병행하여 동별 전문가 (PM)를 파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자치회 사업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와 한계를 평가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 주민자치회 모집과정부터 운영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운영되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구성하는 것을 주민자치회 시범 동에서 실험하여 향후 주민자치회가 전면 전환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당사자가 모여 당사자(마을)의 문제를 자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모인 워킹 그룹 성격을 지향할 때 주민자치회는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수원형 주민자치회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그림 4-8〉 체계적인 수원형 주민자치회 모델 마련

| 부 록 |

1. 주민자치회 설문결과 발표자료



■ 주민자치회 주민인식조사

주민자치회에 대한
 각 주제별 인식차이 파악을 통해
 수원형 주민자치회 방향 설정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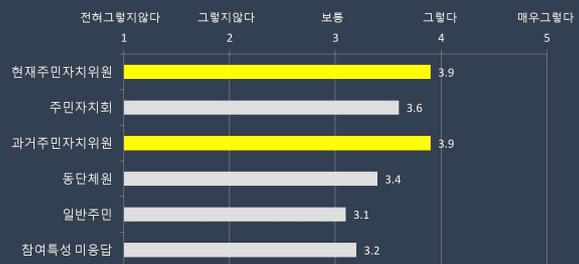
- 조사대상 : 주민자치위원 등
- 조사기간 : 18.11.15~12.04
- 조사방법 : 조직계통 활용
- 설문부수 : 1,066부

구분	문항			
주민자치(위원회)인식성	주민자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지 •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시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 • 동 행정과의 관계성 		
	주민자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지 • 주민자치회가 실시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 • 동 행정과의 관계성 		
주민자치회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선정 및 구성 방식에 대한 적합성 •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 •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시 생각하는 사항 • 동 행정 평가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 주민자치회 전환 시 참여 의사에 대한 여부 			
응답자 일반사항	성명	휴대전화번호	거주지역(동)	참여특성



■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가? (5점 척도)**

- 주민자치위원 3.9, 동단체원 3.4, 일반주민 3.1 順
- 주민자치위원 대비 동단체원 12.8%, 일반주민 18.0% 낮게 이해
- 주민자치위원 활동과 물리적 거리에 따라 이해도가 높다고 인식함



전체 응답자 기준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단체(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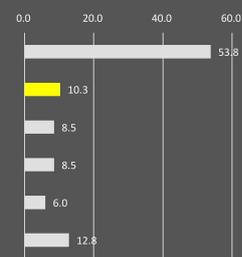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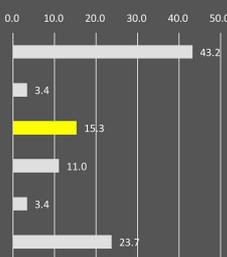
-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 49.6%,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 16.0%, 봉사를 위한 단체 10.5% 순
- 주민자치위원,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에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민자치위원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식 부족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 대상〉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단체(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자치위원은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 동 단체원은 직능단체 연합조직, 일반주민은 친목단체로 인식하는 특징이 나타남
- 전반적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주민자치위원 응답 기준

동단체원 응답 기준

일반동 응답 기준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가? (5점 척도)

- 주민자치위원 3.6, 동단체원 3.2, 일반주민 2.8 順
- 주민자치위원 대비 동단체원 6.1%, 일반주민 22.2% 낮게 이해
 ※ 주민자치위원 이해도는 동단체원 12.8%, 일반주민 18.0% 낮게 이해
- 주민자치회 순회교육 등으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이해도는 비교적 높으나, 일반시민 이해도 부족



주민자치회는 어떤 단체(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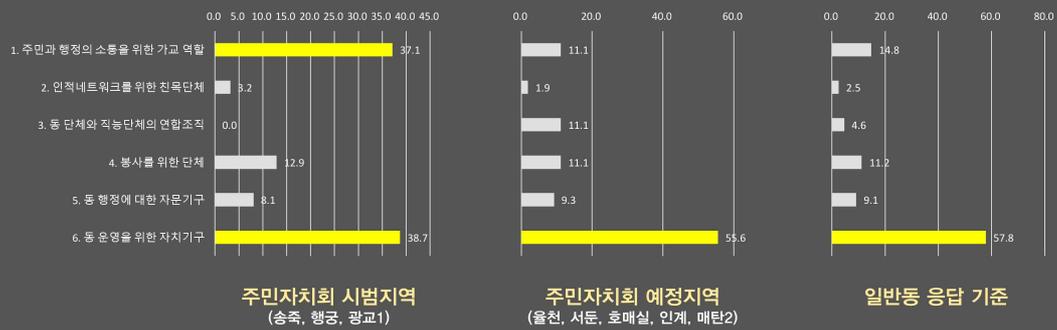
- 주민과 행정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 45.6%,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 22.6%, 봉사를 위한 단체 9.1% 順
- 주민자치위원, 동 운영을 위한 자치기구에 36.6%로 나타남
- 최근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효과가 주민자치회 인지도 향상 기여



〈주민자치회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 대상〉

주민자치회는 어떤 단체(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참여자 인터뷰 결과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실효적 차별화 한계 제시
- 시범실시에 따른 주민자치회 이해증진 효과 한계



10/22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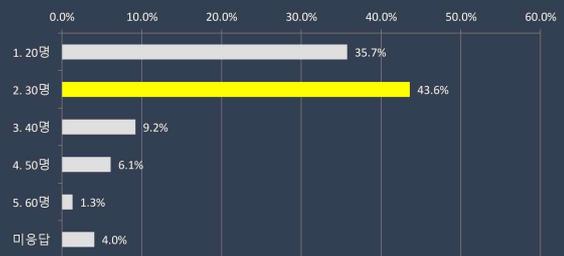
-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는 동장이 매우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며, 향후 주민자치회는 좀 더 대등한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주민자치회 구성인원은 몇 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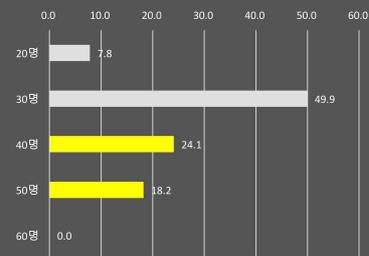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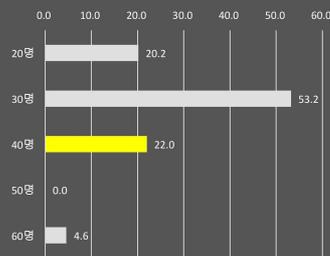
- 적정 구성인원은 30명 43.6%, 20명 35.7%, 40명 9.2% 順



전체 응답자 기준

주민자치회 구성인원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에서는 30명 53.2%, 40명 22.0%, 20명 20.2%의 順
- 주민자치위원 유경험자는 30명 49.9%, 40명 24.1%, 50명 18.2%의 순
-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 경험이 있을수록 많은 인원이 참여를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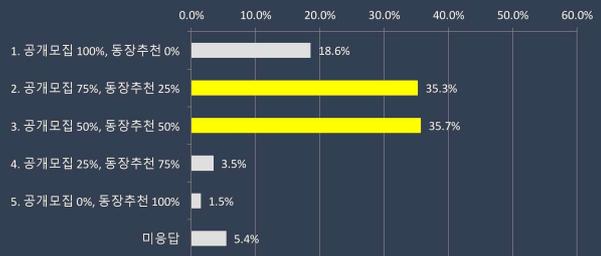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송죽, 행궁, 광교1)

주민자치위원 경험자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은 무엇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 동장추천 = 50 : 50가 35.7%, 공개모집 : 동장추천 = 75 : 25가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사 표출



전체 응답자 기준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가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마을복지 9.1%, 마을환경 8.3%, 마을경제 7.8%, 마을안전 7.0%의 순



전체 응답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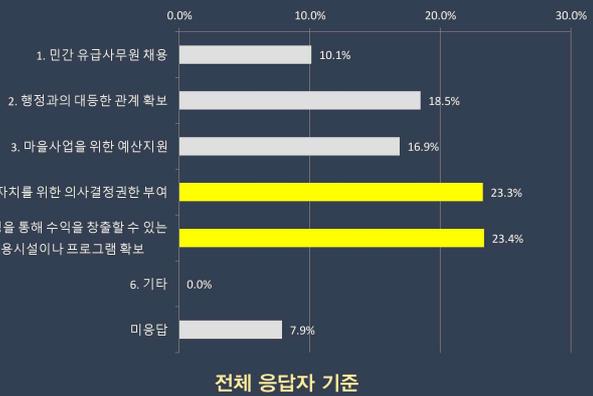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한 마을 개선방향

- 주민자치위원 경험자, 동 단체원, 일반주민 모두 주민과 행정 간 소통강화를 중시함
- 주민자치위원은 마을경제, 동 단체원은 마을복지에 관심이 높으나, 일반주민은 마을환경에 관심이 높아 주민자치회를 통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을의 분야에 괴리 발생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자체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이나 프로그램 확보 23.4%, 자치를 위한 의사결정권한 부여 23.3%, 행정과의 대등한 관계 확보 18.5%, 마을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16.9%의 順
- 행정의 예산지원보다는 자치력을 높이기 위한 운영가능시설, 의사결정권한, 행정과의 관계 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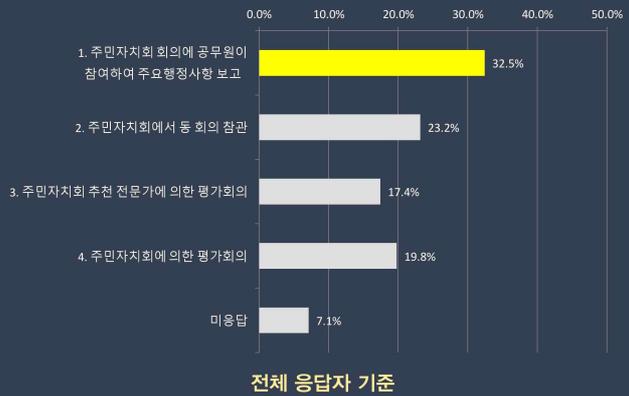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

- 주민자치위원은 자치를 위한 의사결정권한 37.1%, 자체운영시설, 마을사업예산 順
- 동 단체원은 자체운영시설 29.7%, 자치를 위한 의사결정권한, 행정과의 대등관계 順
-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에서는 자체운영시설 35.7%, 민간유급사무원 23.2%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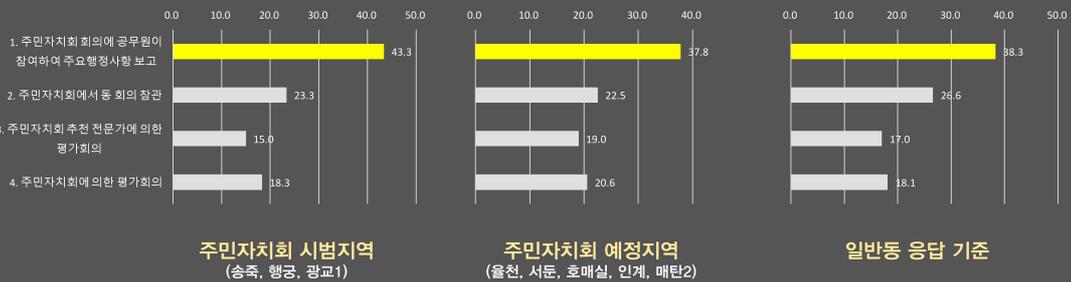
주민자치회가 동 행정을 평가하는 방식은 무엇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자치회 회의에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요 행정사항 보고 32.5%, 주민자치회에서 동 회의 참관 23.2%, 주민자치회에 의한 평가회의의 19.8%의 順
- 현행과 같은 수준의 동 행정 평가 선호



주민자치회의 동 행정 평가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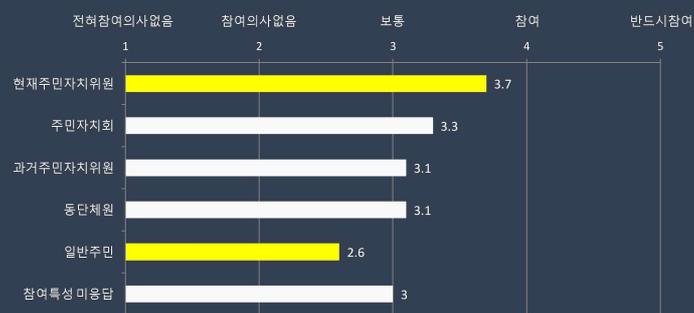
-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예정지역, 일반동 지역에서 모두 주민자치회 회의에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요 행정사항 보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행정과의 대등한 관계를 원하지만, 동 행정 직접평가는 부담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



21/22

주민주치회 전환시 참여하시겠습니까?

현재 주민자치위원의 주민주치회 참여의지가 가장 높고, 주민주치회 시범참여자, 과거 주민자치위원 경험자, 동 단체원, 일반주민 順



전체 응답자 기준

감사합니다

